3·1운동 90주년 기념 국제학술강연회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

International Lecture Meeting

Commemorating the 9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Movement in Korea

"Significance of 1919 in World History"

일자 : 2009년 3월 9일(월) 10:00~17: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Date : 10:00~17:30, 9th March(Mon), 2009

Venue :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내외 전문가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방에서도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멀리 미국에서 오신 서던 메소디스트대학의 토마스 존 녹(Thomas John KNOCK) 교수님, 중국사회과학원의 경윈즈(耿云志) 교수님, 일본 교토대학의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兌)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3·1운동 9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3·1운동과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919년이 갖는 오늘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해석과 전망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와 관심 있는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3·1운동 90주년을 뜻있게 기념하고 3·1운동을 거시적 시야에서 논의해보고자 하여 형식을 국제학술강연회로 하였습니다.

3·1운동은 계층·지역·성별·종교의 벽을 허무는 첫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국제적 연계 속에서, 국제적 안목을 갖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국제주의적 성격고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3·1운동은 한국인의 시각에서 상당부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국제적 시야에서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919년은 세계 제1차대전이 종결된 직후로 베르사이유조약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가 성립되는 해였습니다. 더욱이 한국인들의 대규모 3·1독립운동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중국의 5·4운동과 일본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등 동아시아의 정세는 급격한 변동을 치렀습니다. 미국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는 당시 하나의 이념적 지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3·1운동 90주년을 기념하는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를 논의하는 학술강연회를 열게 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현대시기에 들어와 한국과 중국, 일본은 침략과 저항, 지배와 피지배의 주체가 되어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1운동 90주년에 즈음하여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전 인류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90년 전의 3·1운동과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를 검토하면서 당시 상황이 시사하는 오늘의 의미 등을 거시적 시야에서 반추하여 미래를 조망하는 자양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오늘의 이 학술강연회가 오래 오래 기억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9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金容德

국제학술강연회 일정

09:30~09:50	등록
09:50~10:00	개회
	개회사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오전 사회	이훈(동북아역사재단 제1연구실장)
10:00~10:50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김희곤(안동대 교수, 안동독립운동기념관장)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세계사적 의의 – 토론 : 박찬승(한양대 교수)
10:50~11:40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경윈즈(耿雲志, 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 : 중국근대사에서의 5·4운동의 의의 – 토론 : 백영서(연세대 교수)
11:40~12:30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일본 교토대 명예교수) :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와 3·1독립운동 – 토론 : 최덕수(고려대 교수)
12:30~14:00	점심식사
* 오후 사회	차웅환(동북아역사재단 제2연구실장)
14:00~14:50	**제4주제 발표 및 토론** – 토마스 녹(Thomas KNOCK,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대학 교수) : 우드로 윌슨의 국제주의 : 과거와 현재(1919~2009) – 토론 : 권용립(경성대 교수)
14:50~15:40	**제5주제 발표 및 토론** – 김용구(한림대 한림과학원장) : 베르사유 체제의 역사적 의의와 한반도 – 토론 : 이근욱(서강대 교수)
15:40~16:00	휴식
16:00~17:30	종합토론 사회 :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International Lecture Meeting Commemorating the 9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Movement in Korea

09:30~09:50	**Registration**
09:50~10:00	**Opening Remarks** by **KIM Yongdeok** (President,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Morning Session**	Moderator : LEE Hoon (Director of the Research Division I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00~10:50	- KIM Heegon (Professor, Andong National University ; Director of Andong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Hall) : Significance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World History - Discussant : PARK Chanseung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10:50~11:40	- GENG Yunzhi (Researcher, Institute of Modern Histor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Significance of the May 4th Movements in Modern Chinese History - Discussant: BAIK Youngseo (Professor, Yonsei University)
11:40~12:30	- MATSUO Takayoshi (Professor Emeritus, Kyoto University, Japan) : Taisho Democracy and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 Discussant: CHOI Duksoo (Professor, Korea University)
12:30~14:00	**Lunch**
* **Afternoon Session**	Moderator : CHA Woonghwan (Director of the Research Division II,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4:00~14:50	- Thomas KNOCK (Professor,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United States) : Woodrow Wilson's Internationalism : Then and Now(1919-2009) - Discussant : GWEON Yongrip (Professor, Kyungsung University)
14:50~15:40	- KIM Yongkoo (Chairman, Hallym Academy of Science, Hallym University) :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Versailles System and the Korean Peninsula - Discussant: LEE Geunuk (Professor, Sogang University)
15:40~16:00	**Break**
16:00~17:30	**Wrap-up Session** Moderator: Yi Mahny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목 차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세계사적 의의 / 金喜坤 ····· 11
Significance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World History / Kim Heegon ····· 29

■ 五四运动在中国近代史上的意义 / 耿云志 ····· 49
중국근대사에서의 5·4운동의 의의 / 겅윈즈 ····· 59
Significance of the May 4th Movements in Modern Chinese History / Geng Yunzhi ····· 73

■ 大正デモクラシーと三・一独立運動 / 松尾尊兊 ····· 93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와 3·1독립운동 / 마쓰오 다카요시 ····· 103
Taisho Democracy and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 Matsuo Takayoshi ····· 113

■ Woodrow Wilson's Internationalism : Then and Now(1919-2009) / Thomas J. Knock ····· 125
우드로 윌슨의 국제주의 : 과거와 현재(1919-2009) / 토마스 J. 녹 ····· 139

■ 베르사유 체제의 역사적 의의와 한반도 / 金容九 ····· 151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Versailles System and the Korean Peninsula / Kim Yongkoo ····· 163

■ 참가자 소개 ····· 174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세계사적 의의

▌김희곤 ▐

3 · 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세계사적 의의

김희곤 (안동독립운동기념관)

〈목 차〉

Ⅰ. 시작하는 말
Ⅱ. 3·1운동이 가지는 세계사적 의미
Ⅲ.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지는 세계사적 의미
Ⅳ. 독립운동 근대화론을 말한다
Ⅴ. 맺음말

Ⅰ. 시작하는 말

1919년은 세계사에서나 한국사에서 모두 중요한 시기였다. 세계사로 보면, 이때는 선발 제국주의 국가와 후발 제국주의 국가 사이에 한 차례 영토쟁탈전이 끝난 시기이자, 그 마무리 작업으로 파리 강화회의가 진행되고, 승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던 출발점이기도 하다. 식민지로서는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의 승패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승리한 국가들로부터 통치 당하던 식민지는 사실상 해방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세에 눌려 살던 식민지들은 전쟁의 결과를 주시할 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신을 통치하는 제국주의 국가가 비록 승전국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웠다. 행여나 국제회의가 진행되다보면 자기 민족과 국가의 문제를 다룰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마음은 떠오르게 마련이고, 또 거기에 힘을 기울이는 것도 그러했다.

침략을 받거나 식민지를 겪던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하나는 외세침략에서 해방되어 자주국가를 만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제나 중세사회로 돌아가기보다는 근대사회와 국가를 일구어낸다는 것이다. 전자는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벌인 식민지해방투쟁으로 나타났고, 후자는 전근대사회

를 극복하여 근대사회를 구현하는 근대화운동으로 펼쳐졌다. 정리하자면, 식민지 해방운동은 대개 자주독립과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사에서도 1919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시기였다. 8년 넘는 동안 식민지라는 종속상태를 겪었는데, 이를 벗어나 자주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로 판단한 시기가 이 때였다. 또 독립할 경우 세울 나라가 구시대로 돌아가는 군주국가가 아니라 근대민주국가로 나아간다는 진보성을 확연하게 드러낸 때도 이 무렵이었다. 앞의 것이 근대화운동이고, 뒤의 것이 식민지해방운동이다. 이러한 변화현상이 바로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국사에서도 1919년은 매우 중요하다.

1919년의 중요성을 전제로 삼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살펴보자. 3·1운동이 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묶어 살피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3·1운동의 산물이자 1919년에 이루어진 성과이며, 또 그 특수성이 세계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Ⅱ. 3·1운동이 가지는 세계사적 의미

1. 제국주의 침략을 되받아치는 투쟁의 선두에 서다.

세계에서 침략과 수탈로 살아간 제국주의 국가는 10개 정도의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토 팽창으로 시작된 절대주의는 전 세계에 식민지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그들에게는 그 행위가 ‘발견’이자 ‘진출’이지만, 그 앞에 무릎 꿇린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의 나라에게는 그것이 좌절과 고통의 순간이었다. ‘진출’이란 이름으로 ‘침략’이 줄을 잇고, 네덜란드 시대를 거쳐 프랑스와 영국이 패권을 다투는 시기가 뒤를 따랐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들 서유럽 국가들이 세계 대부분 지역을 식민지로 장악했고, 뒤늦게 출발한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등이 식민지 분할을 요구하면서 곳곳에서 부딪쳤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제국주의 국가의 아류였다.

서유럽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민족들이 제국주의 침략 앞에 짓밟히는 수난을 당했다. 동남아시아를 보면,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인도 등이 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영국 등에게, 짧게는 100년에서 길게는 400년 넘는 동안 침략을 받거나 반식민지 혹은 식민지 역사를 보내야 했다. 또 남아메리카는 아시아보다 훨씬 일찍부터 식민지로 살다가 1800년대 전반기에 독립하는 나라가 많았지만, 20세기 후반에 종속이론이 이 지역에서 튀어나온 사실을 보면, 유럽 열강에 얽혀있던 '제국주의 국가 – 식민지'의 종속성이 그렇게 쉽게 벗어나기 힘든 그물임을 알 수 있다. 식민지 역사는 유럽에서도 많았다. 영국의 그늘 아래에서 800년이나 되는 기나긴 세월을 국토 상실과 반식민지, 또는 완전한 식민지라는 굴레를 거듭하며 살아온 아일랜드는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국주의 침략과 수탈의 물결은 워낙 강했다.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식민지는 존재하기도, 존립하기도 힘들었다. 식민지의 저항이 미미할 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400년이나 전개된 스페인의 통치 아래, 필리핀은 별다른 저항을 보이지 못했다. 300년 넘은 기간 프랑스에 핍박받은 베트남도, 응웬 왕조와 남부지역 유림들의 의병항쟁 등이 잠시 존재했을 뿐, 저항은 크지도 오래가지도 못했다. 240개 종족과 500개 넘는 언어로 구성된 인도네시아가 벌일 수 있는 저항도 그 한계가 뚜렷했다. 또 인도에서 '세포이 반란'이라 불리는 인도인 영국 용병들의 저항이 있기는 했지만, 엄밀하게 말해 처우에 대한 불만에서 싹튼 저항이지, 식민지해방운동・독립운동 차원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오랜 역사 문화를 간직한 아시아 지역이 이 모양이니,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에서 제국주의에 저항한 대규모 독립운동은 거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식민지와 제국주의 열강의 국력 차이는 너무나 컸다. 식민지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되받아치기 위해 반침략 투쟁을 벌였다면,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어디에서나 침략에 맞서 싸운 투쟁은 존재했다. 다만 그것이 민족이나 국가 단위의 저항으로 나타난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대개 침략의 힘이 저항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했기 때문에 복속은 쉽게 이루어졌고, 식민지는 문명 차이를 내세운 제국주의 통치 아래 길들어져 갔다.

절대주의와 제국주의의 침략과 압제를 막아내려는 저항은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자 정체성을 지키려던 몸부림이었다. 세밀하지는

않지만, 아시아 지역의 반제투쟁사만이라도 둘러보면, 한국 독립운동사가 가지는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그려낼 수는 있을 것 같다.

3·1운동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한국사에서 최초로 근대국가와 민주공화제를 달성해냈다는 사실에서 그렇다. 전 민족이 참가한 것이라거나 비폭력투쟁으로 침략세력에게 저항하고, 세계에 알려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게 평가한다. 그런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 세계 식민지해방운동사에서 가지는 위상이나 의미가 몇몇 나라의 식민지해방운동이나 반침략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다. 이를 넘어서자면, 제국주의가 식민지쟁탈전을 벌이면서 성난 파도처럼 세계를 집어삼키던 그 시기에, 그를 비판하고 막아서는 흐름의 선두에 선 것이 3·1운동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주의 노선, 그 물결을 되돌려 놓으려는 투쟁의 대표적인 거사가 바로 3·1운동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식민지의 해방투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3·1운동은 반침략·반제국주의 투쟁의 물결과 함께 진행되었다. 아일랜드 독립전쟁(Irish War of Independence 혹은 Anglo Irish War)이 1919년 1월부터 다시 터져 나온 것도 여기에 속한다.

이에 비하면 3·1운동은 몇 가지 면에서 독특한 성격을 보였다. 발표된 독립선언들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잘못을 지적하고, 인도주의를 내세워 인류가 평화공존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독립해야할 당위성만이 아니라, 인류가 지향해야 할 범세계적인 이상과 지향점을 제시한 점에서 그렇다.

3·1운동을 한국사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현재 한국에서 발행된 세계사 교과서조차 3·1운동을 내세우지 않는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식민지해방을 꿈꾸던 많은 약소국들의 움직임과 투쟁은 중요한 서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술과 평가는 극히 인색하다. 자국사적인 시각을 극복하자면서 오히려 자국사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세계 식민지해방투쟁사 차원에서 보면, 3·1운동은 제국주의 침략 물결을 되돌려 놓으려는 투쟁의 선두주자였다. 비록 제국주의 열강 가운데 승전국이 판을 폈던 파리 강화회의였지만, 여기에 식민지 해방 문제를 다루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 3·1운동이다. 한국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온 겨레가 하나 되어 요청하고 나선

거사는 한 민족과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물론 그 힘이 모자라고, 전달력이 약했지만, 패권주의 때문에 몰락한 식민지가 독립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 그 사실만은 확실하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식민지 국가, 혹은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 앞에 서 있던 나라에게는 귀감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3·1운동 소식을 크게 보도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펼쳐진 세계 식민지해방운동 속에서 평가해야 마땅하다. 3·1운동은 시간적으로 선두에 있었고, 중국의 5·4운동 과정에서 3·1운동을 높이 평가한 것은 그 반향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참가자들의 비율도 그러했으며, 무저항 비폭력 투쟁의 방법에서, 또 인류사회가 지향해갈 인도주의를 제시한 사상적인 면에서도 높게 평가해야 마땅하다.

2.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고 정통성을 확립하다.

한국 역사에서 '민중'의 존재는 독립운동과 근대화운동 과정에서 등장하고 정착하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이와 비슷한 용어는 백성이라거나 민民이란 말로 쓰였지만, 그것은 결코 역사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피통치자의 의미만 가졌을 뿐이다. 그들 집단이 내는 목소리는 역사 주체로서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란'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일이 훨씬 흔했다.

이에 반해, 민중은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를 움직여나가는 주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민중이 등장한 시기는 근대이고, 따라서 이는 근대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피통치·피지배 계급이 아니라 통치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러한 민중이 한국사에 등장하고 정립되어가던 계기와 시기가 바로 3·1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3·1운동은 국내만이 아니라 나라 밖에 망명하거나 이주하여 살던 동포사회까지 하나로 묶어 정체성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중은 쓰러지는 나라를 되살리려는 투쟁 속에서 형성되었다.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에 맞서는 과정에서 자존에 대한 인식을 높여갔고, 나라를 빼앗긴 뒤 식민통치를 겪으면서 저항 주체로서 민중의 모습이 갖추어져 갔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

나라를 지키고 지배하던 주체가 왕과 양반계급으로 이루어진 지배계급이었다면,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주체가 민중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독립운동 과정에서 계급사회를 뛰어 넘는 진보성을 보이게 되었다.

역사적 정통성은 급변하는 시기에 등장하는 화두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일본 제국주의 국가가 한국을 빼앗고 통치하던 시기에 정통성을 누가 가지는가? '대일본제국'이 가지는가, 아니면 조선총독부가 그것을 가지는가? 둘 다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역사적 정통성은 이를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아 겨레의 손, 민중의 손에 쥐어주려던 항일독립운동가들이 가진다. 민중이 바라고 지향한 것이 '왜놈 나라'가 아닌 '한국'이자 '조선'의 독립이었고, 이를 일구어내려는 노력은 곧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실제로 민중은 독립을 염원하였을까? 그 답을 제대로 알려주는 현상이 3·1운동이다. 일찍이 한국사에서 이만큼 절대적인 구성원이 집단으로 항쟁을 일으키고 또 참가한 일이 없었다. 구성원 거의 모두가 참가한 저항은 곧 민중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것이자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3·1운동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떠오른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말은 만세운동으로 나타난 민중의 뜻이 곧 민족의 지향점을 말하는 것이며, 그 주장은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황제와 지배층이 지켜내지 못한 나라를 민중의 힘으로 되찾으려 나선 사실은 역사적 주인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민중의 힘으로 국가를 다시 되찾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뜻에 맞는 정부를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 이는 3·1운동 이전, 즉 독립운동 전반기에 분출된 역사적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것이었다.

3·1운동은 일제의 침략이 한민족의 뜻과 상반되는 것이고, 강제병합이 무효라는 사실을 천명했다. 일제가 온 세계에 대놓고 '한민족과 합의하여 병합시키고 한국인이 일제의 통치와 지배를 수긍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떠들어대도, 그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일제의 선전과 홍보라는 것이 조작된 것임을 온 천하에 알린 '대사건'이 바로 3·1운동이었다.

3·1운동에 나타난 한국인의 주장은 일제 침략과 점령이 무효라는 사실이다. 억지로 맺어진 조약과 협약들이 모두 무효이며, 이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모든 결과가 무효라는 점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당성과 도덕성, 나아가 정통성을 가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는 겨레가 나라를 잃은 시기에 오직 항일투쟁에 나선 인물이나 세력만이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3·1운동에서 선언된 내용에는 한국이 이미 '독립국'이라는 사실을 천명했다. 국내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 첫머리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대한제국을 일제가 멸망시켰지만, 3·1운동에서 한국이 이미 '독립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다. 이는 일제가 강박으로 무너뜨린 나라를 다시 되살려 독립국을 세운다는 뜻을 천명한 부분이다. 그렇게 선언된 '독립국'을 세우고, 국가를 운영할 정부조직체를 만드는 것은 역사적 과제였고, 이를 추진해 나간 열매가 바로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세워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임시정부라는 정부조직체였다.

3·1운동에서 나타난 민중의 뜻은 더 이상 군주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대한제국은 종결된 것이다. 3·1운동이 벌어지던 그 어디에도 보황주의를 주장하거나 복벽주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간혹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던 무렵에 군주제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거나 복벽주의 세력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다. 사실상 3·1운동은 역사 회귀적 논리에 종지부를 찍는 거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민중의 뜻과 명령을 현실로 이끌어낸다면, 그것은 바로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담아내는 일이었다.

Ⅲ.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지는 세계사적 의미

1. 민중이 선언한 독립국, '대한민국'을 세우다.

독립선언서는 첫 머리에 조선이 독립국이요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밝혔다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보았다. 독립국을 세우려거나 세우려는 움직임과 소식은 이미 만세운동 이전부터 나타났다. 1919년 1월부터 상해지역 독립운동가들은 대단히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은 나라 안팎으로 대표를 보내 민족의 독립의지를 드러내도록 독려하는 한편, 프랑스로 보낼 대표로 김규식을 뽑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느라 분주했다. 2월 1일 김규식이 상해를 떠나 유럽으로 향했다. 국내와 국외 곳곳

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상해로 모여 들었다. 세계정세를 분석하고 독립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2·8독립선언과 3·1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세력들이 대표를 상해로 보냈고, 만주지역 대표들도 속속 그곳으로 모였다. 그렇게 모여든 대표들은 마침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며 흥분했다. 그들은 독립임시사무소를 열었고, 독립운동가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정보를 나누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마침내 국가를 세우고 정부를 조직하는 역사적인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4월 10일 여러 곳에서 모여든 독립운동가 대표 29명이 회의를 열었다. 밤을 지새우며 진행된 이 회의는 이튿날 국호와 연호를 결정하고, 체제를 규정하는, 큰 성과를 낳았다.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요, 운영체는 민주공화정체를 갖춘 임시정부였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민국’이자, ‘민주공화제’였다. 그렇다면 이날 회의는 바로 제헌의회였다. 하루 밤 사이에 만들어낸 내용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결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잃은 뒤 독립운동가들이 줄곧 논의하고 발표해 온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짧은 순간에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4월 11일 제헌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모두 10개조로 구성되었는데,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는 나라가 세워졌음을 알려준다. 나라 이름, 국호國號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다. 나라를 잃을 때는 황제가 주인인 제국帝國이었지만,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국民國이다. 대한大韓이라는 이름에 국가의 주권 소유자를 나타내는 민국을 붙여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한 것이다. 또 여기에 그 국가의 정치체제가 민주공화제라는 사실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말보다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였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건국 사실은 잊혀지고, 오직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것만 머리에 박혀 버렸다. 국가를 세운 일은 생각하지 않고 정부조직만 만든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줄여서 그냥 ‘임시정부’라고 불러온 것에 원인이 큰 것 같다. ‘대

한민국'과 '임시정부'로 나누지 않고 그냥 이를 붙여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쓰거나, 아니면 '임시정부'라고만 줄여서 사용하다보니, 대한민국보다는 임시정부에 치우쳐 생각하고 평가하는 일이 일반화 된 것이다. 더구나 해방 이후 '임시정부'를 세우자는 논의가 나왔을 때, 그것과 앞서 중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혼동할까 우려하여 후자를 그냥 '상해임시정부'라고 사용한 탓도 있다. 상해를 떠난 이후 시기를 말할 때도 모두 '상해임시정부'라고 적었을 정도였다. 이런 까닭으로 '대한민국'은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저 '상해임시정부', 혹은 '상해임정'만 남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마치 없었던 사실처럼 잘못 평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 증거가 급히 만든 제헌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이란 국호로 나타났던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은 '민주공화제'라는 말이다. 민중이 바라던 나라가 황제국가가 아니라 민국이요, 이를 실현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사실과 공화주의 체제를 갖춘다는 지향점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러한 지향성이 3·1운동 과정에 우연히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이미 나라를 잃은 직후에 미국에 살던 동포사회에서 그러한 주장이 나왔고, 특히 1917년 중국에서 활약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여 민주공화정체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일이 있었다. 민중과 민족의 뜻을 정리하고 담아낸 이 선언이 다시 3·1운동 당시 여러 독립선언문을 통해 다시 등장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대한민국을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1919년 건국 당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했다. 3·1운동을 앞뒤로 곳곳에서 선언된 정부조직체가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실질적인 형체와 움직임을 보인 국내의 한성정부와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를 모두 합류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하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건설에 반대한 일이 없고, 나아가 모두 임시정부라는 정부 조직체에 가담했던 것이다.

2. 대한민국을 운영할 정부조직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이제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를 보자. 대한민국임시헌장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라는 조직체가 통치·운영한다는 뜻이다. 임시의정원이라는 의회의 결의를 거쳐 임시정부가 통치행위를 집행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래서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의회관리정부라고 규정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이를 운영할 정부조직체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점이다.

사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만들던 첫 회의 자체가 제1차 임시의정원 회의였고, 제헌의회 첫 회의였다. 다시 말해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의 산실인 셈이다. 나라를 잃은 지 9년이 흐른 뒤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정체를 갖춘 국가와 정부, 그리고 의회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독립협회운동에서 추구하다가 실패했던 의회설립운동이 20년이나 지나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 임시의정원이었다.

그러한 사실이 갖는 의미는 개원 당시 흥분에 가득 찬 이동녕 초대의장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서 잘 느낄 수 있다.

이때야말로 내 생애에서 가장 보람을 안겨주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군주제를 부활하려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 나라에 민주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발은 침략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지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 민주공화정체를 갖춘 국가를 세운다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민족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진보성까지 담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임시정부나 임시의정원이 언제 ‘임시’라는 접두어를 뗄 수 있을까? 그것은 물론 식민지를 청산하고 독립할 때일 것이다. 해방이 되면 ‘임시’라는 말을 떼고 정식 ‘정부’가 된다. 이는 한국의 완성된 국가 건설이 독립운동과 더불어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뜻은 임시의정원과 ‘대한민국 국회’의 관계 설정에서도 드러난다. 대한민국임시헌장 마지막 제10조는 이를 규정하였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이는 국토를 회복하면 국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이다. 곧 임시의정원을 국회로 바꾼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은 1919년 9월 11일에 선포된 제1차 개정 헌법에도 담겨 있다.

제34조. 임시의정원은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난 일日에 해산하고 기其 직권은 국회가 차를 행함.

이 내용은 일제를 내쫓고 국토를 회복하면 임시의정원을 해산하고 국회를 구성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국토 회복 이전에는 임시정부-임시의정원이 운영·통치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국회가 그 권한을 갖는다는 뜻이다. 나라를 세우고 이를 완성시켜 가는 과정을 이처럼 체계적으로 마련했고, 그 뒤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줄곧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힘을 쏟았다.

3. 정부조직체를 중심으로 식민지해방투쟁을 벌인 세계사적 사례

세계에서 제국주의를 노래한 나라는 10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부분은 식민지를 겪고 해방투쟁을 펼쳤다는 말이다. 절대 다수가 식민지해방투쟁을 펼쳤는데, 그 가운데 정부조직체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 나라는 흔하지 않다. 가장 흔한 조직체가 베트남광복회를 비롯한 단체나, 의용군 조직, 그리고 아일랜드의 신펜당이나 인도네시아 국민당과 공산당,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처럼 정당 조직이었다. 정부조직이 있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 머물렀던 프랑스와 폴란드 망명정부 정도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을 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무려 26년 4개월을 유지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다. 국내 행정을 원격제어하면서 통치력을 장악하고자 시도하기도 했고, 군대를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펼치는 한편으로 연합군과 공동작전을 구사하기도 했다. 또 의열투쟁을 벌여 침략세력에 맞싸우는 '반침략전(反侵略戰)'을 전개하면서 외교활동에 힘을 쏟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독립운동이 세계 식민지해방투쟁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드러낼 만하다.

간혹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부' 구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는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에 지나지 않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늘 그러했던 것도 아니다. 초기에 국내 행정 일부를 장악한 것이나, 독립군 조직을 하부조직으로 거느리고 국내진공작전을 펼친 것, 의열투쟁으로 일제 침략 책임자를 처단하려거나 처단한 것, 광복군을 조직하여 연합군과 공동작전을 펼친 것, 이념적인 분화를 이겨내며 좌우통합정부를 달성한 것 등은 성과로 꼽힌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약화된 요인에는 내부 문제도 있지만, 일제의 탄압과 주변 정세의 어려움도 크게 작용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약화된 요인에는 국내와 이어지던 생명선을 일제가 철저하게 찾아내어 끊어버린 탓이 컸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승인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형편없이 낮게 평가하는 연구자가 더러 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침략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국가와 정부를 승인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승인할 나라라면 아예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도 않았고 식민지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침략국가들이 승인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세계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식민지해방투쟁과 식민지출신 국가가 어디 있을 수 있나? 그러한 논리는 침략국의 시선, 제국주의 국가의 시각으로 볼 때 성립할 뿐이다.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1943년 12월 카이로선언에서 식민지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독립이 보장된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과 위상이 세계 식민지해방운동사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Ⅳ. 독립운동 근대화론을 말한다

세계 식민지해방운동사에서 공통된 역사적 과제는 두 가지라고 앞서 말했다. 하나는 전근대적인 요소를 극복하여 근대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 침략과 이에 맞서 싸운 식민지 해방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구체제 극복을 통한 대내적인 근대화운동으로, 후자는 침략과 저항이라는 대외적 반외세 투쟁으로 나타났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특히 근대화를 추구한 부분에서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근대라는 말을 분야별로 다양한 성격으로 표현된다.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민주공화제

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상적으로는 합리주의와 과학적 비판정신을 말하게 된다. 이 가운데 민주공화제를 말하자면, 자연히 근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등을 주요 항목으로 말하게 된다. 이 가운데 정치사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언제 민주공화제를 지향하고, 또 그것을 일구어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정치체제면에서 군주정을 넘어 민주정을 향한 논의가 시작된 시기는 독립협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다고 당장 그 때가 민주정의 출발은 아니다. 군주정을 극복하여 민주정을 지향하는 과제이지만, 당장 벼랑 앞에 서 있는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군주정이라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형편이었다. 다음으로는 그 국가를 지켜내면서 민주정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근대로 향해 나아가던 과정에 얽힌 과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마침내 나라가 망하자, 조선총독부라는 통치조직 아래 민중은 기존 군주정보다 더 악화된 조건 아래 살게 되었고, 이제 역사적 지향점은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민주공화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 3·1운동 직후에 발표된 여러 정부조직체가 한결같이 민주공화정체를 내세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되었다. 이는 3·1운동으로 나타난 뜻을 수렴하여 수립한 것이라기보다는, 3·1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명령한 것을 독립운동가들이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단순하게 '정부 수립'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최초의 '민국'이 세워진 것이고, 이를 운영하는 최초의 '국민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그 정부가 여러 가지 한계를 고려하여 정식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요, 정식 국회가 아니라 임시의정원을 만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사상적인 분야를 보아도 그렇다. 전통적인 위정척사사상을 바탕으로 펼쳐지던 의병항쟁은 점차 민중의 손으로 확산되면서 계급사회라는 한계를 극복해 갔고, 이를 헤치고 올라선 혁신유림은 서유럽 근대 사조인 계몽주의나, 시민사회를 향한 혁명 논리를,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회주의까지도 도입하여 독립운동의 현장에 접목시켰다. 3·1운동 이후 신세대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념을 수용하면서 민족문제 해결에 나선 것도 사상적인 면에서 근대화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한 부분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를 근대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제의 침략과 통치가 한국 자본주의 성립과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과, 이와 달리 오히려 이지러진 성장을 가져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식민지수탈론’이 그것이다. 열 걸음 물러서서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 하나만 가지고 식민지 덕분에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제적 기준만으로 역사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통해 일구어낸 가치가 그것을 덮고도 남기 때문이기도 하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이 근대를 이루어내는 과정은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다. 물론 근대화의 모델이나 과정을 제국주의 국가에게 배우고 받아들인 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침략국의 계획 자체가 식민지를 근대화 시키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지배하고 수탈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벌인 아시아・아프리카의 식민지해방운동은 처절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10년 가까이 제국주의와 투쟁을 벌여 독립을 달성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의 역사가 그를 말해준다.

한국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주독립이라는 민족문제 해결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근대국가를 달성해내는 성과를 올렸다. 더구나 민족문화말살정책이라는,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가혹한 압제를 이겨내며, 자주독립과 근대사회 건설이라는 목표에 힘을 쏟았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적으로 근대사회를 일구어 냈다. ‘독립운동 근대화론’은 식민지가 해방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근대사회를 일구어낸 것을 말하며, 한국 독립운동사,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표적인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1919년은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였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격돌하였고, 식민지들은 해방될 기회를 눈 여겨 보았다. 그럴 때 3・1운동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 물결에 맨 먼저 맞서 싸운, 그

것을 뒤집으려던 대표적인 투쟁이자 시도였다. 승자의 기준으로 재편되는 정세라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지만, 절대적으로 강한 침략세력에 맞선 놀라운 저항인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3·1운동은 한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전통적인 피지배계급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 민중이 등장한 때문이다. 더구나 그 민중이 새로운 국가와 정부조직체를 요구하였고, 그 부름에 맞추어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임시정부가 조직되어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공화정체가 등장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다. 또 독립운동으로 근대화를 달성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민족문제 해결 차원에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근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기준에서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계 식민지해방투쟁사에서 우뚝한 위상을 갖는다. 국가를 세우고 정부조직을 구심점으로 삼아 무려 27년 가까이 투쟁한 사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1919년은 바로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시점이자,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세계 개조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나선 출발점이기도 하다.

영토와 국민을 직접 장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뿌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침략 제국주의 국가의 시각만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짧고도 잘못된 논리일 따름이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해방투쟁을 벌인 민족과 국가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 세계 대다수가 겪은 것을 무시하고 오직 몇 나라가 펼친 침략의 역사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침략 제국주의 국가들이 민주사회, 시민사회를 만들 때 시민혁명을 거쳤다. 한국은 독립운동을 통해 시민혁명에 해당하는 성과를 올렸다. 식민지가 해방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민족문제만이 아니라 근대사회를 일구어가는 전형적인 모델을 한국 역사가 보여준 것이다. 독립운동 근대화론은 그래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1919년은 승전국만이 아니라 식민지에게도 좋은 기회로 파악되던 시기였다. 한국은 세계 식민지 가운데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 대열의 맨 앞에 섰고, 독립운동을 통해 근대화를 일구어가는 모범적인 과정을 보였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평가해야 옳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사, 『3·1운동50주년기념논집』, 1969.
대한민국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3·1운동편 1-3, 1977-1979.
한국근현대사학회,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1·2, 국가보훈처, 1999.
김진봉, 『3·1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2000.
신용하,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사회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윤병석, 『증보 3·1운동사』, 국학자료원, 2004.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국사편찬위원회, 2005.

Significance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World History

Kim Heegon (Andong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Hall)

〈Content〉

Ⅰ. Prologue
Ⅱ. The Meaning of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World History
Ⅲ. Meaning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in world history
Ⅳ. Independence movement as modernization
Ⅳ. Independence movement as modernization

Ⅰ. Prologue

The year of 1919 was a very significant period for both Korean and world histories. In world history, the year saw a completion of territorial war between the front-runner and late-coming imperial nations. Wrapping up the world war, the year was a starting point for the victorious countries to engage in efforts to form a new international order centered on them, giving birth to the Paris Peace Treaty. As for the colonized countries, they were seriously affected by the victory and defeat of the imperial n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colonized nations which had been under colonial rule of the victorious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could not expect independence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Accordingly, the nations controlled by the outside forces had no choice but to pay a keen attention to the result of the war. But it would not be so easy for the nations to give up all privileges even if they were ruled by the winning countries. As for them, they might have expected chances to proactively raise the issues related to them and their peoples in the process of hold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The colonized nations seemed to have two kinds of similar goals. One was to set up an independent nation free from outside forces and the other was to establish a modernized

state rather than returning to old regime or middle age. The former was revealed in the form of independent movement against colonialism while the latter was materializ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modernization. To sum up, the independence struggle had the common objective of gaining sovereignty and constructing modern nations.

In Korean history, the year of 1919 was also an important period. After experiencing more than eight years of colonial rule, the Korean people felt that they faced a precious chance to set up an independent nation. They also had progressive trends calling for establishment of a modern democratic country instead of retuning to the old regime of monarchism. The former refers to modernization while the latter implies independence movement from colonial rule. The year of 1919 is very important in the Korean history in that such change took place at that time.

In view of the significance of the year 1919, let's look into the meaning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ason of jointly studying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campaign is that the latter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former and their special significance deserves world assessment.

Ⅱ. The Meaning of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World History

1. Taking the lead in fight against imperial aggression

Less than 10 nations have engaged in imperial aggression and exploitation around the globe. Absolutism triggered by territorial expansion by Spain and Portugal was focused on establishing colonies around the world. As for the colonial countries, such invasions were considered `discoveries' or `forays' but for the colonized nations in Asia, Africa and America they were equivalent to frustrations and agonies.

Infiltration took place in the name of advancement. For instance, France and UK fought over the hegemony following the Netherlands. During the post-industrialization period, the

front-runner Western nations occupied most of the world regions as their colonies and they confronted challenges from late-comers like Germany,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who called for dividends of their own. In the process, Japan emerged in East Asia as a second-tier imperial nation.

Many nations other than Western countries were subjected to the imperial aggression. In Southeast Asia, nations like Indonesia, the Philippines, Vietnam and India became colonies of the Netherlands, Spain, France and the UK for the period extending from 100 to 400 years. Nations in Latin America had been under colonial rule from a longer time before the colonialism in Asia, with some of them being liberalized in early 1800s. But the rise of "the theory of dependence" in late 20th century proves the interlocked relations between the colonial and once colonized countries. Colonial history can also be traced in Europe. Ireland provides the most exemplary case whose people suffered from the yoke of UK's colonial rule for more than 800 years without territorial sovereignty.

The imperial nations' exploitation and aggression was so strong that few colonized nations could stand with it. That is the reason why the colonized nations' resistance remained at minimal level. Despite Spain's colonial rule which lasted more than 400 years, the Philippines deployed a little resistant movement. In defiance of colonial rule of France, Vietnam carried out only a small scale independence movement by Nguyen Dynasty and Confucius scholars in the southern region. Indonesia's independence movement was also limited given the fact that the nation is composed of more than 240 races and 500 languages. In India, there was ``Sepoy Mutiny'' triggered by Indian mercenaries, but that was a sort of revolt in protest of the poor welfare system rather than an independence movement. Given the seemingly minimal resistance in Asian region with relatively long history and tradition, we can definitely conclude that there were virtually no independence movements against imperialism in Africa and Oceania.

The discrepancy of state power between the colonial and colonized countries was so wide. This is the reason why the colonized nations which carried out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all odds should be highly assessed. Struggle against aggression exists elsewhere. But there are few cases where such movements took place at national level comprising all the people. In general, oppression easily occurred because the strength of

aggression was so strong compared to the resistance. In the process, colonized nations were tamed with the influence of the cultural superiority of the colonial countries.

Most resistance against absolutism and imperialism first took place in provincial areas. It was a kind of struggle for survival and for keeping identity. Looking into the history of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in Asia, albeit without details, will help describe the common and special points of Korea's independence movements.

The March 1st Movement has been highly assessed in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Most of all, the movement helped to give birth to the modern and democratic republic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in consideration of nationwide participation, non-violent struggle and far-reaching impact upon the global community. But there is a limitation also. Regarding the meaning of March 1st movement in the world's history of anti-colonialism, some assert the movement gave only a limited impact upon independence movement in some countries. We need to pay heed to the fact that the March 1st Movement took the leading role in preventing then dominant imperial forces from overwhelming the remaining regions of the world.

The March 1st Movement should be judged as the most representing struggle aimed to prevent the imperial nations' colonialism and its trend from spreading further. To prove this, we need to refer to the independence struggle by the colonized nations around the World War I. In the wake of the world war, the March 1st Movement began with the rising trend of anti-aggression, and anti-imperialism. This was in line with the rise of the Irish War of Independence or Anglo Irish War.

By comparison, the March 1st Movement showed particular characteristics in some aspects. The declaration touched upon the problematic points of imperialism and hegemonic attitudes while submitting a direction for humankind for the sake of peaceful coexistence based on humanitarianism. Besides the inevitability of independence, the movement also cited the ideal and vision the humans should pursue.

The Movement has generally been dealt with in the context of Korean history. Even world history textbooks published in Korea have largely failed to refer to the movement.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independence struggle by many small countries in the post-World War I period, there have been few references about them. It is a sort of

reversed discrimination against own history in the pretext of overcoming self history-oriented concept.

From the perspective of world anti-colonialism history, the March 1st Movement took the leading role in stopping the mega trend of imperialism and colonialism. The movement also prompted nations attending the Paris Peace Treaty forum to deal with the issue of the colonized nations though the participants originally attempted to exploit the forum as a stage to garner their interests. It was a kind of challenge against the then power nations as the movement, backed by all the people, called on the attending nations to cope with the Korean issue. It was beyond a matter of one nation and people. Despite limited influence and lack of spreading forces, the movement realized a certain goal of advertising the fact that the colonized nations were so eager to retain independence. Such move provided an exemplary case for the nations under or facing colonialism. That was the reason why many nations like China made headline coverage about the movement.

The March 1st Movement should be assessed within the context of the world anti-colonialism history in the wake of the World War I. The movement took the lead in terms of time range, and China highly appreciated the movement in dealing with the May 4 Movement, which proves the movement's influence and repercussion. The movement should get high mark in light of the high participatory rate, adoption of non-violent methods and provision of humanitarianism the human beings should pursue.

2. Grass-roots people emerged as the prime mover of history and set up an identity

The concept of 'minjung (masses)'' emerged and took root in the Korean history in the proces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modernization. During the pre-modern society, similar terms of 'baekseong' or 'min' (people) were used but they were never referred to the prime mover of history. They only meant the controlled class. Rather than meaning the leading class, they mainly got negative implication as seen in the reference of 'minran' (popular uprising).

In contrast, minjung has a further positive implication as the prime mover of history.

They emerged in modern society, which means they are the consequences of the modernization process. They became the very subject, rather than objective, of ruling. As the March 1st Movement took place at the time when such masses emerged and took root in the Korean modern history,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e Korean history. In addition, the movement provided a chance to solidify integrity by combining the ethnic Koreans overseas as well as the people in the nation.

The concept of masses was formed in the struggle to save the nation on the brink of collapse. They enhanced the sense of self-pride in the process of fighting against imperial aggression. Since the colonial rule began, they became the subject of resistance. During the pre-modern society, the ruling class composed of King and the noble men called yangban played the leading role of protecting the state. But the masses replaced their role during the post-modern period. Thus, they became to take a progressive nature beyond the difference of classes.

Historical legitimacy is one of the key issues emerging in a rapidly changing era. And then who had the legitimac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great Japanese imperial or the Government-General? Neither. Anti-Japan independence activists deserve such historical legitimacy who endeavored to reinstate the nation from the hands of the Japanese imperialist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masses wanted the liberation of the Joseon Kingdom from Japan's colonial rule and such efforts deserve the legitimacy. And did the masses hope to see and independence in the real sense? The March 1st Movement provides the exact answer to this question. The March 1st Movement is the world's unprecedented independence campaign attended by an absolute majority of people across the nation. The fact that almost all the people took part in the movement shows their solidarity, providing an opportunity to firm up identity.

The March 1st Movement was a historical event through which masses emerged as the prime mover of the history. This means the people came with a direction the nation should go, and their claim has historical legitimacy. The people's uprising instead of the royal family and upper class to reinstate the nation shows they have emerged as the leader of history. The people wanted to see setup of a government that abides by the need of the people. This was equivalent to finding solution to the historical tasks before the March 1st

Movement.

The March 1st Movement demonstrated that Japan's aggression was totally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forcible annexation was not effective at all. The movement rebutted Japan's claim that `the annexation was made in a consultation with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s are enjoying the benefits from the annexation.' The movement was a big event which revealed Japan's propaganda and advertisement were totally fabricated.

The Korean people asserted Japan's occupation and aggression was null and void including various kinds of forcibly-contracted agreements, treaties and consequences of such accords. This means independence fighters have the properness, morality and legitimacy for their struggle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m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Korean people proclaimed Korea was already a "sovereign" nation through the March 1 Movement. They proclaimed "Joseon (Korea) is an independent nation and its people have their own sovereignty" through the Independence Declaration. Though the Japanese imperial regime collapsed the Korean Empire, the Korean people made it clear that the nation is an independent one in an apparent bid to revive the nation. So setup of an independent nation and its government became a historical miss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Provisional Government were founded in April, 1919.

The Korean people expressed their clear-cut will through the March 1st Movement that the nation should not return to the monarchy regime again, which means the Korean Empire came to an end with the enhanced consciousness of the people. There scarcely were calls for prolonging the pre-modern political system centered on empire and the emperor among the movement activists. Despite stints of such outmoded systems in the initial stage of setting up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y were only temporary. As a matter of fact, the March 1 Movement was a historical incident that put the final touch on any attempts to reverse the history. So putting the people's will and order into concrete action had been a task to retain historical properness and legitimacy.

Ⅲ. Meaning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in world history

1. Setup of 'Republic of Korea,' an independent nation established by masses

As mentioned before, the Independence Declaration described Joseon as an independent nation and Joseon people having their own sovereignty. There had been moves to set up the independent state long before the March 1st Movement. From January, 1919, independence activists in Shanghai region were very busy preparing for the movement. They tried to send delegates to foreign nations including Kim Kyu-sik to France in bids to express the determination of the Korean People toward national independence. Toward that end, they focused on raising money. Kim left Shanghai for Europe on Feb. 1. Figures who acted at home and abroad gathered in Shanghai to discuss details on world situation and the planned movement. Organizations preparing for the Feb. 8 Declaration and the March 1st Movement and bodies in Manchurian region dispatched their representatives to Shanghai. The people in Shanghai at that time were excited at the news that the March 1 Movement occurred. They opened liaison office where independence activists gathered to share information and discuss policy direction. They also came to hold a historical meeting to discuss the set up of future state and it's government.

On April 10, 29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regions held a round-the-clock meeting and came with a decision on the name and systems of the nascent state. The nation was named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with democratic republic system taking charge of the administration. That was a democratic republic set up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us the meeting wa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nstitution. Superficially, that was too big a consequence to be created through one-night discussion. But the decision was an outcome of long-time deliberation by the independence activists since accession. So they could sum up the details in a short span of time and come with the determination.

The following day on April 11, "The ROK Provisional Constitution", which is equivalent to the nation's founding constitution was legislated with 10 articles in total. Following is the first article.

Article 1.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This mean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 whose name is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 was an empire ruled by emperor when it was on the verge of losing its sovereignty. But it became a republic led by masses. Minguk (民國) means a nation of people with the state system of democratic republic.

Up until now, we have been familiar to the expression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set up in 1919' rather than 'the Republic of Korea was set up'. This led to highlight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rather than the Republic of Korea. By using the term of provisional government instead of the full name of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the people have been more accustomed to the term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nly. After liberation there were talks for setup of an interim government. For fear of possible confusion with the new government, the previous one began to be called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name remained even aft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left Shanghai. In the process, people came to remember only the name of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while forgetting that of 'Republic of Korea.' But as a matter of fact,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as evidenced by the first article of the nation's founding constitution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Constitution.'

The second most important thing is the fact that the nation was a 'democratic republic,' rather than an imperial nation and the people pursued a democracy based on republic system. And such wishes were revealed i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Such claim was already expressed in the ethnic Korean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immediately after the loss of the nation while independent fighters active in China proclaimed the pursuit of the democratic republic through the "Declaration of Grand Solidarity." The declaration contained the will of the masses and the people and was reflected in the Independence Declaration of the March 1 Movement.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on the basis of such moves.

In order for the ROK Provisional Government to have representing rights, it should have gotten permit from the people in 1919. There were sever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sprouted up around 1919 like the 'Hansung Government' and 'Korean People's Congress' in Vladivostok in action. The ROK provisional government came to have the representing power by absorbing the two organizations. Both of them did not oppose to the idea of founding the Republic of Korea by voluntarily join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2. ROK's government organizations – 'provisional government' and 'provisional congress.'

Now let's look into the rel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rticle two of the ROK Provisional Constitution stipulates as follows:

Article 2: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ul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based on the resolution of the provisional congress.

This means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provisional parliament were supposed to rule and administrate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set to implement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 of the parliament. Regarding this, some scholars define the Provisional Government as parliament-controlled government. We can confirm here the fact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alongside the provisional government as the organizations needed for a state.

The parliament's first session dealt with the issues of founding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congress. In other word, the provisional parliament gave birth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Nine years after the annexation of the nation, the Korean People were able to found state, equipped with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The parliament was the fruit of a 20-year-long struggle after the Tongnip Hyeophoe (Independence Council) failed to set up the

parliament.

Such enthusiasm can be seen through the following emotional statement by then first House Speaker Lee Dong-nyung. “Now is the most meaningful moment of my life. We are not commit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for the sake of the revival of the monarchism. We are processing the moves with a firm mission of enabling democratic system to take root in this country.”

This shows that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not simply meant for the nation to escape from Japan’s colonial rule. Rather, it was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of establishing democratic republic in a historical progressiveness beyond a simple issue of own nation.

If so, wh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Provisional Congress could detach the auxiliary word of ‘provisional’? It would be the time when the nation met liberation from the colonial rule. After liberation, the government would become a formal one, not a provisional one. This is stipulated in the last article of the ROK Provisional Constitution.

Article 10. The Provisional Government shall convene a parliament in one year after recovering the national territory

This refers to the need to convene the parliament upon recovering the national territory, which means changing the provisional congress to formal National Assembly. This fact is also contained in the first revised constitution promulgated on Sept. 11, 1919.

Article 34. The Provisional Congress shall be disbanded with the setup of a full National Assembly its rights shall be transferr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means a strong determination to form a formal National Assembly while disbanding the provisional congress after expelling the Japanese imperial regime and recovering the national territory. This also indicate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dministered by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recovery of the national territory though it was rul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provisional congress

before the liberation. This shows the Korean people endeavored to establish a state and improve it systematically.

3. The world's rare case of carrying out anti-colonial struggle at government level

No more than 10 nations in the world enjoyed imperialism, which means many other nations suffered from the colonial rules and engaged in independence movement. A few of them carried out the anti-colonial struggle at the government level. Most common style involved campaigns led by political parties as shown in the examples of the liberation or voluntary bodies of Vietnam, the Irish party of Sinn Fein, People's Democratic Party and Communist Party of Indonesia, and Kuomintang (The National People's Party) and Communist Party of China. Governmental organizations only included exiled governments of France and Poland based in the UK during the World War II. But they existed only for a short span of time. In contrast, the ROK Provisional Government carried out independence movement for more than 26 years and four months from April, 1919 until the national liberation. It attempted to grasp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rough a remote control on the one hand while carrying out independence struggle by forming a military unit on the other hand. In the process, it also employed joint military strategy with the united allies. It sometimes focused on diplomatic activities as part of "anti-aggression tactics," which is a peculiarity point the Korean independence struggle has in the world history.

Some point out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d failed to do what it was supposed to. Of course, the government was nothing but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t times, but not always. This is proved in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dominated part of the domestic administrative units in initial stage and carried out infiltration mission into the territory by utilizing the independence forces while sometimes joining hands with the allied forces. It also punished those who cooperated with Japan while realizing the integrity between the right and left forces transcending the ideological differences. Beside internal factors that led to weak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re were also outside factors like Japan's

oppression and unfavorable international situ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at time focused on finding the lifeline betwe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domestic forces, the greatest factor that contracted the influen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Some experts gave extremely poor marks 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citing the fact that it failed to get the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is based on contradictory logic. Imperial countries have no reason to recognize the controlled state and its government trying to escape the imperial and colonial rules. The imperial countries should have not invaded or colonized at first once they had the intention to recognize the controlled nations. No colonized countries in the world would be assessed positively should they be judged negatively only becau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d not recognize them. Such theory is valid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imperial n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fact that allied forces guaranteed the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Cairo Declaration proves the greatness of the ROK Provisional Government's efforts in the world anti-colonial history.

Ⅳ. Independence movement as modernization

As mentioned before, there are two historical tasks in anti-colonial independence movement. The one is to pursue modern state while overcoming the pre-modern factors and the other is to devote to a liberation movement against the imperial invasion. The former was revealed in the form of in-house modernization drive by replacing the old regime while the latter was materialized with struggle against aggression from outside. In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March 1st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d both factors. In particular, we need to look into the meaning of the modernization campaign. The term of modernity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respective areas. In politics, it means democratic republic system while in economy, it refers to capitalism. In terms of thought, it indicates rationalism and scientific critical mentality. When it comes to democratic republic system we may naturally refer to modern democracy, civic society, liberty and equality, and human dignity. In political

aspect, we need to focus on pursuit and cultiv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system.

The move for the possible adoption of democratic system instead of the monarchy one dates back to the time of ‘Tongniphyeophoe.’ But tha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democratic system began at that time. Despite the mission for the democratic system, there was a dire need to keep the imperial system viable to save the nation on the brink of collapse. The then Korean Empire failed to keep the national identity and solve difficulties in the way to the democratic regime. With the collapse of the nation, the Joseon people’s living condition more deteriorated under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than under the hitherto monarchy system. Given the background, the people came to pursue construction of sovereign independent nation and democratic republic government in a shift of historical direction. This is the reason why many 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sprang up immediately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came with the democratic republic system in the front.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in 1919. This does not mean that the activists set up the state by reflecting the will revealed in the March 1st Movement. Rather, it means the activists put into action what the people ordered to them via the movement. That did not mean a simple setup of a government. Rather it was significant since it involved the first popular republic and democratic government. The the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provisional congress instead of formal one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unfavorable factors faced with it.

Progressiveness was also revealed in the areas of society and thought. The voluntary civilian army’s struggle was originally based on a ‘wijeongcheoksa’ (xenophobic campaign based on Confucianism) but began to break the limit of class society in the process of being spread through the masses. On top of this, the renovating Confucian scholars grafted various modern theories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cluding illuminism, revolutionary doctrine toward a civic society and even socialism. During the post-March 1st Movement, young generation independence activists attempted to resolve the national issues through various kinds of ideologies like socialism, which helped speed up modernization in terms of thought.

In economic aspect, capitalism is generally cited as the criteria of modernization. And

there is brewing controversy regarding this. Some claim Japanese colonial rule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capitalism while others assert Japan's rule brought about negative impact with perverted growth. It is nonsense to claim that the modernization was solely thanks to the colonial rule. This is because economic criteria cannot be the whole barometer of judging a history. The value Koreans cultivated through the independence movement far exceeds the economic merit.

The colonized countries experienced far more difficulties never seen for the Western imperial nation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re might be some lessons that they learned from the imperial countries in terms of modernization model and procedures. But as a matter of fact, the colonial nations' ultimate goal lied on perpetuating the colonial and exploiting system rather than helping the colonized counties speed up the modernizat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oppressed countries mainly in Asia and Africa engaged in fierce struggle to escape from the colonial rules. This is seen in histories of Asian nations including Indonesia which achieved independence via a 10-year independence struggle during the post-World War II period.

In the midst of such hardship, however, Korea was not involved in only national issue of sovereign independence. It managed to realize a modern nation. This is all the more meaningful in that the nation concentrated on the goal of constructing a modern society and attaining a sovereign independence despite Japan's unprecedented cruel policy of crumbling the national culture. Against all odds, the nation could see the rise of modern society in political aspect. 'The Theory of Independence Movement as Modernization' refers to colonized countries' setup of a modern society in the process of anti-colonialism campaign and there is much need to highly assess the fact that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particularly involving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ROK Provisional Government, has been a representing model.

Ⅴ. Conclusion

1919 was a significant year both for imperial and colonized countries. While the imperial countries engaged in hegemonic struggle involving the ownership of the colonial territories, the colonized nations were seeking chances to get liberation. Against that backdrop,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ook the front line in a struggle against the invading forces and even with attempts to revert the trend. Due to a winner-takes-all situation, the movement largely failed to achieve its goal but it was certainly a surprising resistance against absolutely strong forces. Accordingly, the movement should be understood and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world history.

The March 1st Movement has also a significant meaning in Korean history. It is because of the rise of 'minjung' (masses) as the leading force of history,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controlled class. The masses called for new type of state and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response to the call. The ROK Provisional Government was also set up as the first democratic republic in the Korean history. Based on these and others factors,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ROK Provisional Government have secured historical properness and legitimacy of themselves. The fact that the nation could realize modernization through independence movement deserves high appreciation.

The ROK Provisional Government has an outstanding prestige in the world history of anti-colonialism. More than 27-year-long struggle based on an established state and government has been unprecedented elsewhere in the world. The year 1919 was a starting point for the nation to make such history and for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to proactively utilize circumstance to change the global trend.

Some refuse to recognize the ROK Provisional Government as the roo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sense that it had failed to put the people and territory under its control. But such a claim is short-sighted and wrong, based on the perspective of imperial countries. We need to deal with the issue from the viewpoints of the colonized countries which carried out independence movement. It is improper to view the issues based on the history

of some imperial countries while neglecting the histories of many other oppressed nations.

The Western imperial nations underwent civilian revolution in the lead up to the formation of democratic and civic states. Korea reaped fruits equivalent to civilian revolution through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Korean history demonstrated an exemplary model of developing a modern society as well as coping with national issues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anti-colonial struggle. The modernization theory of independence movement can thus have persuasive assertiveness.

The year of 1919 was a period regarded as a good opportunity for the colonized nations as well as the victorious countries. Among the world's colonized countries, Korea took the front in a struggle for realizing sovereign independence and modernization and demonstrated exemplary process of cultivating modernization via independence movement. This is the reason why we should assess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ROK Provisional Government within the context of the world history.

五四运动在中国近代史上的意义

耿云志

五四运动在中国近代史上的意义

耿云志 (中国社会科学院)

九十年前的3月1日，英雄的韩国人民，在这里首先发动了大规模的反日示威游行，高举独立建国的大旗，发表独立宣言。这是历史上非常有名的“三一运动”。这场运动给中国人民特别是中国的青年以极大的鼓舞，在当时中国的进步报刊上曾有过热烈的反响。[1] 两个月之后，由于在巴黎和会上，中国山东主权竟被日本帝国主义强取豪夺，激起中国人民的愤怒，在中国的北京，爆发了一场非常有名的“五四运动”。

这两个运动有着密切的关联：

第一，有着相同的时代背景。1918年第一次世界大战结束，在世界范围内掀起民族解放运动的高潮。两个运动都是为争取民族独立和民族建国的伟大目标而奋斗。

第二，两个运动都是由首先觉悟起来的青年学生充当先锋，又恰好遇到一个共同的敌人，那就是极富侵略性的日本军国主义。

鸠叩，两个运动都成为各自民族文化复兴的伟大开端。

正因为有这些内在的关联，所以，由这两个运动所引发的两国人民的反抗帝国主义侵略、压迫，争取民族独立和民族建国的斗争，一直是互相支援的。在“三一”运动发生一个月后，韩国爱国志士成立了新韩临时政府，不久，该临时政府转移到中国，它作为韩国伟大独立运动的领导机构，一直在中国境内活动了二十多年。他们得到了中国进步党派和人民群众，特别是经过五四运动洗礼的青年们的积极支持和援助。韩国义士们的反日斗争也支援了中国人民反抗日本侵略的斗争。特别是在1937年至1945年的抗日战争中，两国人民并肩战斗，结下了深厚的友谊。

有关三一运动和中韩两国人民在争取民族解放的斗争中所结下的友谊关系，中韩两国学者已经做过很多研究。我今天在这里，想着重地向各位介绍五四运动在中国近代史上的伟大意义。

---

1) 如《申报》，《公言报》，《民国日报》等报纸和《每周评论》，《新潮》，《建设》，《国民》，《太平洋》，《晨报副刊》等杂志，都曾发表大量的相关报导和评论。

一

五四运动是中国近代民族觉醒的新开端。

近代中国的民族主义是从清末开始形成起来的。那时，因受到众多帝国主义列强的侵略和压迫，严重威胁到中华民族的生存。为图自救，中国人的民族意识被激活起来。但因为所面对的威胁，是具有高度近代文明的西方各国，中国人不得不放弃原有的以“华夷之辨”为核心旧有的民族观念，而逐步导向以建立近代民族国家为目标的近代民族主义。卓越的启蒙思想家梁启超说：“民族主义者，世界最光明正大公平之主义也。不使他族侵我之自由，我亦毋侵他族之自由。”[2] 又说：“今日欲救中国，无他术焉，亦先建设一民族主义之国家而已。”[3] 从那时开始，无论是革命党人，还是立宪派，还是大量的主要在国内活动的开明官绅，基本上都是为争取建立近代民族国家而向帝国主义抗争。

但在五四运动以前，中国人的民族主义带有明显的被动性特征。只是在被侵略，被压迫到不能忍受的时候，民族意识才得以复苏，才有民族自卫的行动。从1917年中国正式加入对德、奥两国的战争时起，中国人开始主动地参与国际事务，开始在世界上主动地为争取民族权力而斗争。虽然，此次参战，也曾受到几个外国政府的鼓动，但确实也是在中国内部许多有识之士的努力奋争之下才主动作出的决策。由于这一决策，使中国在战后得以参加在巴黎举行的和平会议，有机会在涉及中国权益的问题上，说出中国人自己的意见。而且，最重要的是，中国再也不像以前那样，完全听从列强的摆布。中国作为第一次世界大战的战胜国，理应无条件地收回战前德国帝国主义在中国山东掠取的权利。但日本帝国主义蛮横狡辩，并事先私下拉拢其他帝国主义国家，强取德国从前在山东的种种权利。中国与会代表在中国民众的强烈要求下，拒绝在如此损害中国主权的和约上签字，为后来争取国家主权独立和完整而进行的斗争，留下充分的合法性空间。这在中国近代历史上是空前的一次胜利。

这是由五四运动激发起来的中国人民的民族主义的第一个新特点。

其次，在五四运动中觉醒起来的民族主义，已不再仅仅局限于自己一个国家的范围，由于中国人主动参与世界事务，他们对世界大局，对世界各国增加了了解，感受到世界规模的反帝国主义，反殖民主义的民族解放运动的伟大潮流，认识到世界各被压迫民族历史命运的共同性。所以，五四运动所带动起来的民族主义，是与世界主义，或者说是

2) 见《饮冰室合集·文集之六》第20页。
3) 见《饮冰室合集·文集之十》第35页。

与国际主义相联系在一起的。从此，中国人民的反抗帝国主义的斗争，便与世界一切被侵略，被压迫民族的斗争紧密联系在一起。五四以后改组的国民党，明确提出要“联合世界上一切以平等待我之民族”。五四运动以后诞生的中国共产党，更是明确地以国际主义为自己的一项基本原则。

所以说，五四运动把中国人民的民族主义推进到一个新的历史阶段。中韩两国人民互相支持，互相援助的反对帝国主义，特别是反对日本帝国主义的斗争，就是在这样的背景下紧密联系在一起的。当时，中国最重要的政治家，孙中山先生在谈到山东问题时曾明确指出，中国人要将目标放远一点，第一步要“扶持韩人独立”。[4] 事实上，有很多中国进步青年参与韩国志士创办爱国报刊，或积极撰文投稿，共同推动反日爱国斗争，支持韩国的独立运动。至于以后在抗日斗争中，两国人民的共同奋斗，那更是尽人皆知的事实了。实际上，五四运动以后，中国人民反对帝国主义的斗争，其实质是对世界各国人民的民族解放斗争的有力支援。

二

五四运动开启了中国政治革命的新阶段。

五四运动的爆发，本来是同早几年就发起的新文化运动有直接的关系。由一批受过良好的西方教育的年轻教授，和一批经历过辛亥革命，对实行所谓共和制以来的种种昏乱感到失望的老革命党人所引发的民族文化的批判与反省运动，给予一代青年人注入了许多新观念。他们中的一些聪慧而又勇敢的人，决心要把从他们的老师们那里学到的新思想付诸行动。巴黎和会中国外交失败的消息猛烈地刺激了他们的神经，他们醒悟了，愤怒了。于是首先是新文化运动的中心北京的学生们起来示威游行，发表宣言，喊出了“外抗强权，内锄国贼”的口号。随后，全国各地的学生青年陆续加入到抗议的行列，再接着，工商业者、工人、店员、学徒，乃至一些乡村的农民，也都参加到这场空前的爱国运动中来。广大群众的奋起，立即把一场文化运动推进到政治运动的轨道上来，一场新的政治革命的高潮即将来到。

在新文化运动中被引进，和借机涌进中国来的新思潮主要有无政府主义、自由主义、

4）见韩国志士在中国出版的刊物《震坛》第六期。

民主主义、国家主义，布尔什维主义，以及实验主义、科学方法论等等。这些林林总总的主义，在当时都有一定的影响，都可以激动成千成万的青年们的心。但就政治上说来，无政府主义确曾一度获得先机。通常在一个专制主义传统异常深厚的国家，一旦旧的权威难以维系时，无政府主义最容易泛滥，它本身是对旧有的专制主义的一种反动，一种惩罚；同时它可以继续发挥令旧有的制度解体的作用。这就是为什么五四运动前后，无政府主义最为流行的缘故。它造成了无数摆脱了旧制度，旧伦理束缚的个人，使他们在新的政治革命高潮到来的时候，能够不受羁縻地选择自己的道路。

在第一次世界大战结束的前夕，发生在俄国的布尔什维克革命，是令全世界都刮目相看的一种新事物，他的劳农主义给人最为突出的印象。而就在五四运动后不久，俄国政府宣布放弃沙皇时代强加给中国的一切不平等条约所赋予的权利。这使数十年来苦苦为寻求中国自救的出路的中国人眼前一亮，他们以为终于找到了一位可信的老师，一种可靠的革命途径。于是许许多多热血充盈的青年纷纷以俄国布尔什维克为榜样，以他们所遵循的马克思列宁主义为指导理论，很快就组织起中国共产党。他们由十几个人发展到几十人，到几百人，再到几千几万人，像燎原的野火一样，迅速在布满干柴的中国大地上燃烧起来。中国共产党的诞生和迅速发展壮大，是五四运动后中国政治革命步入新阶段的最重要的条件。

由于辛亥革命推翻了持续两千多年的君主专制制度，结束了最令人痛恨的满清王朝，因此领导这场革命的孙中山在中国人民中一直享有很高的声望。他的三民主义虽然有许多不够清晰之处，但它还是可以被一些自由主义者和民主主义者所接受，或至少可以被容纳。五四运动以后，孙中山吸收了来自苏俄的组党和动员群众的一些观念和方法，在此基础上，加上有苏俄和中国共产党的推动，孙中山着手改组国民党，使之获得新的生机和活力。由此，相当一批受过五四运动洗礼的青年被吸收到国民党的队伍中来。改组后的国民党顺理成章地实现了与中国共产党的联合。

五四运动中最核心的口号是“外抗强权，内锄国贼”。强权是指帝国主义列强；国贼是指国内反动军阀及其所操控的政府官吏。随着斗争的发展，人们越来越清楚地认识到帝国主义和国内反动军阀统治集团，是人民求解放的主要敌人。所以在改组后的中国国民党的宣言中，在新诞生的中国共产党的纲领中，都明确地把反对帝国主义和国内军阀统治集团列为自己革命的主要目标。在此前，中国人民从来没有这样明确自己革命的对象和目标。从清末以来，中国人一直习惯于“以夷制夷”的老套。总是指望联合一部分强国，以对付另外一些强国，结果总是牺牲国权，而达不到自救的目的。在第一次大战结束时，

中国曾一度很迷信美国总统威尔逊的十四条，也很相信英、法等国家会支持中国收回战前被德国帝国主义掠夺去的山东权利。但最终是中国人被出卖了。巴黎和会决定把中国的山东主权拱手转让给日本帝国主义，这不能不令中国人大失所望，不能不令中国人重新认识帝国主义列强的本质。在国内的问题上也是一样。例如孙中山即长期希望用联合一部分军阀势力，打倒另一批军阀势力，逐渐接近革命统一的目标。当巴黎和会举行之际，国内在上海也正在举行南北议和的会议。当时由中国最有头脑的一些知识领袖们所办的刊物《每周评论》上，曾发表《两个和会都一样》这样一篇文章，指出，巴黎和会是国际帝国主义列强的分赃会议，上海的南北议和会议则是国内军阀的分赃会议。他们都不会考虑中国国家和人民的根本利益。中国人民被欺骗了。从而，中国人民认识到，要救国，要求得人民的解放，必须对外坚决反对帝国主义，对内坚决反对一切反动军阀势力。

明确革命的目标，认清革命的敌人，这是革命的第一大问题。正因为在这个重大问题上，国民党与共产党有了共识，这才为两党的合作创造了共同的基础。

1924年国共合作的实现，立即引导中国革命进入高潮，并很快结束了北洋军阀的统治。

三

五四运动极大地推动了新文化运动的迅猛发展，造成了中国民族文化复兴的一大枢纽。

我们前面说过，五四运动的爆发与前此已经发生的新文化运动有直接的关系，或者说，五四运动是在新文化运动准备好的条件下发生的。我们可以这样假定，如果没有新文化运动，巴黎和会使中国蒙受外交完全失败和巨大民族耻辱，在此情况下，中国人肯定也会有愤怒和反抗的表示。但决不会有那样大的规模，也决不会有那样对国际问题比较清楚的认识，更不会有拒绝在和约上签字的坚决态度。这原因不是别的，就是因为有了经过新文化运动洗礼的无数青年学生，这些学生不但自己能够找到表达他们的抗议的最好方式，而且有能力到社会上，乃至到工厂、农村去宣传和组织广大的民众。因此，中国近代社会第一次出现了最广泛的社会动员，以社会知识精英、广大青年学生为先导，有社会各阶层首先觉醒的人士积极跟进，在新思想新观念的指引下，进行政治运动和文化运动。试想，如果没有获得新思想、新观念的新青年，如果没有在新文化运动中受到白话文的良好训练的新青年，怎么可能有这一切呢？

下面，我将扼要地指出，在广泛的社会动员的基础上，新文化运动在几个重要方面所

取得的巨大进展，来说明它是中国近代民族文化复兴的一大枢纽。

一．文学革命运动造成创造民族新文化的利器。

人们知道，中国的新文化运动首先是从文学革命切入的。而文学革命最重大的成就是白话国语的形成和广泛应用。它极有利于推动新教育的发展；极有利于打破精英文化与大众文化之间的严格界限，有利于各种人群之间，各种文化之间的沟通和互动。这都是文化的创造与发展所需要的条件。所以，白话国语成为一种最方便的创造民族新文化的利器。我们可以认为，　语言文字是一种精神生产的工具。历史上凡是生产工具的革新，都会大大地解放生产力和提高生产力，在物质生产领域是如此，在精神生产领域也是如此。白话国语的盛行，是五四前后一段时期文化繁荣的重要前提条件。

二．新教育的迅速发展。

由于白话国语的推行，由于人们观念的更新，大大促进了新教育的发展。中国从清末开始办新式学堂或称新教育，但事实上，大部分学堂的教育方式与教育内容并未发生根本的变化。因为许多学堂都是由旧的私塾或书院改成的，其教员、教材、教学方法，大多未发生实质性的变化。民国初期，这种情况仍没有太大的改善。但新文化运动使这种情况发生了根本性的变化。五四时期，由于引进了新的教育观念，使教育与社会生活发生较密切的联系，加上有大批受过新教育或留学归来的读书人充当教员，于是，教材、教学方法都有了不同程度的革新，受新观念影响的家长们也比较愿意将自己的子弟送到新的学校里去读书。特别是高等教育，由于作为新文化运动中心阵地的北京大学的示范作用，中国比较合乎近代标准的高等教育从此才有了较为规范，较为迅速的发展。尤其是，1922年中国的新教育家们为中国制定出一个比较合乎近代标准，又比较适合中国国情的新的学制系统，使中国教育事业真正走上比较健全的发展轨道，有力地推动了新教育的发展。据统计，　1914年全国新式学堂学生有407万余人，　在白话国语开始通行的1922年，全国学生总数达到680余万人，学生增加了273万余人，增长了67‰。[5] 从这些新教育出身的学生中产生了大批政治、经济、军事、学术、教育等各领域的新式领袖和骨干人才，成为推进中国近代化事业的主要力量。

三．在中西文化沟通中产生民族文化复兴的自觉意识和必要的精神条件。

原来，自明清之际以来，中国传统文化中已逐渐地，隐隐地发生一些批评性的反省意识，但因为没有适当的比较参照，始终不能突破传统文化的核心——君主专制与儒家一

5) 据《第一次中国教育年鉴》（开明书店1934年出版）之相关数据计算得出。

尊相结合的主体架构。到鸦片战争以后，中国累次的失败与耻辱，一方面有人强烈地排斥西方文化，另一方面，则有人产生深刻的反思，逐渐意识到中国固有文化可能存在某种根本性的问题需要解决。同时，由于中外交往的不断增加，西书的译介，一部分比较开通的人，逐渐认识到西方文化确有值得我们学习、借鉴的东西。于是，由科技工艺到议会制度，由民主共和再到深层的文化精神，都发现有可以向西方学习的地方。尽管这中间每前进一步都常常发生持久的激烈的论争。但中国社会毕竟是逐渐破茧而出，慢慢地走出中世纪，朝向近代的方向发展。这个过程并不像某些人所担心的那样，把中国传统文化都抛弃了，或是破坏无余了。只是有些旧传统因为完全不适应现代生活而被淘汰了，如四世（或五世）同堂的大家庭，家族或宗族内部的严格统治制度，片面地强制女子守贞，和在教育、财产等方面不能与男子平等之类的旧俗，等等，不是被完全消灭，就是大大地被削弱了。另有一些传统，则因受到西方文化的影响以及新的社会生活的磨洗而改变形式，如子女对父母或其他长辈的孝敬，学生对老师，学徒对师傅的尊重，下级对上级的态度等方面，都不同程度地发生了改变。尤其重要的是，中国人对世界的观念发生了根本的变化，一方面，再也没有人把中国看成是世界的中心，自以为是理当接受各国朝贡的天朝上国了。一方面，　也逐渐改变了清末以来形成的过分的民族自卑心理，逐渐比较自然地接受世界各国都只是平等的国际大家庭的一员，应该力求平等和谐地相处。由此造成了开放的，世界化的文化意识，使中国与世界文化相互密接和良性互动的局面之产生成为可能。再一个重要的变化，是个人的独立，个性解放的观念开始被承认。这是中国数千年来未曾有过的。人们逐渐对个人与集体，个人与国家的关系有了全新的理解，从此人的创造精神和创造力得到了解放。这对于中国社会的进步，对于中国民族文化的振兴是极端重要的条件。

四．社会公共文化空间的进一步扩展

我在近著《近代中国文化转型研究导论》中首次提出社会公共文化空间的概念，用以表示社会文化传播、交流、汇聚与创新的公共场域。在旧的传统社会中并非完全没有公共的文化空间，如城市里的茶馆、剧场、市场等，乡间的各种赛会、节庆活动等等，但显然，其空间极为有限，且不具备近代的社会属性。近代社会公共文化空间是由有组织的社会群体造成的，例如新式教育系统，社会团体组织，以及公共传媒系统等等。这种社会公共文化空间，从清末开始逐渐形成起来，到五四时期得到蓬勃发展。

前面我们已经提到新教育的发展，新学堂和在校学生的数量都有极大的增加。学校不但是传播知识的场所，而且是积累知识、汇聚知识，促使知识更新的场所，它不仅直接关系到国

民知识、技能的进步，而且是改变国民精神面貌和整体素质的重要机制。五四时期，青年学生在社会上发挥巨大影响，充分说明新教育系统在社会公共文化空间中的重要地位。

至于社会团体组织，在五四时期则有空前的扩展。遗憾的是至今尚无人对此进行仔细的统计研究，所以不能提出一个比较可靠的统计数字。但我们可以根据现有资料作出某种推论。大家知道，五四时期学生团体极为发达。各城市差不多都有学生联合会的组织，而各学校内部又有自己的学生团体组织。例如，北京大学校内各种学生团体就有30多个。[6] 其他学校自然不能和北京大学相比。但可以肯定，在绝大多数中等以上学校，至少会有一个以上的学生团体。如此说来，单是各地、各学校的各种学生团体组织，就是一个相当庞大的数量。还有一个值得注意的新现象，就是五四运动发生后，各地的工人也纷纷组织团体，这是前所未有的。因此我们有理由推断，五四时期中国社会出现的各种社会团体，较之清末民初，会有成倍地增加。

不仅如此，我们还必须注意到，这时期的社会团体，其团体的精神和奋斗的目标比以前的社会团体有很大的不同。第一，从前，比如清末时期的社会团体，多半是针对特定的事件和特定的斗争目标而成立，如为争回利权，为实行立宪，为推翻帝制，等等。五四时期的社会团体，大多数都提出一个更为远大的目标，如变革人心，改造社会之类。看似笼统，实际上反映出组织者们有了很重要的觉悟。比如以当时一位重要的学生领袖傅斯年为例，他就提出，经过五四运动洗礼的青年们应当认识到，中国所最缺乏的是“社会的结合”，以前的中国只有“群众”，而没有社会。只有社会成为有组织的社会，国家才有进步，民族才有希望。不然，一场轰轰烈烈的运动之后，不及结出成熟的果子，就凋落了。这是一种非常深刻的觉悟。这时期的社会团体的另一个特点是，团体的结合是建立在“个人自觉”的基础上。我们前面指出，新文化运动一个极重要的新观念就是个性解放，要每个人自觉到自己是一个堂堂的人，应有自己的责任，自己的事业，自己的价值。由如此觉醒了的个人结合成团体，其精神面貌，其追求的目标，其所释放的能量，就大不相同了。所以我们说五四时期的社会团体在数量上、性质上，及其所发挥的社会影响上，都比以前大不相同了。它是在更高的水准上，造就出一种新的社会公共文化空间。

最后我们再稍稍谈一下社会传媒系统的发展。

由于新的社会团体大量增加，许多团体为宣传自己的主张，都办有自己的小报或期

6) 据《北京大学史料》第2卷第3册所收资料统计，当时北京大学校内有各种团体43个，其中有少数是教师组织的，有些则是教师学生均有参加，大部分则是学生组织。这一类学生团体至少在30个以上。

刊。当时人统计，新办的各种白话报纸、刊物至少有400种以上。此外，出现了许许多多新的出版机构和发行系统。至于其他公共文化设施，如公共图书馆、阅书报社、剧场戏院等等都比以前有巨大的发展。所有这些，对于新思想、新观念的传播，对于人们之间的思想交流，对于各种思想间的互相辩论和催生新的思想萌芽，起到很大的推动作用。

总结上述，我们可以得出结论，五四运动把新文化运动大大地激扬和扩展开来，它对中国民族文化的振兴，对于推动国民观念和精神的变革，对于推动中国社会的进步，产生了巨大的作用。研究五四运动和新文化运动的中国学者，包括海外的华裔学者，都不同程度地承认两个运动的重要历史作用。

四

最近数十年来，关于五四运动、新文化运动的历史地位，历史作用的问题一直存在着激烈的争论，中国内地绝大多数学者都对五四运动、新文化运动持充分肯定的态度。而在海外，如台湾，香港，以及在欧美国家从教的华裔学者，有相当一部分人，特别是新儒家学者，对五四运动，新文化运动是持否定的态度。其否定的理由不尽相同，但有一点是共同的，即认为五四运动与新文化运动造成了近代中国持续的为祸甚烈的激进主义。它既表现于政治方面，也表现于思想文化方面。我们这里只讨论思想文化方面。

他们否定的最重要的理由，是认为新文化运动全盘反传统，搞所谓“全盘西化”，彻底否定中国固有文化，为极端的激进主义。

我们持肯定态度的人，长期以来着重论述新文化运动的积极作用，甚少论及其某些消极方面的影响。但这不等于我们完全不承认它有某些负面的作用。只是我们不能同意夸大其负面作用，甚至把负面作用看成为主流。

要充分澄清这个问题，需要引证许多材料，作许多分析与评判，这需要专门一篇长文加以论述。这里受篇幅限制，我只能提示几个要点。

一，近代中国的激进主义不始于新文化运动或五四运动，早在清末已经出现。如在维新运动期间便有易鼐、樊锥等辈提倡“一切尽从西法”之说，以及谭嗣同所谓“冲决一切网罗”之说。辛亥革命时期则亦有国粹派所批评的所谓“靡不惟东西之学说是依”，“醉心欧化”，“以不类远西为耻”等思想倾向。

二，造成激进主义最主要的原因是政治形势和政治运动。自从鸦片战争以后，国家时

时面临列强侵凌乃至瓜分之威胁，有志救国和一般忧时之士，多有心急如焚的感觉，所以极易产生激进主义的思想和情绪。以救国为目的的政治运动接续不断，而且有愈来愈激进的趋向。在新文化运动中被认为比较激进的人物，如陈独秀、鲁迅、钱玄同、吴稚晖等，原都与政治运动有密切关系。陈独秀曾组织暗杀团，鲁迅参与留学生的革命刊物，钱玄同是反清革命的章太炎的门生，也一度醉心革命，至于吴稚晖，更是直接参加革命党，而且是个无政府主义者。这更明显地说明，激进主义主要来源于政治运动。

激进主义是长久以来的过分专制主义的直接反动。到清朝末年，君主专制制度已经是积弊太多，积腐太深，积怨满天下，已是人人痛恨之，人人声罪致讨之。在这样的社会氛围中，不发生激进主义反而是怪事。辛亥革命虽然推翻了君主制，但民主制度并没有实现。大大小小的军阀成了大大小小的皇帝，更是把专制主义的毒刺，深深扎入每个社会细胞中。所以政治上激烈的反专制主义持续不断，多少要在文化运动中反映出来。

三， 新文化运动中虽有陈独秀、鲁迅、钱玄同、吴稚晖等不时发出激进主义的言辞，但从总体上说，他们的基本主张，大多还是比较理性的。而作为新文化运动中许多重要观念的提出者和阐释者的胡适，则一直是秉持理性、平和的立场。不能把他们笼统地称之为全盘反传统主义者。这一点， 我早在1989年发表在《中国社会科学》杂志上批评林毓生教授的文章里已经作了颇为详细的论述。

文化先觉者们起而倡导新思想、新观念时，常常遇到巨大的阻力。因此，他们常常只注意反对和防范来自保守主义方面的抵制。故宁“取法乎上， 以求得其中”；却忽略了另一种社会现象，即尽管提倡者出之以理性，但社会受众中却有一部分人，因为他们自身的特殊际遇，往往把他们理性的主张推向极端。这种事例是很多的。新文化运动进入高潮以后，胡适以及蔡元培、蒋梦麟等人已经注意到激进主义的危险性。所以曾发表许多文章和讲演，批评激进主义。

综上所述，第一，我们承认新文化运动中存在某些激进主义倾向，但决不赞成把新文化运动说成是近代激进主义的根源。第二，近代激进主义的主要来源是中国的政治形势和政治运动。所以，只有政治走上和平健全的发展轨道，才能解决思想文化上的激进主义及其他不良倾向的问题。第三，任何大规模的群众运动，都不可避免地发生一些负面的现象，我们不能指望一场伟大的历史运动，只给我们收获好东西，而没有任何坏东西，正如莎士比亚笔下的威尼斯商人， 无法获得一磅 不带一滴血的肉一样。新文化运动和五四运动开辟和奠定了中国现代发展的基本趋向，不能因为曾经伴生某些负面现象而加以否定。我们只可以科学地、理性地总结历史的经验与教训，但不可苛求于前人。

중국근대사에서의 5 · 4운동의 의의

강윈즈 (중국사회과학원)

90년 전 3월 1일, 위대한 한국 인민들이 이 자리에서 독립 건국의 깃발을 높이 들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대규모 항일 가두시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바로 잘 알려진 '3·1운동'이었다. 3·1운동은 중국 인민 특히 중국 청년들을 크게 고무시켰으며, 당시 중국 진보 언론의 열렬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1] 두 달 후 파리 평화 회의 결과 중국 산둥(山東)의 주권이 일본 제국주의의 손에 강탈당하자 중국 인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베이징에서 '5·4 운동'이 일어났다.

이 두 사건은 다음과 같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1918년 1차 대전이 종식되면서 세계적으로 민족 해방 운동이 고조되었다. 이 두 사건은 민족 독립과 건국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둘째, 두 사건은 모두 먼저 각성한 청년 학생들이 선봉에 섰으며, 공교롭게도 침략성이 농후한 일본 제국주의라는 동일한 적에 맞서 싸웠다.

셋째, 두 사건은 모두 민족 문화 부흥의 위대한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내재적인 연관성 때문에 이 두 사건으로 시작된, 제국주의의 침략과 압박에 맞서 민족 독립과 건국을 쟁취하기 위한 양국 인민의 투쟁은 줄곧 서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 후, 한국의 애국지사들은 신한임시정부를 조직하였고, 얼마 후 이 임시정부는 중국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의 위대한 독립 운동의 지도 조직으로서 중국에서 20여 년 간 활약하였다. 그들은 중국의 진보적인 당파와 인민들, 특히 5·4 운동의 세례를 받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를 받았다. 한국 의사(義士)들의 반일 투쟁 역시 일본 침략에 대한 중국 인민의 저항 투쟁을 지원하였다. 특히 1937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항일 전쟁에서 양국 인민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면서 확고한 우호 관계를 맺었다.

---

1) 『申報』, 『公言報』, 『民國日報』 등과 같은 신문과 『每周評論』, 『新潮』, 『建設』, 『國民』, 『太平洋』, 『晨報副刊』 등과 같은 잡지는 일찍이 관련 보도와 논평을 대량으로 발표한 바 있다.

3·1운동과 한중 양국 인민이 민족 해방 투쟁 과정에서 맺은 우호 관계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의 학자들이 이미 폭넓게 연구해왔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중국 근대사에서 5·4 운동이 갖는 위대한 의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Ⅰ

먼저, 5·4 운동은 중국 근현대사에서 민족 각성의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한다.

근대 중국의 민족주의는 청나라 말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수많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압제로 중화 민족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자, 구국을 위한 중국인의 민족의식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한 위협은 고도의 근대 문명을 가진 서구 열강이었으므로, 중국인은 기존의 ‘중화와 오랑캐의 구별’을 핵심으로 하는 진부한 민족관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점진적으로 근대 민족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근대 민족주의로 방향을 바꾸었다. 탁월한 계몽사상가인 량치차오(梁启超)는 “민족주의란 세계에서 가장 공명정대하고 공평한 주의이다. 다른 민족이 자신을 침략하지 못 하도록 하는 자유이며, 스스로 역시 다른 민족을 침략하지 않는 자유다.”[2]라고 하면서, “오늘날 중국을 구하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먼저 민족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3]고 하였다. 이때부터 혁명당과 입헌파, 나아가 주로 국내에서 활약하던 개명한 관료층까지도 모두 기본적으로 근대 민족국가 수립을 위하여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다.

5·4 운동 이전까지 중국인의 민족주의는 수동적인 특징을 뚜렷하게 보였다. 하지만 침략과 압제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민족의식이 비로소 되살아나면서 민족 자위를 위한 행동이 시작되었다. 1917년 중국이 정식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양국에 대한 전쟁에 참가하면서부터 중국인은 능동적으로 국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세계무대에서 민족 자결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당시 참전은 몇 몇 외국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수많은 양식 있는 인사들의 노력한 결과 스스로 내린 결정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2) 『飮冰室合集·文集之六』, 20쪽.
3) 『飮冰室合集·文集之十』, 35쪽.

없다. 이 결정으로 중국은 전후 파리에서 열린 평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중국의 권익에 관련된 의제에 대해 중국인 스스로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열강의 의도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1차 대전 전승국으로서 전전 독일 제국주의가 중국 산둥에서 강탈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돌려받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무지막지함과 교활한 궤변에다가 일본이 사전에 다른 제국주의 국가에 접근하여 교섭한 결과, 과거 독일이 산둥에서 확보한 이권을 일본이 강탈했다. 중국 대표는 중국 민중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평화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고, 향후 독립적인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위해 충분한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하였다. 이는 중국 근대사상 전례 없는 승리였다.

이것이 바로 5·4 운동으로 촉발된 중국인의 민족주의가 갖는 새로운 특징이었다.

둘째, 5·4 운동 속에서 각성한 민족주의는 더 이상 자국의 틀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능동적으로 국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세계 판도와 세계 각국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 중국인들은, 국제적인 반제반식민 민족해방운동의 위대한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서, 세계 모든 피압박 민족에게 공통된 역사적 운명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5·4 운동으로 촉발된 민족주의는 세계주의 또는 국제주의(인터내셔널리즘)와 연결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 인민의 반제 투쟁은 곧 세계 모든 피입박 민족의 저항투쟁과 긴밀한 연관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5·4 운동 이후 조직 개편을 마친 국민당은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는 세계 모든 민족과 연합"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5·4 운동 이후 탄생한 중국 공산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주의를 기본 원칙의 하나로 삼았다.

따라서 5·4 운동은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를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끌어 올렸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양국 인민이 서로 지원하고 원조한 반제 투쟁,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중국 정치가인 쑨원(孫文)은 산둥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인은 목표를 더 멀리 두어야 하며 첫 걸음으로 '한국인의 독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4] 사실상 중국의 많은 진보적인 청년들이 한국 지사(志士)들이 창간한 애국 신문이나 잡지에 참여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기고를 통해, 반일 애국 투쟁을 함께

4) 한국의 志士가 중국에서 출판한 간행물인『震壇』제6기 참조.

하면서 한국의 독립 운동을 지원하였다. 이후 항일 투쟁 전개 과정에서 양국 인민의 공동 투쟁은 당연한 사실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5·4 운동 이후 중국 인민의 반제 투쟁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든든한 지원 역량이었다.

Ⅱ

5·4 운동은 중국 정치 혁명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 의미를 갖는다.

5·4 운동은 본래 그 보다 몇 년 앞서 시작된 신문화 운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훌륭한 서구식 교육을 받은 일군의 젊은 교수들과 신해혁명을 거쳐 실시된 소위 공화제에 당혹과 실망을 느낀 원로 혁명당 인사들이 시작한, 민족 문화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담은 신문화 운동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새로운 사상의 세례를 주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 총명하면서도 용감한 이들은 자신들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새로운 사상을 행동에 옮길 결심을 하게 되었다. 파리 평화 회의에서 전해진 중국의 외교적 실패는 이들의 정신을 자극하였고, 이들은 각성하고 분노하였다. 이에 따라 신문화 운동의 중심지인 베이징 학생들이 앞장서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가두시위를 조직하여 “밖으로 강권에 맞서고 안으로 매국노를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어 전국 각지의 청년 학생들이 속속 항의 대열에 참가하였고, 뒤이어 상공업자, 노동자, 점원, 도제 심지어 일부 농민들까지 대거 애국 운동에 참여하였다. 광범위한 군중들이 참여하면서 문화 운동은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새로운 정치 혁명의 고조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문화 운동의 와중에서 중국에 소개된 새로운 사상은 주로 무정부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주의, 볼셰비즘 및 실험주의, 과학적 방법론 등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사상들이 당시에 모두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으며, 모두 수천수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한 때 무정부주의가 다른 사상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전제주의 전통이 남다르게 뿌리 깊은 나라에서 옛 권위가 무너져 약화되는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무정부주의가 가장 쉽게 퍼지곤 한다. 무정부주의 자체가 구(舊) 전제주의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자 역작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정부주의는 구제도의 해체를 지속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것이 바로 5·4 운동을 전후하여 무정부주의가 가장 성행했던 이유다. 무정부주의는 낡은 제도와 낡은 윤리의

속박을 벗어난 수많은 개인을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 혁명의 고조기에 아무런 구속 없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차 대전이 바야흐로 마감되기 직전,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큰 사건이었다. 볼셰비키의 노농주의는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게다가 5·4 운동 직후 러시아 정부는 제정러시아 시대 중국에 강제한 모든 불평등 조약이 부여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중국을 구하기 위한 길을 찾아 헤매던 중국인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었다. 중국인들은 드디어 믿음직한 스승을, 신뢰할 만한 혁명의 길을 찾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수많은 열혈 청년들은 러시아 볼셰비키를 나침반 삼아 그들이 따르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삼고 중국 공산당을 신속하게 조직하였다. 그들은 십여 명에서 수십 명, 수백 명, 다시 수천수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은 마치 들불처럼 재빠르게 메마른 중국 대지 위에서 번져 나갔다. 중국 공산당의 탄생과 신속한 발전은 5·4 운동 이후 중국 정치 혁명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이었다.

신해혁명으로 이천여 년 동안 이어진 전제 군주 제도가 무너지고, 민중의 원성을 샀던 청나라 왕조 통치는 막을 내렸다. 따라서 신해혁명을 이끈 쑨원은 중국 인민들의 진심어린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의 삼민주의는 비록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일부 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들에게는 받아들일 만한 적어도 용인 가능한 수준이었다. 5·4 운동 이후 쑨원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당 조직 방식과 군중 동원에 관한 방법론과 사상을 일부 흡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소비에트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쑨원이 국민당 조직 개편에 나서자, 국민당은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얻게 되었다. 이때부터 5·4 운동의 세례를 받은 상당수의 청년들이 국민당에 흡수되었다. 조직 개편 후의 국민당은 순조롭게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을 실현하였다.

5·4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호는 "밖으로 강권에 맞서고 안으로 매국노를 몰아내자"였다. 여기서 강권이란 제국주의 열강을 의미했고, 매국노란 중국 국내의 반동적 군벌과 그들에게 장악된 정부 관료였다. 투쟁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 군벌 통치 집단이 인민 해방을 가로 막는 주적(主敌)이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직 개편 후의 중국 국민당 선언에서, 그리고 새로이 탄생한 중국 공산당 강령에서, 모두 제국주의와 국내 군벌 통치 집단

에 대한 반대를 혁명의 주요 목표로 표명하였다. 그 전에는 이토록 명확하게 혁명의 대상과 목표를 중국 인민들이 밝힌 적이 없었다. 청나라 말기부터 중국인들은 항상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낡은 관념에 익숙했다. 늘 일부 강력한 국가와 힘을 합쳐 다른 강력한 국가를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국익 희생을 낳을 뿐 자강의 목표는 요원하기만 했다. 1차 대전 종식 당시 중국은 한 때 미국 윌슨 대통령의 '평화 14개 조항(fourteen points speech, 윌슨 대통령이 1918년 1월 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에서 밝힌 전후 처리 원칙, 패전국 식민지 문제 처리에 민족 자결주의 적용 주장: 역주)'을 맹신했고, 또한 전전 독일 제국주의에 의해 강탈당한 산둥 지역을 중국이 돌려받도록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지지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중국인들은 배신당했다. 파리 평화 회의의 결정은 중국 산둥의 주권을 일본 제국주의의 손에 갖다 바쳤다. 이 결정에 크게 실망한 중국인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국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례로 쑨원은 오랫동안 일부 군벌 세력과 연합하여 다른 군벌 세력들을 타도하여 점진적으로 중국 통일의 목표에 다가가고자 하였다. 파리 평화 회의가 진행되던 당시 중국 국내에서도 상하이에서 남북강화회의(1919년 2월 20일 진행된 쑨원의 남경 국민당 정부와 원세개의 북양군벌 간의 회의: 역주)가 진행되었다. 당시 중국 최고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모여 펴내던 『每周評論』은 「쌍생아와 같은 두 평화 회의[两个和会都一样]」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파리 평화회의가 국제 제국주의 열강의 장물 분배를 위한 것이라면, 상하이의 남북 강화 회의는 국내 군벌의 장물 분배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중국과 중국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똑같았던 것이다. 중국 인민은 기만당했다. 이를 통해 중국 인민은 나라를 구하려면, 인민 해방을 이룩하려면, 밖으로 제국주의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안으로 모든 반동 군벌 세력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혁명의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고 혁명의 적을 똑바로 아는 것은 혁명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 국민당과 공산당이 인식을 같이하게 되면서 국공 합작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1924년 국공합작이 실현되면서 중국 혁명을 고조기로 이끌었고, 북양군벌의 통치는 머지않아 마감되었다.

Ⅲ

5·4 운동은 신문화 운동의 발전을 이끌어, 중국 민족 문화 부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앞에서 우리는 5·4 운동이 그 전에 일어났던 신문화 운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5·4 운동은 신문화 운동이 마련한 환경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정이 가능할 것이다. 신문화 운동이 없었더라도 파리 평화 회의의 외교적인 패배로 크나큰 민족적 치욕에 직면한 중국에서는 인민들의 분노와 항거가 표출되었겠지만, 그토록 큰 규모도 아니었을 것이고 국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없었을 것이며 평화 조약에 서명을 거부하는 단호한 태도는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다. 5·4 운동은 신문화 운동의 세례를 받은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들 학생들은 자신들의 항의를 표출할 최적의 방식을 찾아냈을 뿐 아니라, 공장과 농촌으로 들어가 홍보하면서 수많은 민중들을 조직할 능력까지 갖추었다. 그 결과 중국 근대 사회 최초로 광범위한 사회적 동원이 이루어졌다. 지식 엘리트와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먼저 각성한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면서, 새로운 사상과 인식의 지도 하에 정치 운동과 문화 운동이 진행되었다. 상상해 보라. 만약 새로운 사상과 인식을 갖춘 신청년들이 없었더라면, 신문화 운동 속에서 백화문(白話文, 신문화 운동을 통해 확립된, 난해한 문어를 대체한 중국 민중의 구어: 역자주)을 익힌 신청년들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것이 어찌 가능했겠는가?

이어 광범위한 민중 동원을 기반으로 신문화 운동이 획득한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간략하게 짚어 보면서, 중국 근대 민족 문화 부흥에 신문화 운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1. 문학 혁명 운동을 통한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의 신문화 운동은 문학 혁명에서 시작되었으며, 문학 혁명의 핵심은 곧 백화(白話) 국어의 형성과 광범위한 활용이다. 백화 국어는 새로운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고, 엘리트 문화와 대중 문화 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그룹과 문화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모두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환경이다. 따라서 백화 국어는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의 핵심적인 도구가 되었다. 언어와 문자는 일종의 정신적 생산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생산 도구의 혁신은 생산력을 해방시켜 생산력을 제고시킨다. 물질 생산 영역에서 그러하듯이, 정신 생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백화 국어의 보급은 5·4 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문화 번영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2. 새로운 교육의 빠른 발전

백화 국어의 보급과 인식의 혁신으로 새로운 교육이 대대적으로 발전하였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부터 신식 학당을 열고 신교육을 시작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신식 학당의 교육 방식과 교육 내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대부분의 학당이 옛 사숙(私塾)이나 서원(書院)을 개편했을 뿐, 그 교원, 교재, 교수법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화민국 초기에도 이러한 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문화 운동은 이러한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5·4 운동 당시 새로운 교육관을 도입하면서 교육이 사회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되었으며, 게다가 신식 교육을 받거나 유학하고 귀국한 이들이 교원이 되면서 교재나 교수법이 혁신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상의 영향을 받은 부모들도 자녀가 신식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고등 교육의 경우 신문화 운동의 중심지였던 베이징 대학이 역할 모범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근대적 기준에 근접한 고등 교육의 기준이 형성되면서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1922년 중국의 신교육가들이 중국 실정에 맞는 근대적 교육 기준과 학제 시스템을 제정하면서 발전 궤도에 오른 중국의 교육 사업은 신교육의 발전을 한층 힘있게 추진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14년 407만여 명이던 전국 신식학당 학생수는 백화 국어가 보급되기 시작한 1922년 680만여 명으로 늘어나, 모두 273만여 명, 67%가 증가하였다.[5] 이러한 신식 교육을 통해 배출된 학생들이 정치, 경제, 군사, 학술, 교육 등 분야의 새로운 지도자와 인재군을 형성하면서, 중국 근대화 사업의 주력군이 되었다.

---

5) 『第一次中國教育年鑒』(開明書店, 1934.)의 관련 數字를 계산한 것이다.

3. 동서양 문화 교류에 따른 민족 문화 부흥의 필요성 자각

본래 명청(明清) 이후 중국의 전통 문화 내부에서 이미 비판적 성찰의 기운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지만, 참고할 만한 비교 대상이 결여로 인해 전제 군주 제도와 유교가 결합된 전통 문화의 핵심 구조를 깨뜨리지는 못 하였다. 하지만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계속된 실패와 치욕은 일각에서는 서구 문화에 대한 강력한 배척을 가져오는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깊이 있는 성찰을 수반했다. 이들은 중국 고유문화에 내재된 모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서서히 의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과 서양의 교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서양 서적이 번역되어 소개되면서, 일부 개방적인 인물들은 서구 문화에 배울 만한 부분이 있음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에서 의회 제도까지, 민주 공화제에서 심층적 정신문화까지, 이들은 서양으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을 발견하였다. 이 과정은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지루한 논쟁의 되풀이 되었지만, 중국 사회는 결국 서서히 중세의 껍질을 탈피하여 근대를 향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일각의 우려처럼 중국 전통 문화를 모두 폐기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과거의 전통 가운데 일부가 현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었을 뿐으로, 네 세대(또는 다섯 세대)가 한 집에 사는 대가족 질서, 가족이나 국가 내부의 엄격한 통치 제도, 여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정절, 교육이나 재산 측면에서 남성과의 차별 등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적어도 크게 약화되었다. 하지만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사회생활 방식에 적응하면서 형식만을 바꾼 다른 전통들도 있다. 부모나 어른에 대한 자녀의 효도와 공경, 스승이나 사부에 대한 학생과 도제의 존경심, 상사에 대한 존중 등에는 어느 정도 형식적인 변화가 있었다. 보다 핵심적인 내용은 세계에 대한 중국인의 관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중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지 않게 되었고, 각국이 조공을 바치러 오는 상국(上國)으로 자처하지 않게 되었다. 동시에 청나라 말기부터 형성된 과도한 민족 자괴감에도 점차 변화가 생기면서, 세계 각국이 모두 평등한 세계의 일원이며 평등하게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개방적이고 세계화된 문화 의식을 형성하면서, 중국과 세계 문화가 상호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선순환하는 구조의 형성이 가능해졌다. 또 하나 핵심적인 내용은 인격적 독립으로, 개성 해방이 이루어졌다. 이는 수천 년 동

안 중국에는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점차 개인과 집단,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창조적 정신과 창조력이 속박을 벗어났다. 이는 중국 사회의 진보와 중국 민족 문화의 진흥에 중요한 여건을 마련했다.

4. 사회 공공 문화 공간의 확장

근래 저술한 『近代中國文化轉型研究導論』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회문화의 전파, 교류, 결집과 혁신의 공공 영역을 의미하는 사회 공공 문화 공간 개념을 제기한 바 있다. 과거의 전통 사회에 공공의 문화 공간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도시의 찻집, 극장, 시장이나 농촌의 다양한 겨루기와 명절 행사 등이 그 예이지만 그 공간은 협소하였으며 근대적 사회 속성은 갖추지 못 하였다. 근대 사회의 공공 문화 공간은 조직적인 사회 집단이 형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신식 교육시스템, 사회단체 조직 및 공공미디어 시스템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 공공 문화 공간은 청나라 말기부터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여, 5·4 운동 당시 활발하게 발전하였다.

앞에서 우리는 이미 신교육의 발전에 따른 신식학당과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를 언급한 바 있다. 학교는 지식 전파의 공간일 뿐 아니라, 지식이 축적되고 모이면서 지적 혁신을 촉진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는 국민 지식과 기술의 진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정신 면모와 전반적인 소양을 혁신하는 주요 메커니즘이다. 5·4 운동 당시 청년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은 신교육 시스템이 사회 공공 문화 공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단체 조직 역시 5·4 운동 당시 이례적으로 확대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분야에 대해 아직까지 상세한 통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5·4 운동 당시 학생 단체가 크게 발전하였다. 거의 도시마다 학생 연합회가 조직되고, 각 학교마다 자체 학생 단체가 조직되었다. 일례로 베이징대학의 경우 교내 학생 단체가 30개가 넘었다.[6] 물론 다른 학교들은 베이징대학에 훨씬

6) 『北京大學史料』 第2卷 第3冊에 수록된 자료 통계에 의거하였다. 당시 北京大學에는 43개의 각종 단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소수는 교수들이 조직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교수와 학생이 모두 참가하였으며, 대부분은 학생이 조직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학생단체들은 적어도 30개 이상이었다.

못 미쳤겠지만, 대다수 중등 이상 학교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학생 단체가 조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과 학교의 학생 단체 조직만 보더라도 상당한 숫자였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현상은 5·4 운동 이후 각 지역의 노동자 역시 앞다투어 단체를 조직했다는 점으로, 이 역시 놀라운 일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5·4 운동 당시 중국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단체가 청나라 말기와 중화민국 초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시 사회단체의 투쟁 정신과 목표가 과거의 사회단체와는 차별성을 보였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첫째, 과거에는 예를 들어 청나라 말기의 경우 사회단체는 대부분 이권 회수, 입헌제 실시, 전제 정치 타도와 같이 특정 사건이나 투쟁 목표를 위해 조직되었다. 반면 5·4 운동 당시의 사회단체는 대부분 민심 개혁, 사회 개조와 같이 보다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일견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목표는 사실상 조직자들에게 매우 중대한 각오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주요 학생 지도자였던 푸쓰녠(傅斯年)을 예로 들면, 그는 5·4 운동의 세례를 받은 청년들은 중국에 결여된 것이 '사회적 결합'으로 과거 중국에는 '군중'만 있을 뿐 사회는 없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가 조직을 갖춘 사회가 될 때 국가의 진보가 가능하고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동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잘 익은 열매를 거두기는커녕 뿔뿔이 흩어져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깊이 있는 각성이었다. 당시 사회단체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단체의 결합이 '개인의 자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문화 운동을 통해 형성된 중요한 개념의 하나는 바로 개성 해방으로, 모든 사람이 스스로가 독립된 인간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로 자신의 일과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각성한 개인이 결집해 만든 단체의 정신 면모나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이로부터 분출된 에너지는 완전히 새로웠다. 따라서 우리는 5·4 운동 당시의 사회단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나아가 발휘하는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사회 공공 문화 공간을 형성했다.

마지막으로 사회 미디어 시스템의 발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새로운 사회단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스스로 신문이나 잡지를 창간하였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새로 창간된 다양한 백

화 신문과 잡지가 적어도 400종이 넘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출판사와 발행 시스템이 나타났으며, 공공 도서관, 독서 클럽, 극장 등의 기타 공공 문화 시설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새로운 사상과 철학의 전파와 교류 및 다양한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새로운 사상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5·4 운동은 신문화 운동의 열기와 공간을 크게 확대하여, 중국 민족 문화의 진흥, 국민의 관념과 정신의 혁신, 중국 사회의 진보 등에 큰 역할을 하였다. 5·4 운동과 신문화 운동을 연구하는 해외 중국계 학자를 포함한 중국학자들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 없이 이 두 사건이 갖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Ⅳ

최근 수십 년 동안, 5·4 운동과 신문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이라는 화제를 둘러싸고 줄곧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중국의 대다수 학자들은 5·4 운동과 신문화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타이완, 홍콩 및 구미의 강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국계 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특히 신유교 학자들이 5·4 운동과 신문화 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즉 5·4 운동과 신문화 운동이 근대 중국에서 지속적인 재앙의 근원인 급진주의를 형성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급진주의는 정치 분야뿐 아니라 사상 문화 분야에서도 나타났다고 인식한다. 여기서는 사상 문화 분야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신문화 운동이 모든 의미에서 전통을 반대하고 소위 ‘서구화’를 외치면서, 중국의 고유문화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극단적인 급진주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그 동안 신문화 운동의 긍정적인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일부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외면해 왔다. 하지만 이것이 곧 우리가 그 부정적인 역할의 존재를 모조리 부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그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부작용만을 인정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려면 많은 자료를 인용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논문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여기서는 몇 가지 요점만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1. 근대 중국의 급진주의는 일찍이 청나라 말기에 이미 나타났으며, 신문화 운동 또는 5·4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일례로 유신 운동 당시 이나이(易鼐), 판주이(樊錐) 등이 "모든 것을 서양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탄쓰퉁(譚嗣同)은 "모든 질서의 타파"를 외치기도 하였다. 국수파(国粹派)가 비판한 바처럼, 신해혁명 당시에도 "오로지 일본과 구미의 학설이 아니면 따를 것이 없다[靡不惟東西之学说是依]"든가, "심장까지 철저한 유럽화[醉心欧化]"든가, "서구 문화가 아니어서 부끄럽다[以不类远西为耻]"는 사상적 경향이 나타났다.

2. 급진주의가 나타난 주된 요인은 정치 상황과 정치 운동이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시시각각 열강의 침략 나아가 분할 점령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구국에 뜻을 두고 시국을 걱정하던 이들은 다급한 마음에 급진주의적 사상과 정서에 물들기 쉬웠다. 구국을 위한 정치 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점차 급진적인 경향으로 기울었다. 신문화 운동 가운데 비교적 급진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천두슈(陳獨秀), 루쉰(魯迅), 첸쉬안퉁(錢玄同), 우즈후이(吳稚暉) 등은 본래 정치 운동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천두슈는 암살단을 조직한 경험이 있고, 루쉰은 유학생 혁명 잡지에 참여했으며, 첸쉬안퉁은 반청 혁명을 주도한 장타이옌(章太炎)의 문하로 역시 혁명에 심취하였다. 우즈후이의 경우 직접 혁명당에 참여했으며 무정부주의자였다. 이는 급진주의가 대체로 정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급진주의는 장기간 지속된 과도한 전제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반작용이다. 청나라 말기에 이르러 전제 군주제는 이미 병폐가 깊어져 그 원성이 천하에 자자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청나라 타도를 외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급진주의가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신해혁명은 비록 군주제를 무너뜨렸지만 민주제 역시 실현되지 못 하였다. 크고 작은 군벌들이 크고 작은 황제가 되었고, 오히려 전제주의의 독소는 더 깊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격렬한 전제주의 타도 활동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문화 운동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표출되었다.

3. 신문화 운동 와중에서 천두슈, 루쉰, 첸쉬안퉁, 우즈후이 등은 때때로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대체로 이

성적인 편이었다. 신문화 운동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낸 권위자인 후스(胡适)의 경우는 줄곧 이성과 평화를 견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그들을 싸잡아서 모두 반전통주의자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나는 일찍이 1989년 『中國社會科學』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린위성(林毓生) 교수의 관점에 반박하면서, 이 점을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

문화 선각자들이 주장한 새로운 사상과 관념은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보수주의 세력의 반격에 맞서 싸우는 데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그들은 “자신의 실제 주장보다 더 강경한 요구[取法乎上, 以求得其中]”를 하면서, 또 다른 사회 현상 즉 제창자는 이성에서 출발하였더라도 받아들이는 민중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특수한 처지 때문에 그들의 이성적 주장을 종종 극단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는 사실은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신문화 운동이 고조기에 접어든 이후 후스, 차이위안페이(蔡元培), 장멍린(蒋梦麟) 등은 급진주의의 위험성에 이미 주목하고 있었으며, 강연과 글을 통해 여러 차례 급진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의 종합해 보면, 첫째, 우리는 신문화 운동 가운데 일부 급진주의적 경향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신문화 운동을 근대 급진주의의 근원으로 보는 시각에는 찬성할 수 없다. 둘째, 근대 급진주의의 근원은 주로 중국의 정치 상황과 정치 운동이다. 따라서 정치가 평화적으로 건전한 발전 궤도로 접어들 때 사상과 문화 측면의 급진주의 및 기타 불온한 경향이 해결 가능하다. 셋째, 모든 대규모 군중 운동에는 일부 부정적인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셰익스피어가 그린 베니스의 상인이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한 파운드의 고기를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위대한 역사적 운동이 우리에게 나쁜 것은 하나도 없이 좋은 것만을 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신문화 운동과 5·4 운동은 중국에서 현대적 발전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초를 다졌다. 따라서 이에 일부 부정적인 현상이 수반되었다고 해서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단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로 역사의 경험을 종합하고 교훈을 얻을 뿐,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될 것이다.

Significance of the May 4th Movements in Modern Chinese History

Geng Yunzhi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Ninety years ago, on March 1, the great people of Korea signaled a large-scale anti-Japanese street demonstration by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ce nation and announcing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at was the well-known March First Movement. The March First Movement highly encouraged the people of Chins, the Chinese youth in particular, and created an enthusiastic response among the progressive press in China at that time.[1] Two months later, when the sovereignty of Shandong was forcibly taken by Imperial Japan as a result of the Paris Peace Conference, the Chinese people were enraged by the outcome, and the May Fourth Movement took place in Beijing.

These two events are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as follows:

Firstly, the two events have the same periodical background. As the First World War came to an end in 1918,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were encouraged all over the world.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two events began in an attempt to achieve the great goals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founding of a country.

Secondly, the enlightened young students played a leading role in both of the events, and unexpectedly, they fought against the common enemy of extremely aggressive Imperial Japan.

Thirdly, both of the events became the splendid starting point for the revival of national culture.

Due to such an inherent connection, the struggles of people in both nations, sparked by the two events, to achieve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foundation against the imperialist aggression and oppression were constantly supported by each other. After a month from the occurrence of the March First Movement, Korean patriots established the Sinhan

1) For instance, the newspapers such as Shenbao(申報), Gongyanbao(公言報), and Minguoribao(民國日報) along with the magazines including Meizhoupinglun(每周評論, Weekly Review), Xinchao(新潮), Jianshe(建設), Guomin(國民), Taipingyang(太平洋), and Chenbaofukan(晨報副刊) gave a lot of space to the related reports and commentaries.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moved into China later, and as a leading organization, it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arrying out independence movements for Korea for about twenty years. The Korean patriots were actively supported and backed up by the progressive parties and people of China, and by the youth in particular reborn by the May Fourth Movement. Likewise, Korean martyrs' anti-Japanese fight supported the resistance of Chinese people against the Japanese aggression. Especially, during the anti-Japanese war from 1937 to 1945, the people of both nations established a firm and friendly relationship in their struggles against Imperial Japan.

As scholars of both nations have already made an extensive study of the amicable relations between the Korean and the Chinese people established in the course of their struggle for national liberation, today, I will focus on the great meaning of the May Fourth Movement in the modern history of China.

I

Firstly, the May Fourth Movement represents a new starting point of national awakening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China.

The nationalism of the modern China started building up from the end of the Qing Dynasty. At that time, the survival of Chinese people was severely endangered by the invasion and oppression of numerous imperialist foreign powers, and as a result, the national consciousness of Chinese people began to revive. However, as they were faced with the western powers having modern civilization, the Chinese people had no choice but to discard the existing outdated view of nation based on "the Sinocentrism distinguishing the Chinese from other barbarians," and gradually changed their direction toward the modern nationalism aiming at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nation-state. A prominent enlightenment thinker, Liang Qichao(梁启超) said, " Nationalism is the most impartial and fairest principle in the world. It refers to the freedom which prevents other nations from invading us and keeps ourselves from invading other nations in the same manner."[2)]

2) Refer to *Yinbingshiheji·wenji Vol. 6* (『飮冰室合集·文集之六』), p. 20.

He also argued, "Today, there is no other way to save China than establishing a nationalist state first."[3] Since then, enlightened bureaucrats as well as members of the Revolutionary Party and constitutionalists fought against the imperialism under the basic goal of founding a modern nation-state.

Before the May Fourth Movement, it was clearly shown that the Chinese nationalism had a passive feature. However, when the aggression and oppression arrived at an unbearable state, finally the national awakening of the Chinese people revived and the Chinese people started to take measures to defend their nation. By entering officially the war against Germany and Austria, China actively started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its struggle to gai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egan on the international stage. Despite the fact that China's participation in the war was encouraged by several foreign governments to some degree, there is no room for doubt that its entry into the war was decided voluntarily as the result of efforts made by the people of sound judgment within the country. Due to the decision, China was able to participate in the Peace Conference held in Paris after the war, and gained an opportunity to express its opinion of the matters relating to its national interests.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unlike past years, China did not follow unconditionally the ideas presented by imperialist foreign powers. As a victorious country in World War Ⅰ, it was natural for China to get back its deprived rights in Shandong unconditionally. However, due to the stratagem and sophistry of Imperial Japan, coupled with its prior activities to secure support from other imperialist nations, Japan seized forcibly the concessions in Shandong granted to Germany in the past. Following the strong public demand, the Chinese representatives in Paris refused to sign on the peace treaty encroaching on the sovereignty of China, and secured legitimate space to fight for the protection of its sovereignty and territory in the future. This was an unprecedented victory in the modern history of China.

That was the new feature of Chinese nationalism stirred by the May Fourth Movement.

Secondly, the Chinese nationalism sparked during the May Fourth Movement was not limited to the domestic matters any longer. The Chinese people, who had extended their

3) Refer to *Yinbingshiheji·wenji Vol. 6* (『飮冰室合集·文集之六』), p. 35.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situation and various nations, came to recognize the same historical fate of oppressed nations around the world, as they came to grasp the great international trend of anti-imperialist and anti-colonial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Accordingly, the nationalism provoked by the May Fourth Movement became connected with the cosmopolitanism or internationalism. The May Fourth Movement served as a turning point for the anti-imperialist fight of Chinese people, and since then, the fight came to secure a close connection with the resistance movement of all oppressed people in the world. The Nationalist Party which reshuffled its organization after the May Fourth Movement declared, "We should join hands with all the nations in the world which treat us equally." Moreov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hich was established after the movement, regarded internationalism as one of its basic principles.

Therefore, it is safe to say that the May Fourth Movement has led the Chinese nationalism into a new historic level. The anti-imperialist struggles, the fight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m in particular, which the people of Korea and China supported and backed up with each other, came to have a close connection under the circumstances. Raising the problem of Shandong, Sun Wen(孫文), the most important politicians at that time, emphasized that the Chinese people should set their goal at a higher level, and "support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s" as the first step toward the goal.[4] In fact, many progressive young people of China supported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by participating in the newspapers and magazines published by Korean patriots or contributing articles to those publications. In a while, it became natural that people of the two nations took joint steps in their patriotic movements against Imperial Japan. It was true that the anti-imperialist struggle of Chinese people was a strong support to the people around the world in their fight for national liberation.

Ⅱ

The May Fourth Move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opens up a new stage of the political

4) As for the newspapers and magazines published by Korean patriots, refer to *Zhentan* (『震壇』) *Vol. 6.*

revolution in China.

In fact, the May Fourth Movement is directly related to the New Culture Movement which began several years ago. The New Culture Movement was started by a series of young professors receiving a fine western education and senior members of the Revolutionary Party confused by and disappointed at the so-called republic system established through the Xinhai(辛亥) Revolution. The movement including the criticism and reflection on national culture provided various new ideas for young people. Some intellectual and brave people among the youth decided to carry out what they had learned from their teachers. The diplomatic failure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 Paris Peace Conference encouraged their spirit, and they were awakened and enraged. Consequently, the students in Beijing, the center of the New Culture Movement, took the lead in announcing a declaration and organizing street protests, and started to shout such slogan as "Struggle against the powers externally, clean out national traitors internally." Over the following weeks, many student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participated in protest demonstrations one after another, and merchants, laborers, clerks, apprentices, and even some farmers took part in the patriotic movement all together on a large scale. With the extensive public participation, the cultural movement developed into a political one, and came to face the high tide of new political revolution.

The new ideas introduced into China in the course of the New Culture Movement included anarchism, liberalism, democracy, Bolshevism, experimentalism and scientific methodology. Each of these various ideologies had its own effect on the youth and captured the hearts of tens of thousands young people. However, compared to other ideas, anarchism gained in strength in the field of politics at one time. Generally, anarchism tends to spread most easily in a nation where the tradition of despotism is deeply rooted and at a time when the existing authority falls down and becomes weakened. The reason is that anarchism itself reflects a kind of punishment and adverse effect on the outdated despotism. Besides, anarchism takes the role in encouraging the dissolution of old system. Because of the reason, anarchism was rampant before and after the May Fourth Movement. The idea produced many individuals freeing themselves from the restraint of the old system and ethics, and enabled them to choose their own path without any

restriction during the period when political revolution was accelerated into a new stage.

Bolshevik Revolution which occurred in Russia just before the end of World War Ⅰ was a major event shocking the whole world. In particular, the Bolshevik principle of collaboration of peasants and laborers left a deep impression. In addition, right after the May Fourth Movement, the Russian government declared that it would give up all the concessions granted by unequal treaties which Czarist Russia had compelled China to sign on. That was dramatic news for those Chinese who had tried to find a way to save their country for decades. The Chinese people considered that at last they found a dependable mentor and trustworthy way to the revolution. Therefore, numerous fervent young people promptly organize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hile making the Russian Bolshevik of their barometer and regarding the Marxism-Leninism followed by the Bolshevik as their guiding doctrine. The number of those people increased from a dozen to scores, to hundreds, to thousands, and finally to tens of thousands. They spread out all over the China like wildfire. The birth and fast development of Chinese Communist Party was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 for the Chinese political revolution to head toward a new stage.

With the Xinhai Revolution, the despotic monarchy which maintained for two thousand years collapsed and the Qing Dynasty condemned by the public was overthrown. Accordingly, the leader of the revolution Sun Wen was highly respected by the Chinese people. Although they include some vague parts, the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presented by him could be acceptable or at least tolerable idea to some liberalist and democrats. After the May Fourth Movement, Sun Wen took lessons from Soviet Russia on the methods of organizing political party and mobilizing the public and absorbed some of its ideas. On the basis of them, owing to the active efforts made by Soviet Russia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Kuomintang gained new freshness and energy as Sun Wen started reforming the party. Since then, quite a number of young people inspired by the May Fourth Movement participated in the Kuomintang. After the party reshuffle, the Kuomintang carried out smoothly the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key slogan of the May Fourth Movement was "Struggle against the powers externally, clean out national traitors internally." The powers represented imperialist World Powers, and the traitors were reactionary warlords and government officials

controlled by the warlords at home. As the struggle developed more and more, people came to understand clearly that the main enemy of the national liberation was the imperialism and the rule of reactionary warlords at home. Therefore, in the declaration of the Kuomintang after the reorganization, and in the new progra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t was clearly expressed that the main purpose of the revolution was objection to the all imperialists and the groups of ruling warlords at home. Until then, the objects and goal of revolution had never been defined as clear as this. Since the end of Qing Dynasty, the Chinese people got used to the idea of "using the force of neighboring barbarians to deter an invasion of another barbarian(以夷制夷)." They tried to deal with a strong country by joining hands with another nation all the time. However, to their disappointment, the outcome always led to the loss of national interests and the goal of self-strengthening seemed hard to be achieved. When the First World War ended, China once blindly believed the Fourteen Points (They were listed in a speech delivered by U.S. President Woodrow Wilson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January 8, 1918, and later they were used as the basis for the terms of peace negotiations after the German surrender. Wilson proposed the promise of "self-determination" for those oppressed colonies of defeated nations :Translator's Notes) presented by U.S. President Wilson, and expected that nations such as England and France would support its demand of returning Shandong where the imperialist Germany forcibly took away from China before the war. However, eventually, the Chinese people were betrayed. The decision of the Paris Peace Conference was to transfer the concession in Shandong Province to Imperial Japan. The Chinese people who extremely disappointed with the decision realized the nature of imperialist powers once again. The same went to the domestic issues. For instance, for a long time Sun Wen tried to achieve the goal of national unification by gradually overthrowing the power of some warlords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another group of warlords. At a time when the Paris Peace Conference was in session, North and South Peace Conference (It was held on February 20, 1919 between Sun Wen's KMT government and Yuan Shikai's Beiyang government: Translator's Notes) was also held in Shanghai. Under the headlines "Two Peace Conferences Like Twins (两个和会都一样)", *Meizhoupinglun* (『每周評論』= Weekly Review) published by the most intellectual elites in China of the time maintained

that just as the Paris Peace Conference was held for the imperialist powers to distribute their stolen property, North and South Peace Conference was held for the warlords at home to distribute stolen their property. They were the same in that both conferences neglected the basic interests of China and Chinese People. The people of China were deceived. Through these experiences, the Chinese people came to realize that for the liberation of people, they should firmly object to imperialism externally and reactionary warlords internally.

In a revolution,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clarify the purpose of the revolution and grasp the enemy of the revolution definitely. As both Kuomintang and Communist Party came to share their views in these matters, the foundation for the alliance between the Kuomintang and the Communist Party was established.

The realization of the Kuomintang-Communist cooperation accelerated the Chinese revolution, and before long the rule of Beiyang warlords came to an end.

Ⅲ

The May Fourth Movement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New Culture Movement,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revival of Chinese national culture.

In the previous pages, we have already pointed that the May Fourth Movement is directly related to the New Culture Movement which began several years ago. In other words, the May Fourth Movement occurred under the circumstances created by the New Culture Movement. Therefore, it might be possible to assume as follows: Without the New Culture Movement, the public resistance might not have been so strong, even though the public rage and resistance had been expressed to some degree in China facing an enormous national disgrace as a result of the diplomatic defeat in the Paris Peace Conference. Likewise, the Chinese people could not have had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matters, and furthermore, they could not have taken a strong attitude of refusing to sign on the peace treaty. The May Fourth Movement occurred thanks to the many students affected by the New Culture Movement. These students not only found the best way to express their protest but also had the ability to mobilize the people while

promoting their ideas in factories and farm villages. As a result, for the first time in the modern history of China, an extensive social mobilization was accomplished. Intellectual elites and young students took the lead, and enlightened figures from all different sectors of societ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In this way, under the guidance of new thought and understanding, the political movement and the cultural movement were carried out together. Imagine this. If there had not been the "New Youth" having new thought and understanding, if there had not been the "New Youth" who learned the Baihua letters (白話文, Written colloquial Chinese language, established through the New Culture Movement, replacing the difficult literary language: Translator's Notes) in the course of the New Culture Movement, how could all the things have been possible?

From now on, by considering briefly some important results of the New Culture Movement having its roots in extensive public mobilization, we will examine what influence the New Culture Movement has upon the revival of the Chinese national culture.

1. Creation of new national culture through the literary revolution

As it is known, the New Culture Movement of China started with the literary revolution whose main point is the formation and extensive use of Baihua letters. The Baihua language became a great help to the development of new education, removed the strict boundary between the elite and popular culture, and enabled the communication among the various groups and cultures. Such conditions are all essential for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Accordingly, the Baihua language became the pivotal means for the creation of new national culture. Language and letters can be described as mental production tools. History shows that the innovation of production tools enhances the productivity by freeing it. Just like the field of material production, the same goes for the field of mental production as well. I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May Fourth Movement, the distribution of Baihua language was an important precondition.

2. Rapid development of new education

With the distribution of Baihua language and the innovation of thinking, new education expanded extensively. By opening new-style schools, China started new education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but in reality, there was no fundamental change in the educational methods and contents in most of the new-style schools at that tim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se schools reformed their school buildings or lecture halls, there was no substantial change in teachers,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 of teaching. At the early stage of the Republic of China, the conditions were not improved particularly. However, the New Culture Movement brought about a fundamental change to the conditions. In the course of the May Fourth Movement, a new educational view was accepted, and the education became closely related to society. In addition, with the people who received modern education or who had studied abroad, returned and became teachers, the teaching materials or teaching method was greatly improved. As a result, the parents affected by new thought wanted to educate their children in new-style schools. In the case of higher education, the Peking University, the center of the New Culture Movement, gave a good example. Accordingly, the standard of higher education close to the modern standard came to establish in China, and new education developed quickly. In particular, as the new educators of China established the modern educational standard and school system suitable for the actual condition of China in 1922, the educational work in China advanced smoothl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new education more powerfully. According to the statistics, the number of students in new-style schools reaching about 4,070,000 in 1914 grew to 6,800,000 in 1922 when the Baihua language began to distribute. The number of students was increased by 67% or to 2,730,000 persons.[5] The students educated in new-style schools formed new leaders and elites in various field such as politics, economy, military, academy, and education, and became the main force in the modernization project of China.

3. Realizing the necessity of the national culture revival following the

5) Estimate based on the related data in *DiyiciZhongguojiaoyunian*jian(『第一次中國教育年鑑』), *Kaimingshudian* (開明書店), 1934.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Actually, after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lready there had been some voices demanding critical reflection on the Chinese national culture,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objects to be compared with,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traditional culture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despotic monarchy and Confucianism was maintained. However, as China had suffered a constant failure and disgrace since the Opium War, some people strongly rejected the western culture, while other people started serious reflection on the Chinese national culture. Those people gradually realized the necessity of resolving some fundamental problems inherent in the traditional Chinese culture. In addition, with the increase in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West and the East and the introduction of translated western publications into China, some open and liberal people gradually recognized that some parts of the western culture deserved to be learned. Accordingly, they found various parts worthy of learning in the western culture, from scientific technology to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from the democratic republic to in-depth mental culture. Although some tedious controversies repeated over the necessity of receiving the western culture, Chinese society eventually accepted the modern features, breaking away from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 Ages. However, the entire traditional culture was neither abolished or nor destroyed in this process. Only some part of the tradition inappropriate to the modern life was removed. For instance, the large family system which four(or five) generations live together, a strict ruling system within the family or nation, the idea of chastity unilaterally forced only to women, and sexual discrimination in education and property were entirely dismissed or at least extensively reduced. However, as the Chinese people adapted to the new life style under the influence of western culture, some part of the tradition was merely transformed and still remained. There had been some changes in the form of the filial piety and respect of children toward their parents and elderly, in the respect of students and apprentices toward their teachers and master, and in the respect for superiors. More importantly, the people's view of the world was changed fundamentally. The Chinese people did not regard their nation as the center of the world any longer and as a superior nation which various countries pay tribute

to. At the same time, with the gradual change in the excessive national feeling of shame starting to form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the Chinese people naturally accepted the fact that each nation is an equa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ll nations should have equal and harmonious relations with one another. Taking this opportunity, they formed an open and global sense of culture, and enabled to create a good-circulation structure of clos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Chinese culture and the world one. Another important fact is that liberation of individuality was accomplished through the independence of personality. It was the first in thousands years of Chinese history. As the people got to have new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and individual and nation, the creative mind and creativity came to escape from restraint. This laid an important foundation for the progress of Chinese society and the advancement of Chinese national culture.

4. Expansion of the social public cultural space

In my recent book *Jin dai Zhongguo wen hua zhuan xing yan jiu dao lun* (『近代中國文化轉型研究導論』), I presented the concept of social public cultural space for the first time which means the public space where the social culture spreads, exchanges, concentrates and innovates. Even in the traditional society of the past, public cultural space was also in existence. The tea shops and theaters in cities, various kinds of competitions in the market or farm villages, and events on traditional holidays could be included as the examples, but the space for public culture was so small and the feature of modern society was not established. The public cultural space in modern society is created by organized social groups, and it includes new educational system, social organization structure, and public media system. Such social public cultural space started to create gradually from the end of the Qing Dynasty, and developed quickly during the May Fourth Movement.

In the previous pages, I mentioned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new-style schools and students in those schools due to the development of new education. The school is space where intellectual innovation is accelerated with the spread, accumulation, and collection of the knowledge. Therefore, the school is not only related directly with the

progress of national knowledge and technology, but also becomes an important mechanism to innovate the national spirit and culture. The fact that young students had a great impact on the society during the May Fourth Movement shows that the new education system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social public cultural space.

During the May Fourth Movement, the organization of social group was also exceptionally expanded. Unfortunately, as detailed statistical research has not been made on this field, I cannot provide reliable data. However, with the existing data, an inference can be made to some degree. As it is known, student organizations advanced greatly during the May Fourth Movement. Almost in every city, student unions were organized and student groups were organized in every school. For instance, more than thirty student groups existed in Peking University.[6] Naturally, the number of student group in other universities was less than that of Peking University. However, at least more than one student group were maintained in most of the secondary and higher schools. It became a quite large number only with the number of student groups in each region and school. Another thing to be notable was that local workers also organized their group aggressively since the May Fourth Movement. That was also quite a surprising phenomenon. Therefore, we can suppose that compared to the period from the late Qing Dynasty to the early Republic of China, the number of social groups in various fields increased geometrically during the May Fourth Movement.

In addition, we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spirit and purpose of social organizations at that time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social organizations in the past. Firstly, in the past, for instance,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social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mostly for a specific event or purpose such as recovery of interests, enforcement of constitutional system and overthrow of despotic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social organizations during the May Fourth Movement presented much greater purposes such as public sentiment reform and social reorganization. These

6)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n *Beijingdaxueshiliao*(『北京大學史料』, *A Brief Introduction to Historical Materials Concerning Peking University) Vol. 2, No.3*, the number of groups organized in Peking University at that time was 43. While some groups were composed of teachers and students, most of them were student groups. The number of student groups was at least more than 30.

purposes seemed to be abstract at a glance, but actually, they reflected the serious resolution of the organizers. For example, one of the important student leaders Fu Sinian (傅斯年) argued that the youth reborn by the May Fourth Movement should realize that what is lacking in China is "social union," and that in the past, only "the masses" did exist in China and society was not there. According to his view, national progress can be achieved, and the people can hold hope when the structure of society is organized. Without such condition, when a social movement is over, the fruit of the movement will be scattered instead of remaining to be gathered. That was a very profound insight. Another feature of the social groups at that time was that the union of groups was based on "the awakening of individuals." As I mentioned before, one of the major concepts formed by the May Fourth Movement was liberation of individuality whose meaning is that all people should realize that they are independent human beings, and on the basis of that thought, they should find their work and value, tak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 The spirit, purpose, and energy of the groups made up by those enlightened people were entirely new and fresh. Therefore, we can claim that the social groups during the May Fourth Movement we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ast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and further, in the respect of social influence. These social groups formed new social public cultural space at a higher level.

Lastly, I will briefly summarize the development of social media system.

With a huge increase in the number of social groups, those groups started to publish newspapers and magazines to inform their view widely. According to the statistics at that time, more than 400 types of newspapers and magazines in Baihua letters were published. Along with this, new publishers and publication system appeared and compared with the past,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for the public such as public library, book club, and theater increased largely.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pread and exchange of new thought and philosophy, and in controversy over various ideas, and in the birth of new thought.

Finally, we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by expanding extensively the energy and space for the New Culture Movement, the May Fourth Move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Chinese national culture, the innovation of national mind and spirit, and the progress of Chinese society. Chinese scholars making a study of the May Fourth

Movement and the New Culture Movement, including the ethnic Chinese scholars overseas, more or less, recogniz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two events without exception.

Ⅳ

For several decades, there has been a constant dispute over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role of the May Fourth Movement and the New Culture Movement. The majority of the scholars in China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two movements, while quite a few number of ethnic Chinese scholars playing an active part in the schools of Taiwan, Hong Kong, Europe and America, especially the neo-confucianists overseas, take a negative attitude toward them. Even though the reasons of those opponents are different with one another,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maintain that the May Fourth Movement and the New Culture Movement created radicalism, the root of constant disasters in modern China. They believe that such radicalism appeared in the culture of ideology as well as politics. Here, we will simply deal with the field of ideological culture.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ose people to object to the New Culture Movement is that they consider the movement as extreme radicalism opposing the traditional Chinese culture in every respect by crying out for the so-called “westernization.”

The scholars, having a positive view toward the New Culture Movement like us, have neglected some negative influence of the movement while focusing intensively on the positive role of it. However, it is not to say that we deny the actual existence of negative influence of the movement entirely. It just means that we cannot agree to the attitude of exaggerating the negative side or what is worse, approving only the side effects.

As analysis and criticism referring to numerous data are required to clarify this issue, it needs to be handled in a separate paper. On account of limited space, some key points are dealt with in this paper.

1. Radicalism in modern China appeared as early as the end of the Qing Dynasty, and it is not stemmed from the New Culture Movement or the May Fourth Movement. For

instance, during the Reform Movement, people like Yi Nai (易鼐) and Fan Zhui (樊錐) argued, “We should follow the western law in all respects.” and Tan Sitong (譚嗣同) cried for the “destruction of all order.” As it is criticized by nationalists, during the Xinhai Revolution, such ideological tendencies as “There is nothing to follow except the doctrines of Japan, Europe and America (靡不惟東西之学说是依).” or “Through Europeanization Down to Heart (醉心欧化)” or “It is shameful not to have the western culture.” appeared.

2. The major factor triggering radicalism was the political situation and political movements. After the Opium War, China was exposed to the danger of being invaded or even divided and occupied by the world powers from moment to moment. People who wanted to save their nation and worried about the state of affairs were easily influenced by radical thinking and feeling because of their anxiousness. Political movements for national salvation were constantly carried out, and gradually they were inclined toward radicalism. Among the leaders of the New Culture Movement, Chen Duxiu (陳獨秀), Lu Xun (魯迅), Qian Xuantong (錢玄同), Wu Zhihui (吳稚暉) were regarded as relatively radical figures, and originally, they had a close connection with the political movement. Chen Duxiu had the experience of organizing a hit squad, and Lu Xun participated in a revolutionary magazine for foreign students, and as a follower of Zhang Taiyan (章太炎) who led the revolution against the Qing Dynasty, Qian Xuantong was also infatuated with revolutionary ideas. In the case of Wu Zhihui, he took part in the Revolutionary Party personally. These examples clearly show that radicalism is generally rooted in political movements.

Radicalism is a direct reaction against the excessive despotism sustained for a long time. By the end of the Qing Dynasty, the despotic monarchy was severely abused, and became the object of public resentment, and almost all people cried out for the overthrow of the Qing Dynasty. Under the circumstances, it might have been unusual if radicalism had not occurred. Although Xinhai Revolution overthrew the monarchy, the democratic system was not established. Numerous warlords became various emperors, and instead of being removed from the society, the toxins of despotism penetrated into everywhere in society more deeply. Consequently, intense political movements to overthrow the despotic system continued, and they were reflected in the cultural movement to some degree and

expressed.

3. In the course of the New Culture Movement, Chen Duxiu, Lu Xun, Qian Xuantong, Wu Zhihui sometimes insisted on radical opinion, but by and large, their views were usually rational. In the case of Hu Shi (胡适), one of the most important figures during the New Culture Movement, he always seemed to stick to reason and peace. Therefore, it cannot always be said that they all were anti-traditionalists. As early as 1989, in the paper presented to *Zhongguo Shehukexue*(『中國社會科學』, Social sciences in China), I dealt with the point in detail by refuting the viewpoint of Professor Lin Yusheng (林毓生).

The new thought and ideas supported by cultural pioneers came to face with a strong resistance. As a result, frequently, they focused only on the fight against the resistance from conservatives. Accordingly, they called for "much stronger demands than their own opinions (取法乎上, 以求得其中)," or sometimes made light of another social phenomenon that even though an advocate makes his case based on rational ideas, some of the public could go to extreme with his opinion because of their own special circumstances. Such case was not a few. However, since the culmination of the new Culture Movement, Hu Shi, Cai Yuanpei (蔡元培), and Jiang Menglin (蔣夢麟) took notice of the danger of radicalism, and criticized radicalism many times through their lectures and writings.

Putting the previous contents together, firstly, we admit that the New Culture Movement holds some radical characteristics, but we cannot agree with the view regarding the movement as the root of modern radicalism. Secondly, the root of modern radicalism is the political situation and political movements in China. Therefore, when the politics peacefully gets on the right track, it i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radicalism in the fields of thought and culture as well as other disturbing trends. Thirdly, some negative things tend to happen inevitably in all extensive public movements. Just as the merchant of Venice created by Shakespeare was not able to get a pound of meat without shedding a drop of blood, we cannot expect that the great historical movement will bring us only the good things without having anything bad. In China, the New Culture Movement and the May Fourth Movement presented the direction of modern development and laid the foundation for it. Therefore, the significance of the two movements should not be denied

even though some negative phenomenon was accompanied with them. The only thing we can do is to generalize historical experience and learn lessons from it in rational and scientific attitude, and we should not be too harsh on it.

大正デモクラシーと三・一独立運動

▌松尾尊兌 ▐

大正デモクラシーと三・一独立運動

松尾尊兊(京都大)

〈目次〉

Ⅰ．はじめに
Ⅱ．一九一九年の日本
　1．デモクラシー運動の急発展
　2．国内的要因と国際的要因
Ⅲ．三・一運動に対する日本の反応
　1．世論の動向
　2．吉野作造の同化政策反対論
Ⅳ．東アジアの民族運動と日本
Ⅴ．おわりに

Ⅰ．はじめに

大正デモクラシーとは、一九〇五年から一九三二年、すなわち日露戦争から満州事変までの戦間期の日本の、政治・社会・文化の各分野に顕著に現われた民主主義的・自由主義的な傾向をいう。政治の分野に限定していえばその傾向を推進した運動と、これを利用しあるいは抑制した体制の二つの側面がある。

運動は天皇が主権をもつ明治憲法体制を、国民を代表する議会が事実上の主権をもつ立憲君主制に変革すること、具体[的]にいえば言論・集会・結社などの政治的自由と普通選挙制度に支えられた政党政治の実現を目標とした。

体制とは運動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一九一八年成立の原敬内閣から一九三二年に倒れた犬養毅内閣にいたる間の政策決定権を政党が握った政党政治体制をいう。ただしこの体制は運動の要求を全面的に実現したものではない。普通選挙制度は実現し

たが、明治憲法は部分的な改正もさ[れ]ず、陸・海軍を議会に従属させ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のため軍部が満州事変を始めると、政党政治体制はひとたまりもなく崩壊した。

一九一九年は丁度大正デモクラシーのはじまりから終りまでの中間点にあたり、運動も普選運動や労働組合運動のかたちをとって盛り上がり、体制も日本で最初の政党内閣たる原敬内閣が登場した時期である。この年に勃発した朝鮮民族あげての独立運動たる三・一運動にどう対処するかは、運動と体制双方にとっての将来をきめる試金石であった。

Ⅱ. 一九一九年の日本

1. デモクラシー運動の急発展

三・一独立運動がソウルで発生したその日、日本の首都東京でも、大規模な民衆運動が行われた。普通選挙を要求する約一万人の示威行進が、東京の都心部にあたる日比谷から銀座にかけて行われた。学生ばかりでなく、商人・職工・サラリーマンなどいろいろな民衆が参加した。

明治以来、政府はこのような民衆デモを禁止してきたが、ときの原敬内閣は、はじめてこれを許可した。すなわち三月一日の東京の民衆デモは、日本最初の政党内閣が許可した日本最初の合法的民衆デモであった。この頃、国会が開かれている二月から三月にかけて、普選を要求する集会やデモが行われたのは京都・大阪・名古屋・神戸など主要都市十五に及んだ。

一方、労働運動もこの頃急速に発展した。三月十日、当時ただ一つの全国的労働団体たる友愛会の全国支部代表者集会は、労働者の四大権利、すなわち生存権・団結権・ストライキ権および参政権を国家が法制化せよと決議した。一九一二年の創立以来、性格のあいまいだった友愛会は、八月にはその名を大日本労働総同盟友愛会と改め、本格的な労働組合となったことを示した。一九一九年に発生した労働争議は二三八八件、参加人員三三万五千人と、太平洋戦争前の最高の記録をつくり、労働団体数も八三八に達した。

デモクラシーは政治の分野にとどまらず、社会組織においても実現されるべきだという主張が言論界で盛んとなった。この年新たに発刊され人気を集めた二つの総合月刊雑誌は、当時の流行語を誌名として『改造』『解放』と名のった。

2．国内的要因と国際的要因

一九一九年における民主化運動の急発展は、敗戦直後の一九四六年の状況に似ている。これを生み出したのは、国内的には前年一九一八年夏の米騒動、国際的には一九一七年のロシア革命、とくにパリ講和会議の影響である。

米騒動とは一九一八年七月から九月にかけて日本全国にひろがった米価引下げ要求を中心とする生活擁護運動で、各地で暴動化した。騒動が発生しなかったのは全国三府四三県一道のうちわずか四県だけである。鎮圧のために軍隊が出動した地点は一二〇に達し、約十万人が動員された。

米騒動は外見上、江戸時代の一揆・うちこわしに似ているが、明治維新後丁度半世紀が経過し、近代化が進んだ状況の中で、特別な意味をもった。

第一に米騒動は明治以来の藩閥官僚勢力を代表する寺内正毅内閣を倒し、実質的に初めての政党内閣たる原敬内閣を出現させた。原敬は衆議院第一党たる政友会の総裁で華族ではなかった。平民が首相となったのは内閣制度が始まって以来、これが最初で、原は平民宰相と呼ばれて国民の人気を集めた。原はデモクラシーの潮流をこれまでの政府のように「遮断」（さえぎり止める）のではなく「相当に疎通」して「激盛」（はげしく）させないようにつとめた。その現れが先述の民衆デモ、労働組合、労働争議の事実上の公認（法制化はしない）方針であった。自らの力を自覚した民衆は、この政党内閣の新方針のもとに前記のようなデモクラシー運動を展開したのである。

第二に米騒動はシベリア出兵反対の民衆の意思表示であった。日本のシベリア出兵にはロシア革命に干渉するだけではなく、日本の勢力範囲を満州蒙古地方からシベリアにまで拡大する意図があった。民衆はこれまでの対外戦争では挙国一致で戦争を支持してきたが、このたびは逆に騒動をおこし、各地で軍隊と衝突した。

米騒動は三・一運動にも影響を与えたといえるのではなかろうか。日本在住の朝鮮

人で米騒動に加わったものが多く、朝鮮でもソウルと木浦で、大規模なものとはいえないが米騒動が発生し、ソウルでは一〇〇余名が検挙された。これと三・一運動がどう関係するかは今後研究課題であろうが、少なくとも次のようなことはいえるのではなかろうか。

いうまでもなく、寺内正毅は初代の朝鮮総督として武断的統治を推進した人物である。その人物を首相とする内閣を米騒動が倒したことは、独立を志す朝鮮人に権力の意外な脆さを知らせ民衆運動のもつ力を自覚させた。一九一九年二月八日に東京で朝鮮人留学生が開いた独立集会のあと、留学生の一人廉尚燮（想渉）は東京大学新人会（後述）の機関誌に「朝野の諸公に訴う」と題し、「米暴動と留学生の行動とは其志向は異るも、その生存の保障を得んとする真剣なる内面的要求については、異るところ無きなり」と米騒動への共感を示していた（『デモクラシー』２号、一九一九年四月号）。

次に国際的な要因としてまずロシア革命の影響がある。共産主義思想の影響は一九一九年段階ではまだ日本に及んではいない。むしろ暴力革命に対する嫌悪感が民衆の間には強かった。しかし権力の意外な脆さを知り、日本の現状に対する闘争心を呼びさましたことは確かだといえよう。パリ平和会議の影響はロシア革命より具体的であった。平和条約第四二七条に明記された国際労働規約は、一切の工業国の「特別且緊急」の努力目標として、労働者の団結権、八時間労働制、男女平等賃金制、最低賃金設定など九項目を掲げた。日本の労働者はこれを政府や資本家をしばる約束事であるとして、その実現を要求した。大日本労働総同盟友愛会は、当面の目標二〇項目の中にこの九項目をすべて取入れた。諸新聞も国際労働規約を支持した。このため、政府はとりあえず、これまで労働組合や労働争議を取締ってきた治安警察法第一七条の適用を、しばらく停止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

Ⅲ. 三・一運動に対する日本の反応

1．世論の動向

三・一運動は日本人の朝鮮に対する関心を一挙に高めた。当時の日本で最大の発行部数を誇った『大阪朝日新聞』は、一九一三年から一九一八年までの六年間で、社説で朝鮮問題を取上げたのはわずか六回、つまり一年平均一回にすぎなかったが、一九一九年には一一回、翌年には八回を数えた。しかし言論界の大勢は決して朝鮮独立運動を支持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

三月に運動が始まった段階では、運動を挙族的な独立運動と認めず、ごく少数の天道教やキリスト教のリーダーと、その背後にある外人宣教師の扇動による一時的な運動とみなした。朝鮮人は併合以前にくらべ生活が幸福になったはずとか、民族自決をとなえることは同じ祖先をもつ（日鮮同祖）日朝両民族の歴史に反するなどの言論が横行した。

四月に入ると、ようやくこれまでの武断的統治政策に対する批判が続出するようになった。文官総督制採用、憲兵警察制度廃止、植民地議会設置、言論の自由付与等々の要求が主張された。野党第一党の憲政会の総裁加藤高明までが、十数年後には自治を承認せよと言明した。

ところが八月に武官総督制に代って文武官併用総督制が登場し、新総督に就任した海軍大将斉藤実が新しい統治方針として「文化政治」を掲げると、言論界はこれを歓迎し、批判の声を収めた。加藤高明も「自治」とは武断政治を止め、朝鮮人の政治欲をみたす方法を講ぜよ、という意味だと弁解した。以後新しい政治方針に満足せず、独立を企てるものは「不逞鮮人」と呼ばれ、憎悪と恐怖の的とされることになった。

2．吉野作造の同化政策反対論

文化政治を支持する言論界の大勢の中で、あくまでも同化政策を攻撃し、独立運動を不逞視することを拒否した少数の知識人の代表が吉野作造である。彼は東京帝国

大学法学部の政治史担当教授として高い社会的地位をもち、当時総合雑誌として最大の発行部数をもつ『中央公論』の恒常的政治評論寄稿者として知識人に強い影響力をもった。彼は友愛会の会長鈴木文治の友人であり、支援者として労働者にも影響力をもった。三・一運動の時期には、吉野の周辺には、黎明会という大学教授集団と、新人会という東京大学の学生集団が存在し、大正デモクラシー運動の先端グループを形成していた。

吉野は韓国併合の反対者ではなかった。ところが一九一四年、ヨーロッパ留学を終えて東大教授になり、東大基督教青年会（ＹＭＣＡ）理事長に就任すると、白南薫・張徳秀・張徳俊・金雨英・崔承萬・金俊淵ら朝鮮留学生団体学友会や在東京朝鮮学生基督教青年会のメンバーが東大ＹＭＣＡに出入するようになり、吉野らは独立を求める朝鮮人の気持をよく理解するようになった。

一九一六年四月、吉野は朝鮮を旅行し、総督府とともに天道教本部を訪問し、また宋鎭禹・金性洙ら反日的知識人に会った。帰国後『中央公論』六月号に寄せた「満韓を視察して」は憲兵政治を非難するとともに、朝鮮のような日本文明の先達で独立の文明をもつ民族が「善政」だけに満足するはずはない、世界の大勢からみても同化は不可能だと言明した。そして当面、日本人には朝鮮人の民族心理を無視するなといい、朝鮮人にはまず実力を養った上「適当な解決」を日本に求めよと忠告した。総督府のスポークスマン小松緑（外事課長）は『中央公論』の八月号に反論を寄せ、貧しい人間がせっかく金持の養子になったものを、離縁して独立させるような説を唱えるなと、吉野を非難した。

吉野はますます朝鮮人留学生との接触を深め、三・一運動発生の半年前には「朝鮮問題は近き将来に於て我国内政上最も重大な問題」となる。「現に問題が起こっていないからとて、決して安心すべきいわれはない」と、独立運動の発生を予言していた。

三・一運動が発生すると黎明会の例会は三月一九日、八名の朝鮮人留学生を招いて意見を交換し、六月二五日には朝鮮問題講演会を開き、総督府のこれまでの政策を非難した。多数の朝鮮人学生が参加して熱烈な拍手を送った。吉野はこれまでと同じく朝鮮人の民族心理の尊重と同化政策の放棄を主張したが、とくに、日本本土と同様の言論の自由を朝鮮でも認めるよう唱えたことが注目される。これは翌年彼が『東亜日報』の創刊に尽力した行動につながる。吉野と親しい朝鮮人留学生で『東亜日報』の幹部となった人が多い。

吉野の言論の真価は、むしろ斉藤新総督の「文化政治」に言論界の大勢が満足したときに発揮された。吉野は一九一九年一一月、来日した上海臨時政府の有力者呂運亨と会見し呂を「稀に観る尊敬すべき人格」と讃え、独立運動家を「不逞の徒と蔑しむことはどうしても余輩の良心が許さぬ」と断言した（『中央公論』一九二〇年一月号）。

吉野は四年前と同様に総督府幹部官僚と論戦を交えた。朝鮮人は日本の法律にしたがうのが当然であり、吉野の所説は朝鮮放棄論ではないかと非難する総督府警務局の丸山鶴吉に対し、「祖国の回復を図る」のは日朝両民族の共通の「最高の原理」だと改めて明言し、その承認の上に両民族の「一致提携」をはかるべきだと説いた（『新人』一九二〇年四月号）。その「一致提携」の具体的な姿は相変らず明示されていない。吉野はこの頃台湾についても同化政策を否定し、台湾人は日本国民となる前に先ず「独立の文化民族」になれと要求していた（『台湾青年』一九二〇年七月号）。おそらく朝鮮についても、文化的に独立した地域としてとりあえず自治を認めることを構想していたのではあるまいか。

吉野は「文化政治」の下でも変らぬ同化主義についても、それは「全然日本人と同じ者となれというのではなく、日本人のいう通りの者になれという要求」、すなわち差別を内包する同化主義と的確に認識していた。吉野によればそのような同化主義を必要とするのは日本の伝統的国防方針である。国防のためには対馬海峡の安全が必要であり、その安全を確保するのには対岸の朝鮮が必要であり、朝鮮の安全のためにはさらに満州が必要である、と際限なく国防線を広げて行く（『婦人公論』一九二一年一月号）。吉野は三・一運動から一二年目に始まる十五年戦争を予言している。この無限の膨張主義に歯止めをかけるのは「朝鮮政策の一新」が必要となる。日本の運命は朝鮮統治の在り方にかかっている（『中央公論』一九二一年二月号）。これが三・一運動を経験した吉野の朝鮮認識であった。

Ⅳ. 東アジアの民族運動と日本

三・一運動に対する日本の反応の性格をより鮮明にするために、その一月後に中国

で発生した五・四運動に対する反応を要約しておきたい。

言論界の五・四運動への態度は、三・一運動の場合と類似していた。パリ平和会議で中国が山東省のドイツ権益の直接返還を要求すると、ごく少数の放棄論を除いて、日本政府の権益継承の主張を支持した。五・四運動が発生すると、アメリカが背後にあって扇動しているとか、中国の一部の策士の暗躍によるものとかの説が多数を占めた。

六月に入ると欧米と協調する政府の対中国政策を支持する論調が支配的となったが、一部には積極的に北京の親日派政権を積極的に援助せよと主張するものもあった。

総じて言論界の大勢は、大戦中のむき出しの大陸進出政策をやめて、欧米との協調路線をとるが、既得権益は決して放棄しないという原内閣の外交政策を支持していた。

五・四運動は単に山東権益の返還とか二十一カ条の廃棄を要求したものではなかった。運動が日本に求めたのは、朝鮮と台湾の解放をふくめた民族自決主義の実行であった（張継・何天炯・戴天仇「告日本国民書」五月八日）。この要求を日本政府はもちろん、言論界の大勢は無視した。

吉野作造はこのような大勢に逆らった。大戦中、すでに戴天仇ら孫文一派の革命派青年たちと交わり、中国革命史の研究を行っていた吉野は、五・四運動に深い理解を寄せた。運動は中国の親日派官僚軍閥およびこれを支持する日本の官僚軍閥に対する攻撃であり、この官僚軍閥に対する両国の解放運動が成功して、はじめて両国国民間の親善が可能となるという趣旨の文章を『中央公論』その他に発表した。この趣旨にもとづいて吉野は両国の解放運動間の交流を計画し、翌年五月に北京大学の六人の教授と学生招き、東京、京都、神戸などで学生運動や労働運動のリーダーたちとの交流を実現させた。

吉野は朝鮮の即時独立を主張しなかったのと同様、満蒙の即時放棄を唱えなかったが、アジアにおける日本の権益をすべて捨てよと主張した雑誌がただ一つ存在した。『東洋経済新報』である。一九一二年に三浦銕太郎が主幹（社長兼編集長）になると、それまでの普通選挙制の獲得による議会中心政治の確立とともに、帝国主義政策の放棄を主張するようになった。「大日本主義」に対する「小日本主義」、具体的には満州放棄の主張である。第一次世界大戦下では二一カ条要求に反対し、台湾自治をとなえた。三浦は他の雑誌では朝鮮放棄論を唱えた。

三・一運動が起ると、この雑誌は、朝鮮人はいかに日本が善政を行っても決して満

足せず、独立するまでは反抗をやめないだろう（五月一五日）、日本としては独立の時期を早める政策をとれ（八月五日）と論じた。一九二一年のワシントン会議の前には「一切を棄つるの覚悟」「大日本主義の幻想」（七月二三日～八月一三日）を連載し、日本はすべての植民地（満州をふくむ）を捨てることを主張した。そうすれば日本は朝鮮人、中国人の信頼を得ることができて、東洋の原料と市場を十分に[利用]出来るようになる。国防も安全となり、アメリカとの対立も解決するというのである。

これは当時の日本では突出した主張であった。しかしこの雑誌は『中央公論』などのような知識人相手の雑誌ではなく、経済界人を読者とする雑誌である。経済的立場から帝国政策を捨てよという主張は、経済界のある部分の支持を得ていた。財閥に支配されている日本の経済界ではあったが、その支配は貫徹しているとはいえなかった。『東洋経済新報』は十五年戦争下も生き残り、三浦の後継者石橋湛山は戦後、自由民主党第二代総裁として首相に就任した。日本資本主義は一枚岩ではなくしたたかな存在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のではなかろうか。

Ⅴ. おわりに

三・一運動は日本にアジア政策の変更を要求する民族独立運動であった。当時日本で盛り上った大正デモクラシーは、運動側も体制側もこれに対応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運動の側では吉野作造や『東洋経済新報』のように、政策変更を求めるものがあったが、大勢としては「外に帝国主義、内に立憲主義」というこれまでの主張を改め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体制の側でもむき出しの武断的統治政策を改めたものの、同化政策そのものを放棄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このため、四年後の関東大震災の折には、朝鮮人大虐殺事件をひきおこし、一一年後には軍部の企てた満州事変に始まる十五年戦争を許すことになった。

【 吉野作造が会った朝鮮人 】

年	月 日	人 名
1905		李殷徳
1913	9. 20	金雨英（推定）
1914		張徳秀，白南薫（推定）
1916	4	金性洙，宋鎮禹（推定）
1917	1. 5	金雨英，金栄洙
	1. 30	金栄洙，玄相允，崔斗善
	2. 3	朝鮮 YMCA で講演（『学之光』 13）
	2. 15	金，李，崔，他２名（東大 YMCA 日誌）
	4. 3 ～4	朝鮮 YMCA 春令会で講演（『学之光』 13）
	4. 8	金栄洙，秦学文
	4. 18	金，崔，張，李，申，玄（東大 YMCA 日誌）
	6. 27	金雨英
1918	1. 19	朝鮮 YMCA で講演
	3. 20	秦学文
	3. 30	朝鮮 YMCA で講演
	9. 1	金性実
1919	2. 9	朝鮮人学生
	2. 16	金雨英
	3. 11	鮮于錤
	3. 19	金雨英，姜宗燮，崔承萬，金俊淵，張仁煥，白南薫，卞熙瑢，徐相国（「黎明講演集」）
	4. 28	青年会同盟で朝鮮人学生三人の話を聞く
	4. 30	金俊淵
	6. 3	権熙国
	6. 18	権熙国
	6. 19	黎明会例会で宋秉畯の話を聞く
	6. 26	張徳俊，金俊淵，全某（神戸高商）
	7. 18	廉尚燮
	7. 21	沈ら７名の朝鮮紳士
	7. 23	廉尚燮
	7. 25	金雨英
	7. 27	教会同盟で朝鮮人有志
	8. 1	沈，朴，李
	8. 2	金雨英
	9. 2	張
	9. 3	張徳俊
	9. 27	朴一秉
	11. 18 ～31	呂運亨，張徳秀（「所謂呂運亨事件について」）
1920	1. 13	李範昇
	2. 8	崔，朴
1922	3. 4	崔垣今，李英実
	4. 2	金在学
	5. 22	柳一宣
	6. 30	金燦
	7. 15	黄信徳

年	月 日	人 名
	7. 20	柳一宣
	10. 14	李雲英
1923	3. 29	朝鮮人苦学生
	5. 23	柳一宣
	5. 25	柳一宣
	10. 21	崔承萬
	10. 26	李永根，崔
	11. 29	朝鮮，支那，日本の学生10名ばかり
1924	3. 27	金雨英
	4. 2	金雨英
	7. 3	崔（学生）
	7. 19	朴承浩，黄信徳，林孝貞
	7. 25	李容林（？）
	8. 20	朴
	9. 19	朝鮮人の金の相談多し
	9. 26	崔承萬
	10. 10	崔
1927	4. 13	金在学
	6. 3	金雨英，朴
1928	2. 6	朴錫胤
	5. 14	林孝貞
	8. 4	盧（？）
	11. 16	崔垣亨
1929	1. 18	姜世馨
	3. 11	姜世馨
	4. 19	崔垣亨
	5. 31	金雨英
	6. 7	金雨英
	8. 23	呂運弘
1930	12. 8	李
1931	2. 21	楊確実
	3. 13	朝鮮婦人学生
	4. 24	李英介の紹介で崔
	5. 2	姜世馨
	5. 8	韓根祖
	5. 15	金某嬢
	6. 19	崔承萬
	9. 4	鄭吉煥（崔承萬紹介）
	9. 11	楊確実
	10. 2	羅蕙錫（金雨英の妻）
	10. 30	楊確実
1932	1. 22	楊確実
	1. 29	金，朴
	3. 18	鄭吉煥
	4. 8	鄭吉煥，楊確実
	4. 15	李萬濬，張愛希
	5. 6	楊確実
	5. 20	楊確実
	5. 27	鄭吉煥
	6. 24	楊確実
	7. 15	張愛希，張容秀
	7. 29	鄭吉煥
	9. 23	崔
	12. 6	張愛希，張容秀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와 3 · 1독립운동

마쓰오 다카요시 (교토대)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1919년의 일본
1. 데모크라시운동의 급속한 발전
2.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
Ⅲ.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반응
1. 여론의 동향
2. 요시노 사쿠조의 동화정책 반대론
Ⅳ. 동아시아의 민족운동과 일본
Ⅴ. 나오며

Ⅰ. 들어가며

다이쇼(大正)데모크라시란 1905년부터 1932년, 즉 러일전쟁부터 만주사변에 이르는 전간기(戰間期) 일본의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민주주의적·자유주의적 경향을 말한다. 정치 분야에 한정해서 말하면, 그 경향을 추진한 운동과, 그것을 이용하거나 억제한 체제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운동은 천황이 주권을 가지는 메이지(明治)헌법체제를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사실상의 주권을 가지는 입헌군주제로 변혁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론·집회·결사 등 정치적 자유와 보통선거제도에 의해 뒷받침된 정당정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체제란, 운동에 의해 초래되어 1918년에 성립된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으로부터 1932년에 무너진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내각에 이르는 동안 정책결정권을 정당이 가진 정당정치체제를 말한다. 다만 이 체제는 운동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시킨 것은 아니다. 보통선거제도는 실현되었지만 메이지헌법은 부분적인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육해군을 의회에 종속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군부가 만주사변을 일으키자 정당정치체제는 여지없이 붕괴했다.

1919년은 다이쇼데모크라시의 시작부터 종말에 이르는 바로 그 중간지점에 있는데, 운동도 보선운동이나 노동조합운동의 형태를 통해 고양되었으며 체제 또한 일본 최초의 정당내각인 하라 다카시 내각이 등장한 시기이다. 이 해에 발발한 조선민족의 거족적 독립운동인 3·1운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운동과 체제 쌍방에게 장래를 결정할 시금석이었다.

Ⅱ. 1919년의 일본

1. 데모크라시운동의 급속한 발전

3·1독립운동이 서울에서 발생한 그 날,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도 대규모 민중운동이 벌어졌다.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약 만 명의 시위행진이 도쿄 도심부인 히비야(日比谷)에서 긴자(銀座)에 걸쳐 펼쳐졌다. 학생뿐만 아니라 상인·직공·샐러리맨 등 다양한 민중들이 참여했다. 메이지 이래 정부는 이러한 민중시위를 금지해왔는데 당시의 하라 내각은 처음으로 이것을 허가했다. 즉 3월 1일의 도쿄 민중시위는 일본 최초의 정당내각이 허가한, 일본 최초의 합법적 민중 시위였다. 이즈음, 즉 국회가 개회된 2월부터 3월에 걸쳐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집회나 시위가 벌어진 곳은 교토·오사카·나고야·고베 등 주요도시 15개에 이르렀다.

한편, 노동운동도 이즈음에 급속히 발전했다. 3월 10일, 당시 단 하나의 전국적 노동단체였던 우애회(友愛會)의 전국지부대표자집회는 노동자의 4대 권리, 즉 생존권·단결권·파업권 및 참정권을 국가가 법제화하라고 결의했다. 1912년에 창립된 이후 성격이 애매했던 우애회는 8월에는 그 이름을 대일본노동총동맹우애회로 고쳐 본격적인 노동조합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919년에 발생한 노동쟁의는 2,388건, 참여인원 33만 5천명으로 태평양전쟁 이전의 최고기록을 세웠으며 노동단체 수도 838에 달했다.

데모크라시는 정치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조직에서도 시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계에서 성행했다. 그 해에 새로이 발간되어 인기를 모았던 두 개의 종합월간 잡지는 당시 유행어를 제호로 삼아 『개조』, 『해방』 이라고 했다.

2.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

1919년에 민주화운동이 급속히 발전한 상황은 패전 직후인 1946년 상황과 유사하다. 이것을 낳은 것은, 국내적으로는 전해 1918년 여름의 쌀 소동, 국제적으로는 1917년의 러시아혁명, 특히 파리강화회의의 영향이다.

쌀 소동이란, 1918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일본 전국으로 확산된 쌀값 인하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옹호운동으로 각지에서 폭동으로 변했다. 소동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전국 3부(府)43현(縣)1도(道) 가운데 불과 4개 현(縣)뿐이다. 진압을 위해 군대가 출동한 지점은 120에 달했으며 약 10만 명이 동원되었다.

쌀 소동은 겉으로 보면 에도(江戶)시대의 농민들의 봉기(一揆)나 도시 하층민들의 폭동(うちこわし)과 유사하지만, 메이지유신 이후 딱 반세기가 지나 근대화가 진행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첫째, 쌀 소동은 메이지 이래의 번벌(藩閥)관료세력을 대표하는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내각을 타도하고 실질적으로 최초의 정당내각인 하라 다카시 내각을 출현시켰다. 하라 다카시는 중의원 제1당인 정우회(政友會) 총재로 화족(華族)이 아니었다. 평민이 수상이 된 것은 내각제도가 시작된 이후 이것이 처음이며 하라는 평민재상이라고 불리면서 국민들의 인기를 모았다. 하라는 데모크라시 조류를 기존 정부처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소통'해서 '격성(激盛)', 즉 격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이 앞서 말한 민중시위, 노동조합, 노동쟁의의 사실상의 공인(법제화는 하지 않음)이라는 방침으로 나타났다. 스스로의 힘을 자각한 민중은 이 정당내각의 새 방침 아래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데모크라시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둘째, 쌀 소동은 시베리아 출병에 반대하는 민중의 의사표시였다.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에는 러시아혁명에 간섭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세력범위를 만주몽고지방에서 시베리아까지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민중들은 과거의 대외전쟁에서는

거국일치로 전쟁을 지지해왔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소동을 일으켜 각지에서 군대와 충돌했다.

쌀 소동은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에 사는 조선인으로 쌀 소동에 참여한 사람이 많이 있고, 조선에서도 서울과 목포에서 대규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쌀 소동이 발생했으며 서울에서는 100여명이 검거되었다. 이와 3・1운동이 어떻게 관계하느냐는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말할 것도 없이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초대 조선총독으로 무단적 통치를 추진한 인물이다. 그 인물을 수상으로 한 내각을 쌀 소동이 타도한 것은, 독립을 지향하는 조선인들에게 권력의 뜻밖의 취약성을 알리며 민중운동이 지닌 힘을 자각케 했다. 1919년 2월 8일에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이 개최한 독립집회 뒤 유학생의 한 사람인 염상섭은 도쿄대학 신인회(후술) 기관지에 「조야 제공에게 호소함(朝野の諸公に訴う)」이라는 제하에 “쌀 소동과 유학생의 행동은 그 지향은 다를지라도 그 생존의 보장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내면적 요구에 대해서는 다를 바 없다”며 쌀 소동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었다(『デモクラシー』 2호, 1919년 4월호).

다음으로 국제적 요인으로서, 먼저 러시아혁명의 영향이 있다. 공산주의사상의 영향은 1919년 단계에서는 아직 일본에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폭력혁명에 대한 혐오감이 민중들 사이에서는 강했다. 그러나 권력이 뜻밖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본의 현실상황에 대한 투쟁심을 일깨웠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파리평화회의의 영향은 러시아혁명보다 구체적이었다. 평화조약 제427조에 명기된 국제노동규약은 모든 공업국의 ‘특별하고도 긴급한’ 노력 목표로서, 노동자들의 단결권, 8시간노동제, 남녀평등임금제, 최저임금 설정 등 9개 항목을 내걸었다. 일본의 노동자들은 이것을 정부와 자본가를 구속하는 규정이라고 해서 그 실현을 요구했다. 〈대일본노동총동맹우애회〉는 당면 목표 20개 항목 중에 이 9개 항목을 모두 집어넣었다. 신문들도 국제노동규약을 지지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일단 이제까지 노동조합이나 노동쟁의를 단속했던 치안경찰법 제17조의 적용을 당분간 정지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Ⅲ. 3 · 1운동에 대한 일본의 반응

1. 여론의 동향

3 · 1운동은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관심을 일거에 높였다. 당시 일본에서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던 『오사카아사히신문』은, 1913년부터 1918년에 이르는 6년 동안에 사설로 조선 문제를 다룬 것이 불과 6번, 즉 연평균 한 번에 지나지 않았는데, 1919년에는 11번, 이듬해에는 8번을 헤아리게 되었다. 하지만 언론계의 대세는 결코 조선독립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3월에 운동이 시작된 단계에서는 운동을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인정치 않고 극소수의 천도교나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 배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의 선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동으로 간주했다. 조선인은 병합 이전에 비해 생활이 행복해졌을 것이라든가 민족자결을 주창하는 것은 같은 조상을 가진(日鮮同祖)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의 역사에 반한다는 식의 언론이 횡행했다.

4월에 들어서면 이제 겨우 기존의 무단적 통치정책에 대한 비판이 속출하게 되었다. 문관총독제 채용, 헌병경찰제도 폐지, 식민지의회 설치, 언론의 자유 부여 등등의 요구가 주장되었다. 제1 야당인 헌정회(憲政會) 총재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까지도 10 몇 년 뒤에는 자치를 승인하라고 언명했다.

그런데 8월에 무관총독제를 대신해 문무관병용총독제가 등장하고 새 총독으로 취임한 사이토 마코토(齊藤實)가 새로운 통치방침으로 '문화정치'를 내세우자 언론계는 이것을 환영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었다. 가토 다카아키 또한 '자치'란 무단정치를 그만하고 조선인의 정치욕망을 충족할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이었다고 변명했다. 이후 새로운 정치방침에 만족하지 않고 독립을 꾀하는 자는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고 불리며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2. 요시노 사쿠조의 동화정책 반대론

문화정치를 지지하는 언론계의 대세 속에서 어디까지나 동화정책을 공격하고 독립운동을 불령시하는 것을 거부한 소수의 지식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요시노 사쿠

조(吉野作造)이다. 그는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의 정치사 담당 교수로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며 당시 종합잡지로서 최대 발행부수를 가진 『중앙공론』의 상시 정치평론 기고자로서 지식인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는 우애회 회장인 스즈키 분지(鈴木文治)의 친구이기도 해서 지원자로서 노동자들에게도 영향력을 가졌다. 3·1운동 시기에는 요시노 주변에는 여명회(黎明會)라는 대학교수집단과 신인회라는 도쿄대학의 학생집단이 존재했으며 다이쇼 데모크라시운동의 첨단집단을 형성해 있었다.

요시노는 한국병합에 반대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1914년, 유럽 유학을 마치고 도쿄대 교수가 되고 도쿄대 기독교청년회(YMCA) 이사장에 취임하자 백남훈, 장덕수, 장덕준, 김우영, 최승만, 김준연 등 조선유학생단체 학우회나 재도쿄조선학생기독교청년회 멤버들이 도쿄대 YMCA를 드나들게 되어 요시노 등은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1916년 4월, 요시노는 조선을 여행했는데, 총독부와 더불어 천도교 본부를 방문하고 또 송진우, 김성수 등 반일적 지식인을 만났다. 귀국 후 『중앙공론』 6월호에 기고한 「만한(滿韓)을 시찰하고」는 헌병정치를 비난함과 더불어, 조선과 같이 일본문명의 선배이자 독립된 문명을 가진 민족이 ‘선정(善政)’만으로 만족할 리 만무하다, 세계 대세에서 보아도 동화는 불가능하다고 언명했다. 그리고 당장에 일본인에게는 조선인의 민족심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고 조선인에게는 먼저 실력을 양성한 다음 ‘적당한 해결’을 일본에 요구하라고 충고했다. 총독부 대변인 고마쓰 미도리(小松綠, 외사과장)은 『중앙공론』 8월호에 반론문을 기고해 가난한 사람이 모처럼 부잣집 양자가 됐는데 인연을 끊고 독립시킨다는 식의 설을 주장하지 말라고 요시노를 비난했다.

요시노는 점차 조선인 유학생과의 접촉을 심화시켜 3·1운동이 발생할 반년 전에는 “조선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 내정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된다. “당장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고 독립운동의 발생을 예언했다.

3·1운동이 발생하자 여명회 정례회는 3월 19일, 8명의 조선인 유학생을 초청해 의견을 교환하고 6월 25일에는 조선문제강연회를 열어 총독부가 이제까지 펴온 정책을 비난했다. 다수의 조선인 학생이 참석해서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요시노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민족심리 존중과 동화정책 포기를 주장했는데,

특히 일본 본토와 똑같은 언론 자유를 조선에서 인정하라고 주장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이듬해 그가 『동아일보』 창간에 진력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요시노와 친한 조선인 유학생으로 『동아일보』 간부가 된 사람이 많이 있다.

요시노 언론의 진가(眞價)는 오히려 사이토 새 총독의 '문화정치'에 언론계의 대세가 만족했을 때 발휘되었다. 요시노는 1919년 11월, 일본을 방문한 상해임시정부의 유력자인 여운형과 회견을 가져 여운형을 "보기 드문 존경스러운 인격"이라고 칭송하며 독립운동가를 "불령도당이라고 천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中央公論』 1920년 1월호).

요시노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총독부 간부관료와 논전을 벌였다. 조선인은 일본 법률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요시노의 주장은 조선포기론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총독부 경무국의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에 대해 "조국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의 공통된 "최고 원리"라고 다시 명언하고 그 승인을 바탕으로 두 민족의 "일치 제휴"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新人』 1920년 4월호). 그 '일치 제휴'의 구체적인 모습은 여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요시노는 그 무렵에 대만에 대해서도 동화정책을 부정하고, 대만인은 일본 국민이 되기 전에 먼저 "독립된 문화민족"이 되라고 요구했다(『臺灣青年』 1920년 7월호). 아마 조선에 대해서도 문화적으로 독립된 지역으로서 일단 자치를 인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요시노는 '문화정치' 아래서도 변함없는 동화주의에 대해서도, 그것은 "완전 일본인과 똑같은 것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 시키는 대로 되라는 요구", 즉 차별을 내포하는 동화주의라고 적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요시노에 의하면, 그러한 동화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일본의 전통적 국방방침이다. 국방을 위해서는 쓰시마해협의 안전이 필요하고,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건너편에 있는 조선이 필요하고, 조선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나아가 만주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끝없이 국방선을 넓혀간다(『婦人公論』 1921년 1월호). 요시노는 3·1운동부터 12년째에 시작되는 15년 전쟁을 예언했다. 이 무한 팽창주의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조선정책의 일신"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의 운명은 조선통치의 양태에 달려 있다(『中央公論』 1921년 2월호). 이것이 3·1운동을 경험한 요시노의 조선 인식이었다.

Ⅳ. 동아시아의 민족운동과 일본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반응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그 두 달 뒤에 중국에서 발생한 5·4운동에 대한 반응을 요약해두자.

언론계의 5·4운동에 대한 태도는 3·1운동의 경우와 유사했다. 파리평화회의에서 중국이 산둥성(山東省)의 독일 권익을 직접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극소수의 포기론을 제외하고 일본 정부의 권익 계승 주장을 지지했다. 5·4운동이 발생하자 미국이 배후에서 선동하고 있다거나 중국의 일부 책사(策士)의 암약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설이 다수를 차지했다.

6월에 들어서면서 구미와 협조하는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는 논조가 지배적이 되었지만 일부에는 베이징(北京)의 친일파 정권을 적극적으로 원조하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대체로 언론계의 대세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의 노골적인 대륙진출정책을 그만 펴고 구미와의 협조노선을 취하되 기득권익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라 내각의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5·4운동은 단순히 산둥 권익의 반환이라든가 21개조 요구의 폐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운동이 일본에 요구한 것은 조선과 대만의 해방을 포함한 민족자결주의 실행이었다(張繼·何天炯·戴天仇「告日本國民書」5월 8일). 이 요구를 일본 정부는 물론 언론계의 대세는 무시했다.

요시노 사쿠조는 이러한 대세를 거슬렀다. 전쟁 중 이미 戴天仇[=戴季陶] 등 손문(孫文) 일파의 혁명청년들과 어울리며 중국혁명사 연구를 했던 요시노는 5·4운동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운동은 중국의 친일파·관료·군벌 및 이들을 지지하는 일본의 관료·군벌에 대한 공격이며 이 관료·군벌에 대한 양국의 해방운동이 성공하고 나야 비로소 양국 국민간의 친선이 가능해지리라는 취지의 글을 『중앙공론』 기타에 발표했다. 이 취지를 바탕으로 요시노는 양국의 해방운동 사이의 교류를 계획해 이듬해 5월에 베이징대학의 6명의 교수와 학생을 초청해서 도쿄, 교토, 고베 등지에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등의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실현시켰다.

요시노는 조선의 즉시 독립을 주장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만몽의 즉시 포기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아시아에서 일본의 권익을 모두 포기하라고 주장한 잡지가

단 하나 존재했다. 『동양경제신보(東洋經濟新報)』이다. 1912년에 미우라 데쓰타로(三浦銕太郎)가 주간(사장 겸 편집장)이 되면서 기존의 보통선거제 획득에 의한 의회중심정치 확립과 더불어 제국주의 정책의 포기를 주장하게 되었다. '대일본주의'에 대한 '소일본주의', 구체적으로는 만주를 포기하자는 주장이다. 제1차 세계대전 하에서는 21개조 요구에 반대하고 대만 자치를 주창했다. 미우라는 다른 잡지에서는 조선포기론을 주창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이 잡지는 조선인은 아무리 일본이 선정을 시행해도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독립하기 전까지 반항을 멈추지 않을 것(5월 15일), 일본으로서는 독립의 시기를 앞당기는 정책을 취하라(8월 5일)고 했다. 1921년 워싱턴회의 전에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 "대일본주의의 환상"(7월 23일~8월 13일)을 연재해 일본은 모든 식민지(만주 포함)를 버릴 것을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조선인, 중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동양의 원료와 시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도 안전하게 되고 미국과의 대립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일본에서는 돌출된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 잡지는 『중앙공론』과 같은 지식인을 상대로 하는 잡지가 아니라 경제계 사람들을 독자로 하는 잡지이다. 경제적 입장에서 제국 정책을 버리라는 주장은 경제계의 어떤 부분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재벌에 지배된 일본 경제계이긴 했지만 그 지배가 관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동양경제신보』는 15년 전쟁 하에서도 살아남았으며 미우라의 후계자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은 패전 이후 자유민주당 2대 총재로 수상에 취임했다. 일본 자본주의가 균질적이지 않고 생존능력이 강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Ⅴ. 나오며

3·1운동은 일본에 아시아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민족독립운동이었다. 당시 일본에서 고조된 다이쇼데모크라시는, 운동 측도 체제 측도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운동 측에서는 요시노 사쿠조나 『동양경제신보』처럼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세로는 '밖으로 제국주의, 안으로 입헌주의'라는 기존의 주장을 고치지 못했다. 체제 측 또한 노골적인 무단적 통치정책을 수정했지만 동화정

책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로 인해 4년 후 관동대지진 때는 조선인 대학살사건을 불러일으켰으며 11년 후에는 군부가 기획한 만주사변으로 시작되는 15년 전쟁을 허용하게 되었다.

【 요시노 사쿠조가 만난 조선인 】

年	月 日	人 名
1905		李殷徳
1913	9. 20	金雨英 (推定)
1914		張徳秀, 白南薫 (推定)
1916	4	金性洙, 宋鎮禹 (推定)
1917	1. 5	金雨英, 金栄洙
	1. 30	金栄洙, 玄相允, 崔斗善
	2. 3	朝鮮 YMCA で講演 (『学之光』 13)
	2. 15	金, 李, 崔, 他2名 (東大 YMCA 日誌)
	4. 3 ～4	朝鮮 YMCA 春令会で講演 (『学之光』 13)
	4. 8	金栄洙, 秦学文
	4. 18	金, 崔, 張, 李, 申, 玄 (東大 YMCA 日誌)
	6. 27	金雨英
1918	1. 19	朝鮮 YMCA で講演
	3. 20	秦学文
	3. 30	朝鮮 YMCA で講演
	9. 1	金性実
1919	2. 9	朝鮮人学生
	2. 16	金雨英
	3. 11	鮮千錫
	3. 19	金雨英, 姜宗燮, 崔承萬, 金俊淵, 張仁煥, 白南薫, 卞熙瑢, 徐相国 (「黎明講演集」)
	4. 28	青年会同盟で朝鮮人学生三人の話を聞く
	4. 30	金俊淵
	6. 3	権熙国
	6. 18	権熙国
	6. 19	黎明会例会で宋秉畯の話を聞く
	6. 26	張徳俊, 金俊淵, 全某 (神戸高商)
	7. 18	廉尚燮
	7. 21	沈ら7名の朝鮮紳士
	7. 23	廉尚燮
	7. 25	金雨英
	7. 27	教会同盟で朝鮮人有志
	8. 1	沈, 朴, 李
	8. 2	金雨英
	9. 2	張
	9. 3	張徳俊
	9. 27	朴一秉
	11. 18 ～31	呂運亨, 張徳秀 (「所謂呂運亨事件について」)
1920	1. 13	李範昇
	2. 8	崔, 朴
1922	3. 4	崔垣今, 李英実
	4. 2	金在学
	5. 22	柳一宣
	6. 30	金燦
	7. 15	黄信徳

年	月 日	人 名
	7. 20	柳一宣
	10. 14	李雲英
1923	3. 29	朝鮮人苦学生
	5. 23	柳一宣
	5. 25	柳一宣
	10. 21	崔承萬
	10. 26	李永根, 崔
	11. 29	朝鮮, 支那, 日本の学生10名ばかり
1924	3. 27	金雨英
	4. 2	金雨英
	7. 3	崔 (学生)
	7. 19	朴承浩, 黄信徳, 林孝貞
	7. 25	李容林 (?)
	8. 20	朴
	9. 19	朝鮮人の金の相談多し
	9. 26	崔承萬
	10. 10	崔
1927	4. 13	金在学
	6. 3	金雨英, 朴
1928	2. 6	朴錫胤
	5. 14	林孝貞
	8. 4	盧 (?)
	11. 16	崔垣亨
1929	1. 18	姜世馨
	3. 11	姜世馨
	4. 19	崔垣亨
	5. 31	金雨英
	6. 7	金雨英
	8. 23	呂運弘
1930	12. 8	李
1931	2. 21	楊確実
	3. 13	朝鮮婦人学生
	4. 24	李英介の紹介で崔
	5. 2	姜世馨
	5. 8	韓根祖
	5. 15	金某嬢
	6. 19	崔承萬
	9. 4	鄭吉煥 (崔承萬紹介)
	9. 11	楊確実
	10. 2	羅蕙錫 (金雨英の妻)
	10. 30	楊確実
1932	1. 22	楊確実
	1. 29	金, 朴
	3. 18	鄭吉煥
	4. 8	鄭吉煥, 楊確実
	4. 15	李萬濬, 張愛希
	5. 6	楊確実
	5. 20	楊確実
	5. 27	鄭吉煥
	6. 24	楊確実
	7. 15	張愛希, 張容秀
	7. 29	鄭吉煥
	9. 23	崔
	12. 6	張愛希, 張容秀

Taisho Democracy and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Matsuo Takayoshi (Kyoto University)

〈Content〉

Ⅰ. Prolog
Ⅱ. Japan in 1919
1. Rapid development of democracy movement
2.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Ⅲ. Japan's response to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1. Public opinion
2. Yoshino Sakujo's opposition to assimilation policy
Ⅳ. National movement in East Asia and Japan
Ⅴ. Epilog

Ⅰ. Prolog

Taisho Democracy means a democratic and liberal syndrome which was manifest i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reas in Japan during the 1905-1932 period in between the Russia-Japan War and Manchurian Incident.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there are two aspects – one is a movement in pursuit of the syndrome and the other is a regime of oppressing the campaign. The movement was focused on replacing emperor-ruling Meiji constitutional system into a parliament-dominating constitutional monarchy. In detail, the movement aimed to realize a political party system based on political freedom in terms of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regime refers to a political party system ranging from the Hara Takashi Cabinet which was set up in 1918 to the Inukai Tsuyoshi Cabinet which crumbled in 1932. The regime did not accept the movement's all demands. Despite implementation of popular electoral system, the Meiji Constitution remained unchanged at all, with the armed forces out of the parliament's control. Against this backdrop, the military forces triggered the Manchurian Incident, which led to the abolition of the party system.

The year 1919 lies in between the start and end of the Taisho Democracy and the movement got boost in the form of by-elections or trade unions activities. At that time, Takashi Cabinet emerged as Japan's first party cabinet. How to respond to the March 1st Movement, Joseon people's pan-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was a litmus test which would determine the future of both the movement and the regime.

Ⅱ. Japan in 1919

1. Rapid development of democracy movement

On the day when the March 1st Movement took place in Seoul, a massive rally also occurred in Tokyo, the capital city of Japan. Some 10,000 people took to the street extending from Hibiya and Ginza at central Tokyo, calling for the introduction of popular votes. People from various sectors of the society took part in the rally comprising students, vendors, factory workers and salaried workers. Under the Meiji Constitut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d banned such rallies but then Hara cabinet allowed it for the first time. In other words, the rally in Tokyo in March 1 was Japan's first legal popular rally permitted by Japan's first political party cabinet. Similar rallies calling for the popular votes took place in 15 major cities of Japan like Kyoto, Osaka, Nagoya and Kobe until March from February when the Japanese diet began a session.

In the meantime, Japan's labor movement also rapidly developed during the period. On March 10, representative of the Uaehoe, the sole national labor union body, made a resolution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legalize four labor rights – to live, organize, strike and political rights. Since founded in 1912, the organization's identity remained obscure before it entered a full-fledged labor movement by changing its name to "Greater Japanese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A total of 2,388 cases of labor disputes took place in 1919 involving 335,000 people, setting the record during the pre-Pacific War period. The number of trade unions also reached 838.

The then Japanese press underlined that the democracy movement should spread to

social institutions without being confined to the political area. Two newly-published monthly magazines attracted popularity with the names of “Reform” and “Liberation” which were popular words at that time.

2.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The rapid development of democracy movement in 1919 resembles the situation in 1946 in the wake of Japan’s defeat in the Pacific War. The 1919 movement was affected by “rice incident” in 1918 in Japan and by the Russian Revolution and the following Paris Peace Treaty in 1917.

The rice incident was a campaign for reducing the rice price and enhancing living standards that occurred across Japan in July-September, 1918. Only four provinces remained unaffected by the incident. About 100,000 troops were mobilized to quell the riots that took place in 120 places.

The rice incident had particular significance as it took place amid ongoing modernization in just half a century since the Meiji Reform, though it looked similar to the uprising of farmers or low class urban residents in Edo era.

First, the rice incident gave birth to the Hara Takashi cabinet, the first political party cabinet while dethroning the Terauchi Masatake cabinet representing conglomerate bureaucratic forces. Hara Takashi was leading the majority party of then House but he was not from a noble class.

He became the commoner premier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cabinet system began and attained the people’s popularity. Hara attempted to prevent the democracy movement from becoming violent via smooth communications with the people instead of “banning” the campaign as did the previous regimes. The cabinet virtually approved the popular rallies, trade unions and disputes though it stopped short of legalizing it. The masses became to recognize their own power and carried out the democracy movement under the new policies of the government.

Second, the rice incident was the expression of people’s opinion against dispatch of

troops to Siberia. Japan attempted to send the troops to Siberia in bids to engage in Russian Revolution and expand its influence to the region via Manchuria and Mongolia. The masses triggered the uprising and confronted with the military forces though they unanimously supported the previous wars against external forces.

We can say that the rice incident had impact upo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s many ethnic Koreans living in Japan took part in the incident. Similar uprising took place in Mokpo and Taegu, albeit at small scales. Some 100 were apprehended in Seoul alone. The relation between the rice incident and the March 1st Movement will be the future study task but at least we can say as follows.

Without doubt, Terauchi Masatake, the first Joseon governor-general, carried out a unilateral ruling. Then Joseon people in their pursuit of independence were deeply impressed and recognized the power of the masses with the fact that the Japanese masses overthrew the cabinet led by the person in charge.

Following a rally organized by Korean students on Feb. 8, 1919 in Tokyo, Yom Sang-sup, a novelist, asserted in a contributing article for an official magazine of Tokyo University that "Despite difference of direction between the rice incident and the rally of the Korean students, they have the same nature of seriously demanding rights to live."

Regarding international factors, the Russian Revolution affected. Before 1919, the communism did not impact on Japan. Rather, antipathy on violent revolution remained prevalent. But as masses came to recognize the vulnerability of the power, they were equipped with fighting spirit to cope with the Japan's situation. Paris Peace Treaty's impact was more specific than the Russian Revolution. The international labor convention of the peace treaty's article 427 stipulates nine items for workers' right to organize, eight-hour work system, equal wage system and minimum income as "special and urgent" goals. Japanese workers demanded realization of the items, describing them as binding both the government and entrepreneurs.

The Jap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included nine of the 20 items. Newspapers also backed the international labor conventions. Given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had no choice but to stop the implementation of the article 17 of police law which had been the basis for crackdown on trade union activities and labor dispute.

Ⅲ. Japan's response to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1. Public opinion

March 1st Movement helped dramatically raise Japan's concern on Joseon. The Osaka Asahi Shimbun, which had the largest number of circulation in Japan at that time, had been dealing with Joseon issue as editorial subject only six times for six years from 1913 to 1918, one a year on average, but increased it to 11 in 1919 and eight for the following year. But major mass media were not sympathetic to Joseon's independence movement. They regarded the movement as a temporary one instigated by a limited number of religious leaders or foreign missionaries, rather than a nationwide independence drive. They claimed Joseon people's living standard had improved compared to the pre-annexation period and criticized the self-reliance theory for running counter to the history of Japan and Joseon with same ancestral roots.

A barrage of criticism occurred from April over the unilateral government policies. Critics called for naming of civilian governor-general, abolishment of military police system, setup of colonial parliament and press freedom. Even Kato Takaaki, president of the major opposition party, called for autonomous rule in 10 years.

The mass media stopped criticism and welcomed the 'cultural politics' as a new ruling pattern initiated by Saito Makoto who was inaugurated as a new governor-general in August with the rise of civilian-concurrent-military governor-general instead of the military one.

Kato Takaaki also defended his position by saying the 'autonomous rule' was meant to terminate the unilateral rule and satisfy the political desire of the Joseon people. Thereafter, those seeking independence were regarded as 'maverick Joseon people' and became the objective of antagonism and fear.

2. Yoshino Sakujo's opposition to assimilation policy

Yoshino Sakujo was representing minority intellectuals who criticized assimilation policies and refused to defame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defiance of prevailing

support for the cultural policies by mass media. As a professor at the law department of the Tokyo Imperial University he held a high social status and wielded a major influence on intellectuals as the steady contributor to the “Jungang Kongron” with the largest circulation at that time. He also maintained influence over unionized workers as a friend of trade union leader Suzuki Punji. Around the time of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ere were two organizations − Yeomyeonghoe for professors and Shininhoe for students − around Yoshino, as the core groups of the Taisho Democracy movement.

Yoshino was not opposed to the annexation of Korea. But he came to well understand the Koreans’ will toward independence through his contacts with a group of Korean students like Baek Nam-hun, Chang Duck-soo, Chang Duck-joon, Kim Woo-young, Choi Seung-man and Kim Joon-yon who were studying in Japan at that time. Yoshino was serving as chairman of the Tokyo University YMCA after returning from his study in Europe.

In 1916, Yoshino made a visit to Joseon, dropping at the headquarters of Cheondo religion and met with anti-Japan intellectuals Song Jin-woo and Kim Sung-soo. Upon returning home, he wrote an article about his visits to Manchuria and Joseon for June edition of “Jungang Kongron.” While heaping criticism over the military police politics, he asserted the assimilation policy was destined to failure given the fact that Joseon with a unique culture is a mentor of Japan’s civilization and thus would not be satisfied with the ``generous ruling.'' He went on to say that such assimilation policy was not feasible in view of the global trend.

He advised Japanese should not neglect the national sentiment of Joseon people while admonishing Joseon people to demand proper measures to find solution on Japan after first being equipped with capabilities. Government-general spokesman Komatsu Midori in a reputing article for the August edition of the magazine denounced Yoshino of supporting the independence though the poor were adapted to a rich family.

Yoshino forecast the occurrence of an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 some six months before the March 1st Movement when he expanded contacts with Korean students in Japan. He said, “The Joseon issue will become the most significant problem for the nation in the near future. We cannot be at ease despite immediate peace.''

Upon occurrence of March 1st Movement, Yeomyeonghoe invited eight Joseon students

to exchange opinions on March 9. The members also criticized the Government-General for it policies on Joseon. Many supporting Joseon students took part in, giving big hands. As in the past, Yoshino called on Japan to give up its assimilation policy while respecting the national sentiment of Joseon people. In particular, he called for equal press freedom for Joseon as in mainland Japan. The next year, he engaged in foundation of Dong-A Ilbo. There were many Joseon students who were familiar with Yoshino and later became executives of the newspaper.

Yoshino's real value was revealed at a time when the mass media were satisfied with the new governor-general Saito's 'cultural politics.' Yoshino met with Yeo Un-hyung, an influential figure of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who visited Japan in November, 1919, acclaiming him "as a rare person with respectable character." He said he felt unlikely to regard the independence fighters as a "group of mavericks." (January edition, 1920 of Juangang Kongron).

Yoshino, as he did four years ago, engaged in dispute with ranking officials of the Government-

General. Maruyama Tsurukichi belonging to police division of the government-general asserted it was natural for Joseon people to abide by the Japanese law, describing Yoshino's claim as equivalent to a call for giving up Joseon. In retort, Yoshino clarified that "recovering fatherland is the best principle for both Japan and Joseon," while citing the need for the nations to seek a unified alliance based on this recognition. (April, 1920 edition of Shinin)

But he stopped short of elaborating upon the alliance. With regard to the move for assimilation of Taiwan, Yoshino called on the Taiwanese people to be culturally independent first to become Japanese people. (July, 1920, edition of Taiwan Youth). It seems he might have thought of acknowledging Joseon as a country with its own cultural sovereignty.

Regarding the doctrine of assimilation under the cultural politics, Yoshino exactly understood that it took a discriminatory nature rather than an annexation to Japan in the real sense. According to Yoshino, Japan needed such assimilation policy due to the need for conventional national defense. For national defense, Japan needs security in Tsushima

Straits and Joseon is needed to secure the safety of the straits. Japan also needs Manchuria for the stability of Joseon. Japan attempted to expand its territories in this way. (January, 1921 edition of Puin Kongron). Yoshino forecast a 15-year-long war in 12 years after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order to apply brake on the limitless expansion doctrine, there was a need to revamp the policies on Joseon. Japan's destiny hinges on attitude of Joseon." (February, 1921 edition of Jungang Kongron). This was what Yoshino understood of Joseon in the aftermath of March 1st Movement.

Ⅳ. National movement in East Asia and Japan

Let's summarize Japan's response to May 4 Movement in China, two months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which will help understand more deeply on Japan's response to the March 1st Movement.

The mass media responded to the May 4 Movement similarly as they did to the March 1st Movement. In the Paris Peace Treaty forum, China called on Germany to immediately return the rights and interests in Shandong Province. And the mass media supported Japanese government's move to inherit the rights with the exception of certain forces who called for abandonment of such rights.

Many of the press raised the speculation that the May 4 Movement was instigated by either the United States or some Chinese strategists. Ushering into June, they supported Japan's policies toward China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nations while some underlined the need to back up the pro-Japanese regime in Beijing.

Most newspapers and broadcasting companies supported Hara cabinet's foreign policies of stopping forays into the continent as seen in the World War I and sought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nations while giving up Japan's privileged rights.

The May 4 Movement was not supposed to merely call for return of Shandong rights and abolition of 21 requests. The movement called on Japan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for Joseon and Taiwan and carry out the national self-reliance movement. But such

requests were rebuff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ass media.

Yoshino Sakujo, defying the mainstream, became to have deep interests in the May 4 Movement while engaging in research of China's revolutionary history jointly with a group of reform-minded young leaders belonging to Sunwen faction. He wrote an article to the Jungangkongron, saying the movement was an attack against pro-Japanese, officials and military brackets alongside Japan's officials and military leaders. He went on to say that the bilateral relations will become friendly only after such offensives against them succeed. Based on this principle, Yoshino organized exchanges between leaders of student and labor movements in Tokyo, Kyoto and Kobe by inviting six professors and students of Beijing University in May the next year.

Yoshino stopped short of calling for immediate independence of Joseon and prompt abandonment of Mongolia. But a magazine "Tongyangshinbo" demanded Japan give up all rights and interests. With Miura Tetsutaro becoming the president and publish of the magazine in 1912, the magazine called on Japan to establish parliamentary politics via introduction of popular votes alongside renouncing the imperialism. Preferring the "small-Japan" doctrine rather than the "great-Japan" one, the magazine called for abandonment of Manchuria, in particular. In the midst of the World War I, the magazine cited the need for independent Taiwan and renouncement of 21 requests. Miura in other magazines claimed Joseon should remain independent.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occurred, the magazine asserted the Joseon people would never stop their resistance, unsatisfied with any sort of Japan's generous policies, (May 15) calling on Japan to take steps to advance independence of Joseon. (Aug. 5). It also demanded Japan give up all colonies including Manchuria in articles titled "resolve to discard all privileges" "illumination of a great Japan" (July 23-Aug. 13) before the Washington meeting in 1921. The magazine underlined the need for Japan's renouncing the vested rights in order to buy the trusts from Joseon and Chinese people which it claimed will help Japan to fully utilize their resources and markets, in addition to the effect of national defense and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e magazine's assertion was a rare one at that time in Japan. But the magazine was for mainly business people, not for intellectuals like "Jungangkongron." Its claim for

discarding the imperialism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attained a support from the business sector. The Chaebol-ruled business sector was not fully dominated by the family-owned conglomerates. The magazine survived the 15-year-long war, while Mirua’s successor Ishibashi Tanzan became the 2nd president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during the post-war period, which shows the viability of Japan’s capitalism free from monotonous stiffness.

Ⅴ. Epilog

March 1st Movement was a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calling on Japan to change its policies on Asia. Both the movement side and regime side of the Taisho Democracy movement which took place in Japan failed to cope with the March 1st Movement. Yoshino Sakujo and “Tongyanggyeongjeshinbo” from the movement side called for shift of policies but they failed to correct their previous demands for imperialism externally and constitutionalism internally. The regime side could not give up the assimilation policy though they adjusted the unilateral rulings.

Because of this, a massacre of Joseon people occurred during the Kwandong earthquake in four years later and with the military in 11 years alter triggering a 15-year war starting with the Manchuria Incident.

Woodrow Wilson's Internationalism
: Then and Now (1919-2009)

▌Thomas J. Knock ▐

Woodrow Wilson's Internationalism : Then and Now(1919-2009)

Thomas J. Knock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In early 1919, the Irish playwright George Bernard Shaw wrote a little book entitled Peace Conference Hints. Near the end of the treatise, he observed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for the moment, Europeans in general regarded him as "our Wilson." Alas, he added, "American democracy… has accidentally produced a greater individual success than it is capable of appreciating."[1] As Shaw wrote those sentences, the esteem in which Europeans apparently held the "stern covenanter" was already starting to fade, and the opinion of his fellow citizens would never improve much. Even today, although he occupies a secure position within the pantheon of great presidents (and has an "ism" connected to his name), Woodrow Wilson is neither fondly remembered nor very well understood. Nonetheless, since the 1920s, he has continued to compel the attention of journalists and pundits and of scholars and practitioners of American foreign policy, at least cyclically and for a wide range of reasons. Three illustrations may suffice. As World War II drew to a close, for example, several biographies of Wilson and monographs on the League of Nations appeared as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ce again became a crucial concern; then, intermittently throughout the Cold War, historians and political scientists debated whether containment and Cold War globalism represented the triumph or the negation of Wilsonian principles; and finally, just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when President George Herbert Walker Bush prepared to eject Saddam Hussein from Kuwait and called for a "New World Order," references to Wilson and his contemporary applicability became commonplace (for the while).

We are now several years into the latest of such cycles, and this one may prove to be the most significant so far. It began modestly, actually, in part as a way of

1) George Bernard Shaw, *Peace Conference Hints* (London, 1919), 49-50.

taking inventory of the good fortune that the United States seemed to have come into at the dawn of the new millennium and in part in the light of serious issues left unresolved during the post –Cold War decade. For instance, Robert McNamara and James Blight, in *Wilson's Ghost* (2001), held out as "a historical mirror" the tragedy of the 28th president as a parable for our own time. The subtitle of their book is *Reducing the Risk of Conflict, Killing, and Catastrophe in the 21st Century*. Thus McNamara and Blight issued a summons for sweeping reductions in the world's nuclear arsenals; an end to unilateral interventions of any kind, for any reason, on the part of great powers; and for what they call "a bottom-up reinvestment in the United Nations." Then there is Michael Mandelbaum's *The Ideas That Conquered the World: Peace, Democracy, and Free Marke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which opens with a chapter entitled "Wilson Victorious" and celebrates the ostensible universal adoption of "restraints on armaments, popular government, and the unimpeded flow of commerce across borders."[2)]

The cycle of regular, useful references to Wilson with respect to current concerns continued after the attack on the World Trade Center. To cite but two examples, G. John Ikenberry's "America's Imperial Mission," among several related pieces in the October 2002 issue of *Foreign Affairs*, took on a Wilsonian temper in an indictment of the Bush administration for its stress on unipolarity, and for its "belief that American sovereignty is politically sacred" and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operate in the world [strictly] on its own terms." On the other hand, Robert Kagan, in "Power and Weakness" (a controversial essay, in the Summer 2002 issue of *Policy Review* and later expanded into a short book), defended the United States in its increasing unilateralism. Kagan also disdains the European Community's conversion to "neo-Wilsonianism," as manifested in the EC's apparent repudiation of the concept of the balance of power and of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3)]

---

2) Robert S. McNamara and James G. Blight, *Wilson's Ghost: Reducing the Risk of Conflict, Killing, and Catastrophe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2001), 136, 152-167, and 169-215; Michael Mandelbaum, *The Ideas That Conquered the World: Peace, Democracy, and Free Marke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2002), pp. 17-44.

3) G. John Ikenberry, "America's Imperial Mission,"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02),

Few could have anticipated the extent to which invocations (if not quite sustained analyses) of Wilson would multiply, however, but for the events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set in motion in early 2003. Thereon, commentators began to allude to Wilson, or to quote him, in defense of the war in Iraq and in praise of President Bush for having declared "liberty for the Iraqi people" as a motivation behind the war. In March 2003, Lawrence F. Kaplan of *The New Republic* (which endorsed the war) asserted that Bush is "the most Wilsonian president since Wilson himself," while Michael Barone, in the *Wall Street Journal*, likened Bush's second Inaugural address to the Fourteen Points. At the same time, some others have cast doubt on the comparisons. In a post-Inaugural assessment in the *New York Times*, David E. Sanger said that the President Bush had left "Wilson's idealism in the dust" and suggested that phrases such as "the expansion of freedom" and "the ultimate goal of ending tyranny in our world" were in fact a convenient "retroactive rationale for the war in Iraq, where Americans were originally told that weapons stocks were the primary justification for war." Then, too, yet another editor at *The New Republic*, John B. Judis, has characterized Bush as "a president deeply ignorant of the past and what it teaches" and his administration as "deeply hostile to the tradition of Wilson."[4)]

All of the foregoing meditations on American foreign policy through Wilsonian lenses have stimulating observations to make, and they testify to McNamara's perception that "we are [still] being pursued by Wilson's ghost."[5)] And, once again, they illustrate the protean nature of "Wilsonianism." Yet, a persistent problem inheres in this term; because it used so indiscriminately, it is in danger of being stripped of any consistent meaning or historical context. Thus, Jonathan Schell has written about "nuclear Wilsonianism." Francis Fukuyama, in his latest book, cites

---

pp. 44-60; Robert Kagan, "Power and Weakness," *Policy Review* (June/July 2002), pp. 1-21, and *Of Paradise and Power, American and Europe in the New World Order* (New York, 2003).

4) Lawrence F. Kaplan, "Regime Change," *The New Republic* (March 3, 2003) pp. 21-22; Michael Barone, *The Wall Street Journal*, Jan. 19, 2005; David E. Sanger, *The New York Times*, Jan. 23, 2005; John B. Judis, *The Folly of Empire, What George W. Bush Could Learn from Theodore Roosevelt and Woodrow Wilson* (New York, 2004), pp. 7 and 9.

5) McNamara and Blight, *Wilson's Ghost*, p. 9.

the need for a "realistic Wilsonianism." Walter Russell Mead coins the term "Revival Wilsonianism" and even refers to "Wilsonianism on steroids." Virtually all of them decline to ask truly searching questions about both the larger subject and the historical Wilson culminating in the year 1919, or to engage that crucial element of "Wilsonianism" to which Wilson himself attached the supreme importance.[6] To be sure, Woodrow Wilson was a champion of free trade, and no chief executive has ever communicated more effectively to the peoples of the world the ideals of democracy. But whatever his claim to historical greatness, in the end it rests upon his having set in motion what J. William Fulbright once characterized as "the one great new idea of [the 20th] centur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idea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permanent processes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7] And so, let us, explore what *Wilson* had to say about these matters. For the things that worried him in 1919, worry us, too, in 2009—questions about preponderating armaments and the avoidance of war, about sovereignty as it relates to un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and, one way or another, the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disposition toward it.

Whereas the controversial mutual guarantee of territorial integrity originated with a proposal that Wilson sketched out in December 1914, the League of Nations had many authors, and Wilson drew most of his ideas from a new internationalist movement that had come into being in the United States in 1915-16, during its period of neutrality in the war. Two divergent aggregations of activists—"progressive

---

6) Some of the authors have resurrected the term in defense of the putative motive behind the war while others have done so as a way of condemning it and regretting the broader failure that the war has come to represent. For example see David M. Kennedy, "What 'W' Owes to 'WW'," *Atlantic Monthly* (March 2005), 36-40; John Lewis Gaddis, *Surprise, Securit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Cambridge, MA, 2004); Francis Fukuyama, *America at the Crossroads: Democracy, Power, and the Neoconservative Legacy* (New Haven, CN, 2006); and Walter Russell Mead, *Power, Terror, Peace, and War: America's Grand Strategy in a World at Risk* (New York, 2004). For a convenient overview of some or the new literature, see Lloyd E. Ambrosius, "Woodrow Wilson and George W. Bush: Historical Comparisons of Ends and Means in Their Foreign Policies," in *Diplomatic History* (June 2006), 509-543. See also, Erez Manela, "A Man Ahead of his Time? Wilsonian Globalism and the Doctrine of Preemption," *International Journal* (August 2005), 1115-24.

7) Fulbright quoted in Randall Bennett Woods, *Fulbright, A Biography* (New York, 1995), p. 647.

internationalists" and "conservative internationalists"—composed this movement. Thus, in the struggle of 1919, two competing approaches to internationalism were at stake. As Gilbert Hitchcock, the Democratic leader in the Senate, said at the start of the parliamentary debate: "Internationalism has come, and we must choose what form the internationalism is to take."[8] No one, before or since, ever put the matter more succinctly. And that is how participants at the time understood it—as a struggle between Wilson's and a more conservative internationalism (as represented by the Republican Henry Cabot Lodge). The contention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internationalists, not incidentally, was compounded by their conflicting, respective visions for the future of American society as well.

Both Wilson and the progressive internationalists (that is, liberal reformers and socialists active in such organizations as the Woman's Peace Party, the American Union Against Militarism, along with many Democrats) envisioned the League of Nations as a system in which the great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ould prosper by exercising restraint; it would lessen the chances of another catastrophic war because it would provid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or conciliation, accords to reduce or limit armaments, and collective security as against external aggression, enforced by both economic and military sanctions. Conservative internationalists, such as Henry Cabot Lodge and William Howard Taft, looked upon these its provisions, probably correctly, as diminution of national sovereignty. Whereas they could accept a world parliament to make appropriate changes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to settle *certain kinds* of disputes, most conservative internationalists also believed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build up its military and reserve the right to undertake independent coercive action at will. Thus they not only balked at the League's provisions for collective sanctions, but also feared that membership might restrict independent, unilateral military action.[9]

---

8) See *Congressional Record*, 65th Cong., 3rd sess. (Feb 27, 1919), pp. 4414-18, for the Senate debate during which Hitchcock made this statement.

9) For an extended discussion of the two groups, see Thomas J. Knock, *To End All Wars:*

In 1916 Wilson pulled together a remarkable coalition of Democrats, independent progressives, and socialists which helped him to win a close election to a second term. He accomplished this feat in part by pushing through Congress an impressive array of social justice legislation—the first federal eight-hour day law (for railroad workers) and the first federal restrictions on child labor, and an income tax that placed almost the entire burden on corporations and the wealthy. The coalition was also grounded in progressive internationalist foreign policy, for Wilson ran for reelection on the slogan, "He Kept Us Out of War" and also made several campaign speeches about a future association of nations. The socialist Max Eastman compared Wilson to Lincoln and predicted he would win because "he has attacked the problem of eliminating war, and he has not succumbed to the epidemic of militarism." And the progressive Amos Pinchot interpreted the significance of Wilson's victory this way: "[T]he President we reelected has raised a flag that no other president has thought or perhaps dared to raise. It is the flag of internationalism." Thus the League idea began to take on a partisan complexion, especially for politicians like Theodore Roosevelt and Henry Cabot Lodge.[10)]

Soon after his triumph at the polls, Wilson decided on a bold stroke–by attempting to end the war through independent mediation; on January 22, 1917, he went before the Senate and called for "peace without victory." In this progressive internationalist manifesto, for the first time publicly, Wilson launched a penetrating critique of European imperialism, militarism, and balance-of-power politics–the root causes of the war, he said. In their stead, he held out the promise of a "community of nations"–a new world order sustained by procedures for the arbitration of disputes between nations, a dramatic reduction of armaments, self-determination, and a collective security. The instrumentality of this sweeping program was to be, of course, the League. With the "Peace without Victory" address, Wilson began his ascent to a

---

Woodrow Wilson and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New York, 1992), 50-69; see also Ruhl J. Bartlett, *The League to Enforce Peace* (Chapel Hill, NC, 1944), pp. 40-62.

10) These matters are discussed in detail in Knock, *To End All Wars*, 85-104; and in William Widenor, *Henry Cabot Lodge and the Search for An American Foreign Policy* (Berkeley, CA, 1981), pp. 240-43.

position of enduring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modern world politics.[11]

* * * * *

Perhaps a word about how he thought the collective guarantees might operate is in order at this point. Wilson realized that such a fundamental restructuring of international relations would take many years. His view was that "the League must grow and not be made," by stages, on a case-by-case basis. One should begin with simple covenants—for example, the obligation to submit disputes to arbitration. Then, as he explained to Ambassador Jusserand of France, "there would thus be created, little by little, precedents that would break the habit of having recourse to arms." And so, "in the very process of carrying out these covenants… a machinery and practice of cooperation would naturally spring up which would… produce… a regularly constituted and employed concert of nations." It was a matter of cultivating the habit, therefore. (As Lori Fisler Damrosch of Columbia University once said: "Small achievements will lead to greater ones, and to more of them, and eventually to patterns that will reflect underlying principles.")[12]

As for military sanctions, Wilson did not believe they would come into play very often in the postwar period, for several reasons. The implicit restrictions on precipitate unilateral action, the deterrent in the threat of collective force, the "cooling-off" provisions in the arbitration features, and disarmament *together* would eliminate most potential problems from the start. This was how he sometimes defended and explained Article X (the collective security provision) on his western tour, incidentally—that is, by pointing out that *two-thirds* of the Covenant's provisions dealt with arbitration and that war, in all cases, was to be the *last* resort.)

---

11) For the complete text, see Arthur S. Link *et al*. (eds.) *The Papers of Woodrow Wilson*, 69 vols. (Princeton, NJ, 1966-1996), XL, 533-539 (hereinafter cited as *PWW*); see also Knock, *To End All Wars*, 111-115.

12) The quotations, respectively, are from Wilson to Edward Mandell House, March 22, 1918, *PWW*, XLVII, p. 105; J. J. Jusserand to French Foreign Ministry, March 7, 1917, in *PWW*, XLI, p. 356; F. L. Polk to Jusserand, Aug. 3, 1917, *PWW*, XLIII, p. 362. The Damrosch quotation is from a paper delivered at a Bard College conference, "Wilsonianism Resurgent," November 1993.

If the League could not prevent conflict in *every* instance, it would still bring about a measure of tranquility for a few years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rationality and enlightened self-interest—to see whether collective security, in tandem with arbitration and disarmament, stood a reasonable chance of acceptance in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ether it could really work in actual practice was a good question. As Wilson said to Jusserand, "It would be an experience to try it." As he said to the peacemakers at Paris, "if the delegates…. decided it *must* succeed, it *would* succeed."[13] The conservative internationalists of 1919 time did not agree.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war ended—in particular, the coincidence of the German appeal for an armistice just as the congressional campaign was heating up—compounded the larger political problem. The Republican National Chairman decried the "the socialistic tendencies of the present government." Lodge railed against Wilson and the "Bolsheviks among his advisors" while worrying that he would make "peace at any price." And Theodore Roosevelt declared, "To substitute internationalism for nationalism means to do away with patriotism." This, then, was the intensely ideological and partisan atmosphere in which the great struggle was about to unfold. But Wilson was also having trouble with some progressive internationalists because of his regrettable acquiescence in the suppression of civil liberties at home during the war; once the punitive features of the Treaty of Versailles became apparent, many of them began to oppose the League in the conviction that it could only serve reactionary interests.[14]

Conservative internationalists nonetheless accurately discerned in the President the soul of a progressive internationalist. Few of the Covenant's Republican opponents were isolationists, strictly speaking. But most of them believed that Wilson had consigned (or would consign) too many vital national interests to the will of an international authority. "[S]ome of our sovereignty would be surrendered," he had frankly told thirty-four members of the House and Senate, in February 1919, during

13) Hankey's notes of a Meeting of the Council of Ten, Jan. 27, 1919, *PWW*, LIV, 296 (emphasis added).

14) *Ibid*., 167-69, 176, 180, 184-89, and 252-56.

a four-hour meeting in the White House. Wilson did explain that a unanimous vote on the Executive Council was required before economic sanctions or military force could be set in motion. Yet he still emphasized that the League would fail "if the objection of sovereignty [is] insisted upon by the Senate." The United States, he steadfastly maintained, "would willingly relinquish some of its sovereignty… for the good of the world."[15]

On his speaking tour to build up public support for the treaty and the League, he addressed the question this way, as it related to the "Lodge Reservations" and concerns over both Article X and arbitration, and therefore to the hindrance to unilateral action that League membership implied: "The only way in which you can have impartial determinations in this world," he said in Billings, Montana, "is by consenting to something you do not *want* to do." The corollary to this, then, was to refrain from something that you want to do. There might be times "when we lose in court," he continued, '[and] we will take our medicine."[16]

The Republicans' worries did not end there. Their fourteen reservations to the treaty were wide-ranging and designed to impose a conservative construction on Wilson's internationalism. Some of these reservations would make arbitration voluntary, for instance; others affirmed the right to increase the size of the armed forces without consulting the League. One reservation asserted the right to continue trading with a Covenant-breaking state in the face of a League boycott, and another cast doubt on whether the United States would even contribute to the League's expenses. Taken together, the Lodge reservations constituted a frontal assault.[17]

---

15) See the account of the meeting printed in *PWW*, LV, 268-76. In October 1916, during his reelection campaign, he said to an audience in Chicago, "There is coming a time, unless I am very much mistaken, when nation shall agree with nation that the rights of humanity are greater than the rights of sovereignty." (See *PWW*, XXXVIII, 488.)

16) An address at Billings, Montana, Sept. 11, 1919, *PWW*, LXIII, 177.

17) For a discussion, see Knock, *To End All Wars*, pp. 258-59 and 265-67; Lloyd Ambrosius, *Woodrow Wilson and the American Diplomatic Tradition: The Treaty fight in Perspective* (New York, 1987), 172-175 and 180-210; John Milton Cooper, Jr., *Breaking the Heart of the World: Woodrow Wilson and the Fight for the League of Nations* (New York, 2001), 123-157; and Widenor, *Henry Cabot Lodge*, 316-324.

In a letter published just before the Senate finally rejected the treaty, Wilson wrote: "The imperialist wants no League of Nations, but if… there is to be one, he is interested to secure one suited for his own purposes." For Wilson, then, international security involved not only responsibilities, but also restraints, or "a renunciation of wrong-doing on the part of powerful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us Article X constituted "a bulwark, the only bulwark… against the forces of imperialism and reaction." That is probably the main reason he would not compromise with the Republicans. For if he permitted the United States to go in under the reservations, the meaning of the League would indeed be clear. It would become a Lodgian league, an imperialist league, a reactionary league. And perhaps no league at all would be better than one that would "venture to take part in reviving the old order."[18)]

When the United Nations Charter was signed in the summer of 1945, President Harry Truman declared that Wilson at last had been vindicated. Yet, in many respects, the United States would establish an *anti*-Wilsonian pattern to its internationalism, a pattern that did ***not*** begin with George W. Bush. Wilson's views had set him at odds not only with his conservative contemporaries, but also with the "realists" of the Cold War era sought to establish a new balance of power through the doctrine of "containment" and constructed the American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ld War intellectuals such as George Kennan and Henry Kissinger repeatedly denied kinship with Wilson. Kennan, for instance, reproached him for his "inordinate preoccupation with arbitration… efforts toward world disarmament… and illusions about the possibilities of achieving a peaceful world… [through] the League of Nations or the United Nations."[19)] If Wilson was the father of American

18) Wilson to Gilbert Hitchcock, March 8, 1920, *PWW*, LXV, 67-71.

19) Kennan, *Memoirs, 1950-1972* (Boston, 1972), p. 71; See also, Kennan's chapter, "World War I," in *American Diplomacy, 1900-1950* (Chicago, 1951; expanded edition, 1984), pp. 57-58 and 63-64. Robert E. Osgood, a leading realist among political scientists, sounded the same note: "[H]ow poorly Wilson's conception of collective security fits contemporary American practice," he wrote in 1957, "and how badly the prevailing American conception of collective security is distorted by efforts to reconcile the two." See "Woodrow Wilson, Collective Security, and the Lessons of History," *Confluence* (Winter 1957), 341-54; and Osgood's

internationalism, then a fair number of his children were, to put it politely, illegitimate. What triumphed in the postwar period was at best a mutant form of Wilson's internationalism. For example, Franklin Roosevelt's concept of the United Nations, based on the "Four Policemen," and the U. N. charter embraced most of the Lodge reservations of 1919. Moreover, American foreign policy makers for the most part spurned the United Nations' provisions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and reserved the right to undertake unilateral military interventions at will, and frequently in direct violation of the U. N.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20] Then, in the 1980s, as Third World countries began to assert themselves, President Reagan dubbed the United Nations "anti-American." In the spirit of the Lodge reservations, the Reagan White House withheld financial support and even hinted that it might withdraw from the organization. "[C]ompliance with the Charter's principles of nonintervention and the non-use of force," affirmed U. N. Ambassador Jeanne Kirkpatrick, "are hardly a sound basis for either U.S. foreign policy or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Nor did the Reagan administration's open discussion about the feasibility of "limited" nuclear war suggest that Wilsonian progressive internationalism was alive and well. It was that kind of talk caused George Kennan then to wonder where it all might end and to declare that war among the great powers would somehow have to be ruled out; it also lead him to a radical reevaluation of Wilson as "ahead of any other statesman of his time."[21]

Upon the liquidation of the Cold War, Wilson began to enjoy a tentative vogue. But the United States remained ambivalent about the U.N.'s peace-keeping missions

---

classic, *Ideals and Self-Interest in American Foreign Relations: The Great Transformation of the Twentieth Century* (Chicago, 1953). For an updated, version of the argument, see Robert W. Tucker, "The Triumph of Wilsonianism?" *World Policy Journal* (Winter 1993-94), pp. 83-99.

20) This argument is developed in Thomas J. Knock, "Kennan versus Wilson," in John Milton Cooper, Jr. and Charles E. Neu (eds.), *The Wilson Era, Essays in Honor of Arthur S. Link* (Arlington Hts., IL, 1991), pp. 302-26 (esp., 316-17).

21) See Kirkpatrick, "Law and Reciprocity," quoted in Daniel Patrick Moynihan, *On the Law of Nations* (Cambridge, MA, 1990), 133; and Kennan, *The Nuclear Delusion: Soviet-American Relations in the Atomic Age* (New York, 1982), xxvii and 246; and Kennan, "Comments on a Paper Entitled 'Kennan versus Wilson' by Professor Thomas J. Knock," in Cooper and Neu, *The Wilson Era*, p. 330.

and the application of multilateral military force, invoking the U.N.'s authority in Kuwait in 1990-91 and then virtually ignoring it in Kosovo in 1998-99. And, when Bill Clinton left office, the United States still accounted for half of the U.N.'s arrears of $3.24 billion. As for those advising President George W. Bush, Condoleeza Rice counseled that the administration "proceed from the firm ground of the *national* interest and not from the interest of an *illusory*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was an outlook that anticipated the rejection of the Kyoto Accords and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and the quashing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y of which might have served creatively as one of those Wilsonian "small steps"), not to mention the promulgation of the doctrine of "preemptive" war and the appointment of John Bolton as ambassador to the U. N.[22)]

It *may* be a good sign that Wilson is commanding attention anew, even if one cannot always find comfort in some of the reasons why. For a growing recognition seems to be taking hold that any number of critical problems besetting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simply can not be solved except through the concerted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Wilson may have had a point when he said it on the western tour, "[O]nly those who are ignorant of the world can believe that any nation, even so great a nation as the United States, can stand alone and play a single part in the history of mankind." He also once remarked of his Herculean labors, "I am now playing for 100 years hence."[23)] Indeed, there is not a single tenet of *authentic* Wilsonian internationalism that does not resonate in the 21st Century—from the proposal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among nations and for reducing the world's nuclear arsenals, to peacekeeping, multilateral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coincident requirement of substituting

---

22) See McNamara and Blight, *Wilson's Ghost*, pp. 133-35; Michael Hirsh, "Bush and the World,"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02), pp. 21 and 32-35, and his "Calling All Regio-Cops,"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00), pp. 4-5; and Condolee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0). See also, Judis, *The Folly of Empire*, pp. 156-162 (on Clinton) and 165-79 and 204-212 (on George W. Bush).

23) Wilson quotation from his address in St. Louis, Sept. 5, 1919, *PWW*, LXIII, 43; Diary of Henry F. Ashurst, Oct. 14, 1918, *PWW*, LI, 338-340.

nationalism with ungrudging internationalism, at least from time to time.

To his credit, he did not lay claim to ultimate wisdom. Even so, for the enduring relevance of his vision, Woodrow Wilson remains unique among modern presidents. But let us hope that that distinction will not obtain very much longer. For those "100 years hence" for which he said he was playing have nearly run out. And we are confronted now by a question that none other than George Kennan once asked on Armistice Day in 1984, as he was entering the decidedly Wilsonian stage of his career. "How fine it would be if it could be said of us that we had pondered these ominous lessons and had set about, in all humility and seriousness, to base our national conduct on a resolve to avoid the bewilderments that drove our fathers and grandfathers to these follies," Kennan exclaimed, reflecting upon both world wars. "If civilization is to survive, these perceptions must come, ultimately, to the governments of all the great nations. The question is only: will they come soon enough? The time given to us to make this change is not unlimited. It may be smaller than many of us suppose."[24)]

24) Kennan, "The War to End War," *New York Times*, Nov. 11, 1984, reprinted in Kennan, *At Century's Ending: Reflections, 1982-1995* (New York, 1996), 19.

우드로 윌슨의 국제주의 : 과거와 현재(1919-2009)

토마스 J. 녹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

1919년 초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평화 회의의 암시"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 말미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을 평가하면서 유럽인이 그를 "우리들의 윌슨"으로 간주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실제 역량 이상의 큰 성공을 거두었다."[1]고 덧붙였다. 버나드 쇼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이 "엄격한 조약주의자" 윌슨에 대한 유럽인의 존경심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미국인들의 그에 대한 평가도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우드로 윌슨은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반열에 올라 그 지위가 확고하지만(그의 이름을 따라 윌슨주의라는 말이 생겼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애정을 갖고 기억되지도 잘 이해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1920년대 이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여러 이유에서 언론인, 식자층, 학자 그리고 미국 외교정책 집행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국제기구 설립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다시 떠오르는 시기에 여러 편의 윌슨 전기와 국제연맹에 대한 단행본, 논문들이 등장했다. 또 냉전시대 내내 역사가와 정치학자들은 봉쇄 정책과 냉전 체제가 윌슨 원칙의 승리를 반영하는 지 아니면 부정하는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쿠웨이트에서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려고 준비하고 "신국제질서"를 주창할 때, 윌슨의 언급과 윌슨에 대한 참고가 (잠시나마) 꽤 유행하였다.

우리는 현재 윌슨이 이처럼 다시 부각되는 가장 최근 주기에 들어선지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와있는데, 이번 주기는 과거의 어떤 주기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 윌슨의 부각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의 출발 시점에서 미국이 물려받은 훌륭한 유산을 승계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시작된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탈냉전 후 10년간 해결하지 못한 심각한 현안을 고려하면서 출발했다. 예를 들어 로버트 맥나마라와 제임스 브라이트는 공저 "윌슨의 유령(2001)" 에서 우리 시대를 위한 예화로 윌슨대통령의 비운을 하나의 역사적 거울처럼 보여주었다.

---

1) George Bernard Shaw, *Peace Conference Hints* (London, 1919), 49-50.

이 책의 부제는 "21세기 갈등, 살육, 대재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맥나마라와 브라이트는 부제가 의미하듯 세계 핵무기의 대량 감축, 강대국에 의한 일방적 개입의 중단 그리고 이른바 "유엔에서의 밑으로부터의 재정비"[2]를 주장했다. 또 다른 저서 마이클 만델바움의 "세계를 정복한 사상들: 21세기의 평화,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는 첫 장을 "승리자 윌슨"으로 시작하면서 범세계적 "군축, 민주 정부, 국경을 초월한 무역 거래 확대"[3]의 수용을 높이 평가했다.

윌슨을 현안과 관련하여 원용하는 일은 세계무역센터 공격 후에도 계속됐다. "포린 어페어스" 2002년 10월 호에 실린 몇몇 관련 기고문 중 두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 존 아이켄베리는 〈미국 최고의 사명〉이라는 글에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미국 주권의 정치적 신성론, 그리고 "미국은 엄격하게 자신의 잣대로 국제무대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윌슨의 입장에서 고발하고 있다.

한편 로버트 케이건은 "힘과 나약함"(폴리시 리뷰 2002년 여름 호에 실린, 논란거리가 된 논문으로 나중에 보완해서 단행본으로 발간됐다.)에서 점차 확대되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옹호했다. 케이건은 동시에 유럽공동체가 세력 균형 개념과 국제관계에서의 무력 사용을 명백하게 거부하고 신윌슨주의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4]

2003년 초 부시 행정부에서 일으킨 사건들을 논외로 한다면, 윌슨이 소망했던 것이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는가를 (오래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해도)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 평론가들은 이라크 전쟁을 옹호하고 전쟁의 동기가 이라크 국민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선언한 부시 대통령을 칭송하면서 윌슨과 연관 짓거나 윌슨의 언행을 인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로렌스 카플란은 2003년 3월호의 "New Republic"에 실은 글에서 부시 대통령이 "윌슨 이래 가장 윌슨다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마이클 배런은 월 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부시의 재선 취임사를 윌슨의 14개조와 비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비교에 의문을 던졌다. 데이비드 쌩어는 뉴욕타임즈에 실린 취임 후의 평가에서 부시 대통령이 윌슨의 이상주의를 옷장 속

2) Robert S. McNamara and James G. Blight, *Wilson's Ghost*: *Reducing the Risk of Conflict, Killing, and Catastrophe in the 21st Century*(New York,2001),136,152-167,and169-215.

3) Michael Mandelbaum, *The Ideas That Conquered the World: Peace, Democracy, and Free Marketsin the Twenty-first Century*(New York,2002), pp.17-44.

4) G. John Ikenberry, "America's Imperial Mission," *Foreign Affairs*(September/October2002), pp. 44-60; Robert Kagan, "Power and Weakness," *Policy Review*(June/July2002), pp. 1-21, and *Of Paradise and Power*, *American and Europe in the New World Order*(New York, 2003).

에 처박아놓고 그가 말하는 "자유의 확대", "이 세계에서 전제주의를 종식시키는 궁극적 목적"은 실제로는 "미국의 무기 재고가 전쟁의 주된 명분이라고 주장하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정당화시키려는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New Republic"의 또 다른 편집인 존 B. 주디스는 부시가 "과거와 과거가 주는 교훈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대통령"이며 그의 행정부는 "윌슨의 전통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라고 평가했다.[5]

윌슨의 렌즈로 바라보는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앞의 견해들 모두 흥미 있는 관측을 함으로써 "우리는 아직까지 윌슨의 유령에 이끌리고 있다."라는 맥나마라의 판단을 반증하고 있다.[6] 이런 관측은 다시 한 번 윌슨주의가 의미하는 변화무쌍한 측면을 보여준다. 윌슨주의라는 용어는 의미 있는 역사적 측면이 무시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그래서 조나단 쉘은 "핵 윌슨주의"에 대해 썼고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최근 저서에서 "현실적 윌슨주의" 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월터 러셀 미드는 "재흥 윌슨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심지어 "스테로이드(강화) 윌슨주의"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그 어느 용어도 윌슨주의가 내포하는 더 큰 주제와 1919년 정점에 올랐던 역사적 윌슨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연구의 거의 전부가 윌슨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윌슨주의의 핵심 요소에 대해 취급하지 않았다. (일부 저자는 다수가 수용하는 전쟁의 명분을 옹호하기 위해 윌슨주의를 거론하고 또 일부는 윌슨주의를 비난하고 전쟁으로 드러난 포괄적 실패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이 말을 되살려 냈다.[7] 분명 우드로 윌슨은 자유 무역의 챔피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대통령도 전 세계 국민에게 민주주의의 이상을 그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윌슨의 역사적 위대성은 그가 처음 시작한 일 때문인데 윌리엄 풀브라이트는 그가 했

---

5) Lawrence F. Kaplan, "Regime Change," *The New Republic* (March 3, 2003) pp. 21-22; Michael Barone, *The Wall Street Journal*, Jan. 19, 2005; David E. Sanger, *The New York Times*, Jan. 23, 2005; John B. Judis, *The Folly of Empire, What George W. Bush Could Learn from Theodore Roosevelt and Woodrow Wilson* (New York, 2004), pp. 7 and 9.

6) McNamara and Blight, *Wilson's Ghost*, p. 9.

7) For example, see David M. Kennedy, "What 'W' Owes to 'WW'," *Atlantic Monthly* (March 2005), 36-40; John Lewis Gaddis, *Surprise, Securit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Cambridge, MA, 2004); Francis Fukuyama, *America at the Crossroads: Democracy, Power, and the Neoconservative Legacy* (New Haven, CN, 2006); and Walter Russell Mead, Power, *Terror, Peace, and War: America's Grand Strategy in a World at Risk* (New York, 2004). For a convenient overview of the new literature, see Lloyd E. Ambrosius, "Woodrow Wilson and George W. Bush: Historical Comparisons of Ends and Means in Their Foreign Policies," in *Diplomatic History* (June 2006), 509-543. See also, Erez Manela, "A Man Ahead of his Time? Wilsonian Globalism and the Doctrine of Preemption," *International Journal* (August 2005), 1115-24.

던 일을 "국제관계에서 20세기의 위대한 신구상,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항구적 절차를 갖춘 국제조직에 대한 구상"이라고 특징 지웠다.[8] 이제 우리는 이런 구상에 대해 윌슨이 말하고자 했던 것을 찾아가 보자. 1919년 윌슨을 괴롭혔던 문제는 똑같이 2009년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로서, 일방적 군비 증강과 전쟁 회피의 문제, 주권에 대한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즉, UN의 장래와 미국의 입장이 이에 해당된다.

논란을 일으킨 영토의 보전에 대한 상호 보장은 윌슨이 1914년 12월에 내놓은 제안에서 연유하지만 국제연맹은 여러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윌슨의 이념 대부분은 1915년과 1916년에 걸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국제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 운동은 두 개의 상이한 활동가 그룹– "진보적 국제주의자"와 "보수적 국제주의자"–들이 주도했다. 이로 인해 1919년의 투쟁에서 국제주의를 놓고 두 방법론이 경쟁 대립했다. 민주당의 상원지도자 길버트 히치콕은 의회의 논쟁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와 관련해서 "국제주의가 등장했으며 우리는 어떤 형태의 국제주의를 채택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9] 지금까지 이 문제를 그보다 더 간결하게 집약해 표현한 사람은 없었다. 당시의 토론 참가자들이 이 문제를 윌슨의 국제주의와 (공화당원 헨리 캐봇 로지에 의해 대표되는) 보다 더 보수적인 국제주의 간의 투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보와 보수적 국제주의자간 대립은 미래 미국 사회에 대한 비전이 서로 달라 더욱 격화되었다.

윌슨과 진보적 국제주의자들은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절제함으로써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국제 연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국제연맹이 중재와 화해, 군축과 군비제한 협정, 경제적, 군사적 제재로 담보되는 외부 침략에 대한 집단 안보를 통한 분쟁 해결로 파국적 전쟁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핸리 캐봇 로지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같은 보수 국제주의자들은 이 조항들이 국가 주권을 축소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기실 정확한 지적이다.

대부분의 보수적 국제주의자들은 국제법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세계 의회와 특정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와 화해를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미국이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독자적으로 강제력을 사용할 권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들은 연맹의 집단 제재 조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연맹 가입으로 미국이 독자적이

8) Fulbright quoted in Randall Bennett Woods, *Fulbright, A Biography* (New York, 1995), p. 647.

9) *See Congressional Record*, 65th Cong., 3rd sess. (Feb 27, 1919), pp. 4414-18, for the Senate debate during which Hitchcock made this statement.

고 일방적인 군사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우려했다.[10]

1916년 윌슨은 절묘하게 민주당, 독자적 진보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의 연합을 이끌어내어 간신히 정권을 유지했다. 그는 획기적인 일련의 사회정의 법안들 – 연방 최초의 8시간 근로법(철도 근로자 상대), 연방 최초의 어린이 노동 규제, 기업과 부유층이 대부분의 부담을 떠안는 소득세 도입 – 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선거에서 승리했다. 윌슨 연합세력은 또 윌슨의 대외 정책을 기반으로 삼았는데 윌슨은 "그가 우리를 전쟁에서 구했다."라는 슬로건으로 재출마했고 선거 유세에서 몇 차례 미래의 국가 연합에 대해 연설했다. 사회주의자 막스 이스트만은 윌슨을 링컨과 비교했으며 윌슨이 "전쟁 폐지 문제를 거론하고 군국주의의 창궐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윌슨의 승리를 점쳤다. 진보주의자 아모스 핀초는 윌슨의 선거승리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뽑은 대통령은 여태까지 그 어떤 대통령도 생각하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한 기치를 치켜들었다. 그것은 국제주의의 깃발이다."라고 표현했다. 이리하여 국제연맹 구상은 테오도르 루즈벨트와 핸리 캐봇 로지 같은 정치인들 관점에서 더욱 그러하겠지만 당파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11]

윌슨은 선거에 승리하자마자 독자적 중재로 전쟁을 끝내려고 시도했다. 1917년 1월 22일 그는 상원에서 "승리 없는 평화"를 역설했다. 이 진보적인 국제주의 선언을 통해 윌슨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그가 전쟁의 근원이라고 말한 유럽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세력 균형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윌슨은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이 자발적 억제를 통해 번영할 수 있는 "국가들의 공동체" 구상을 내놓았다. 그 구상은 국가 간 분쟁의 조정 절차, 군비의 대폭 감축, 자결주의 그리고 집단 안보에 의해 지탱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획기적인 이 계획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바로 국제연맹이었다.

이렇게 윌슨은 현대 세계 정치사에서 중대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의 위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12]

---

10) For an extended discussion of the two groups, see Thomas J. Knock, *To End All Wars: Woodrow Wilson and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New York, 1992), 50-69; see also Ruhl J. Bartlett, The League to Enforce Peace (Chapel Hill, NC, 1944), pp. 40-62.

11) These matters are discussed in detail in Knock, To End All Wars, 85-104; and in William Widenor, *Henry Cabot Lodge and the Search for An American Foreign Policy* (Berkeley, CA, 1981), pp. 240-43.

12) For the complete text, see Arthur S. Link et al. (eds.) *The Papers of Woodrow Wilson*, 69 vols. (Princeton, NJ, 1966-1996), XL, 533-539 (hereinafter cited as *PWW*); see also Knock, *To End All Wars*, 111-115.

* * * * *

윌슨이 구상한 집단 보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 시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윌슨은 단계적으로 사례별로 "국제연맹이 성장해나가야 하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분쟁 발생 시 조정에 회부할 의무가 부여되는 간단한 규약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슨은 쥐스랑 주미 프랑스 대사에게 "무력에 의존하는 습성을 깨뜨리는 선례를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규약들의 실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조직되어 사용되는 국가 간 협력을… 창출하는… 협력 구조와 관행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것은 관행을 키워가는 문제였다.(콜롬비아 대학의 로리 피슬러 담로쉬는 "작은 성과가 더 크고 더 많은 성과로 이어져 나중에는 기본 원칙을 반영하는 패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13]

윌슨은 군사적 제재에 대해 전후 시기에는 몇 가지 이유로 자주 발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경솔한 일방주의 조치에 대한 암묵적 제한, 집단적 힘을 이용한 억지력, 중재 절차의 냉각 조항, 군축 등 여러 요소가 복합해서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를 제거할 것으로 믿었다.(그는 유럽 순방에서 제10조항에 대해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연맹 규약 조항의 3분의 2가 중재에 관한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최후의 수단임을 지적했다.) 국제연맹이 모든 분쟁을 예방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합리성과 이에 기초해 자기 이익을 조정할 여지를 탐색할 수 있는 냉각 수단을 몇 년간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조정 및 군축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이라는 것이 국제관계의 행동규범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이 실제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당연히 갖게 되는 의문이다. 윌슨은 이에 대해 쥐스랑 프랑스 대사에게 "그것은 시도해볼 만한 경험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파리 강화회의의 평화 설계자들에게 "만약 대표들이…연맹이 성공해야 한다고 마음먹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고 말했다.[14] 1919년 당시 보수적 국제주의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

13) The quotations, respectively, are from Wilson to Edward Mandell House, March 22, 1918, *PWW*, XLVII, p. 105; J. J. Jusserand to French Foreign Ministry, March 7, 1917, in *PWW*, XLI, p. 356; F. L. Polk to Jusserand, Aug. 3, 1917, PWW, XLIII, p. 362.

14) Hankey's notes of a Meeting of the Council of Ten, Jan. 27, 1919, *PWW*, LIV, 296 (emphasis added).

베르사유조약의 제재적 성격과 특히 전쟁 기간 중 미국 내 인권 탄압을 윌슨이 묵인한 것으로 인해 많은 진보주의자가 윌슨 및 연맹에 등을 돌렸다.

보수적 국제주의자들은 그러나 윌슨으로부터 진보적 국제주의자의 정신을 분별해냈다. 조약을 반대한 공화당원 중 엄밀하게 말해 고립주의자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윌슨이 핵심적인 국가 이익을 국제기구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 (또는 양도할 것) 고 믿었다. 윌슨은 1919년 2월 백악관에서 가진 34명의 상하원 의원과의 4시간 동안의 회동에서 "우리 주권 중 일부가 포기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윌슨은 경제 제재나 군사 행동이 발동되려면 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상원이 주권문제로 반대하면" 국제연맹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를 위해 기꺼이 그 주권의 일부를 포기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15)]

윌슨은 베르사유조약과 국제연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나선 여행에서 "핸리 캐봇 로지의 유보조항"과 제10조항(집단보장 조항)과 중재에 대한 우려, 나아가 연맹 회원국이 되면 독자적 행동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해명하면서 "이 세계에서 편견 없는 결심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몬타나주 빌리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역설했다. 당시 이 발언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제하라는 말로 귀결된다. 윌슨은 "우리가 소송에서 패배해 처벌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16)]

공화당원들의 우려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조약에 대한 그들의 14개 유보조항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중재 회부를 임의로 하도록 하고 국제연맹과 상의 없이 군비를 증강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등 윌슨 국제주의에 대한 보수적 해석을 강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유보 조항은 연맹의 제재를 받는 규약 파기 국가와 교역을 지속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또 다른 유보조항은 미국의 연맹 비용 출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로지의 유보조항들이 한데 합쳐 윌슨을 정면으로 공격했다.[17)]

---

15) See the account of the meeting printed in *PWW*, LV, 268-76. In October 1916, during his reelection campaign, he said to an audience in Chicago, "There is coming a time, unless I am very much mistaken, when nation shall agree with nation that the rights of humanity are greater than the rights of sovereignty." (See *PWW*, XXXVIII, 488.)

16) An address at Billings, Montana, Sept. 11, 1919, *PWW*, LXIII, 177.

윌슨은 미 상원이 조약을 최종 거부하기 직전 공개된 서한에서 "제국주의자는 국제연맹을 원치 않으며 그가 관심을 갖는 한 가지가 있다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맹뿐이다."고 말했다. 당시 윌슨에게 있어 국제 안보는 책임은 물론 "강대국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제력을 포함하고 따라서 제10조항은 "제국주의와 반동 세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보루"였다.

그가 공화당원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첫째 이유가 이것이다. 미국이 유보 조항을 수용하도록 허용하면 국제연맹의 의미는 뚜렷해진다. 그것은 핸리 캐봇 로지 방식의 연맹, 제국주의자의 연맹, 반동의 연맹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구질서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연맹이 가장 좋은 연맹이다.[18)]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여름 유엔 헌장이 서명되자 윌슨이 옳았음이 증명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러 측면에서 윌슨의 국제주의에 반윌슨적인 형태를 가미하려고 했는데 이런 반윌슨적 형태가 조지 W. 부시 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다. 윌슨의 의지는 동시대의 보수주의자는 물론 봉쇄 정책을 통한 새로운 세력 균형을 꾀하고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건설한 냉전시대 2기의 현실주의자들과도 대립된다. 조지 캐넌 같은 냉전시대의 지식인들은 윌슨이 "국제연맹 혹은 국제연합을 통해…중재… 세계 군축 노력… 세계 평화 달성 가능성에 대한 환상….이런 것에 지나치게 집착했다."고 비난했다.[19)] 윌슨이 미국 국제주의의 아버지라면 그의 많은 후속 정치인들은 사생아들이다. 전후 득세한 세력들은 오히려 윌슨 국제주의의 변종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 입안자들은 대체적으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

17) For a discussion, see Knock, To End All Wars, pp. 258-59 and 265-67; Lloyd Ambrosius, Woodrow Wilson and the American Diplomatic Tradition, 172-175 and 180-210; John Milton Cooper, Jr., Breaking the Heart of the World: Woodrow Wilson and the Fight for the League of Nations (New York, 2001), 123-157; and Widenor, Henry Cabot Lodge, 316-324.

18) Wilson to Gilbert Hitchcock, March 8, 1920, *PWW*, LXV, 67-71.

19) Kennan, *Memoirs, 1950-1972* (Boston, 1972), p. 71; See also, Kennan's chapter, "World War I," *in American* Diplomacy, 1900-1950 (Chicago, 1951; expanded edition, 1984), pp. *57-58* and 63-64. Robert E. Osgood, a leading realist among political scientists, sounded the same note: "[H]ow poorly Wilson's conception of collective security fits contemporary American practice," he wrote in 1957, "and how badly the prevailing American conception of collective security is distorted by efforts to reconcile the two." See "Woodrow Wilson, Collective Security, and the Lessons of History," *Confluence* (Winter 1957), 341-54; and Osgood's classic, *Ideals and Self-Interest in American Foreign Relations: The Great Transformation of the Twentieth Century* (Chicago, 1953). For an updated, version of the argument, see Robert W. Tucker, "The Triumph of Wilsonianism?" *World Policy Journal* (Winter 1993-94), pp. 83-99.

의 절차를 거부하고 미국의 일방적 군사 개입권한을 유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빈번하게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직접 침해했다.[20]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 제3세계 국가들이 부상하기 시작하자 유엔이 "반미국적"이라고 규정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로지 유보조항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유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심지어 탈퇴 의도를 내비추기도 했다. 더군다나 레이건 정부가 "제한적" 핵전쟁 가능성을 거론함으로써 정통 윌슨주의의 발전은 생각하기 힘들었다.

냉전의 종식으로 윌슨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윌슨과 "신세계질서"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보편화되었다. 미국은 그러나 유엔의 평화유지 임무와 다자간 군사력 사용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1990년과 1991년에 쿠웨이트에서는 유엔의 권위를 들먹거리면서도 1998년과 1999년 코소보 사태에서는 사실상 유엔의 권위를 무시했다. 또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이임시기에 유엔 분담금 연체액 32억 4천만 달러의 절반을 연체하고 있었다. 콘돌리자 라이스는 여타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참모들처럼 미 정부가 "환상과 같은 국제 커뮤니티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국익이라는 확고한 발판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태도는 예방 전쟁 독트린 선포는 물론 교토의정서와 생물무기협약의 가입 거부와 국제형사재판소의 포기(이들 중 어느 것이라도 윌슨이 말한 창조적인 "작은 발걸음"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21]

윌슨이 최근 새삼 부각되는 것은 일부 그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나 좋은 징조일지 모른다. 윌슨은 자신의 힘든 과업을 두고 "나는 앞으로 100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22] 정말로 21세기에 들어와서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핵무기 감축 제안으로부터 평화유지 활동, 국제법의 다자간 이행강제, 민족주의의 자발적 국제주의로의 대체 요구 등 그 어느 것 하나 정통적인 윌슨 국제주의의 신념과 무관한 것이 없다.

---

20) This argument is developed in Thomas J. Knock, "Kennan versus Wilson," in John Milton Cooper, Jr. and Charles E. Neu (eds.), *The Wilson Era, Essays in Honor of Arthur S. Link* (Arlington Hts., IL, 1991), pp. 302-26 (esp., 316-17).

21) McNamara and Blight, *Wilson's Ghost*, pp. 133-35; Michael Hirsh, "Bush and the World,"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02), pp. 21 and 32-35, and his "Calling All Regio-Cops,"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00), pp. 4-5; and Condolee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0). See also, Judis, *The Folly of Empire*, pp. 156-162 (on Clinton) and 165-79 and 204-212 (on George W. Bush).

22) Diary of Henry F. Ashurst, Oct. 14, 1918, *PWW*, LI, 338-340.

윌슨은 현명하게도 자신의 생각이 최상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비전이 살아서 적용되는 것을 보면 그는 근대의 미국 대통령 중 특이한 존재이다. 이런 평가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바라지는 말자. 윌슨이 말했던 "지금부터 100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조지 케넌 자신이 경력상 윌슨의 단계에 들어서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84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에 던졌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고 진지하게 이들 불길한 교훈을 숙고하고 우리나라의 행동이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을 이런 어리석음으로 내몰게 하지 않도록 굳건한 결의 위에 기반을 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케넌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외쳤다. "문명세계가 살아남으려면 이러한 인식이 최종적으로 모든 위대한 국가들의 정부에 이르러야 한다. 질문은 단 한 가지 그러한 인식이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가이다. 우리가 이 변화를 만들어 내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촉박할지 모른다."[23]

23) Kennan, "The War to End War," New York Times, Nov. 11, 1984, reprinted in Kennan, *At Century's Ending: Reflection*

베르사유 체제의 역사적 의의와 한반도

▌김용구▐

베르사유 체제의 역사적 의의와 한반도

김용구 (한림대)

〈목 차〉

Ⅰ. 1914년
Ⅱ. 베르사유 체제의 역사적 의의
1. 유럽 시대의 종말
2. 제국(帝國)들의 붕괴
3. 국제사회의 조직화, 그리고 '중심'과 '주변'
Ⅲ. 1919년의 국제정치 구조와 한반도
1. 3.1운동은 미완의 운동
2. 3.1 운동은 세계화 운동
3. 민족자결원칙은 1919년의 '개념'
4. 동북아 개념 소통을 위한 '창조(inventio)'의 연구로

Ⅰ. 1914년

(1) 3.1운동은 민족자결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후술하는 바 같이 민족자결원칙은 '폭발성'을 지닌 1919년의 '개념'으로서 전 세계의 정치/사회 운동의 명분이었다.

(2) 베르사유 체제는 세계정치 구조를 변혁시킨 제1차 세계대전의 성격과 같은 맥락에 서 있다. 1910년대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는 몰라도 대변동을 동반한 무력충돌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였다. 1914년 봄 윌슨(W. Wilson) 대통령은 그의 표현대로 자신의 분신(alter ego) 하우스(E. House) 대령을 유럽에 파견한다. 하우스의 보고문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대립은 이제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화해가 불가능하다. 영국은 러시아의 유럽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독일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이 친밀하게 되는 것은 미국 이익에 합치되는 것은 아니다. 하우스는 유럽의 몰락과 미국 시대

의 도래, 그리고 러시아 문제를 정확하게 예견하였다.

(3) 독일의 패망을 눈앞에 둔 1918년 7월, 독일과 오스트리아 서점에는 그때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 저자의 책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슈펭글러(O. Spengler)의 『서구의 몰락(Untergang des Abendlandes)』. 사람들은 6년 전 타이타닉 호의 침몰을 연상하고 독일 패전에 대한 정신적인 위안을 이 저술에서 찾았다. 마치 러시아 사람들이 1991년 구소련의 해체에 대한 정신적 방황을 다닐레프스키(N. Ya. Danilevsky)의 『러시아와 유럽(Rossiya i Evropa)』(초판, 1871, 5판, 1991 ; 9만부 판매?, 6판, 1995)에서 안정을 되찾으려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4) 한반도의 3.1운동을 비롯해 세계정치 주변지역의 정치운동들은 1919년이라는 세계사 흐름의 분수령에서 폭발하였다. 이런 운동들은 국제사회의 권리·의무의 담당자인 행위자의 역할을 복원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로 19세기에 상실한 법적 지위를 20세기에 복원하려는 정치운동이었다. 그러나 20세기의 세계정치 구조는 ‘중심’의 안정을 위해 ‘주변’ 지역은 봉사하거나 희생되는 지역으로 19세기 보다 더 철저히 간주하였다. 1919년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조망해야 한다.

(5) 베르사유 회의 당시 비유럽 지역(한국, 이집트, 인도, 중국)의 문제를 하나의 틀로 서술할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의 이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예: Manela, Erez(2007). 세계학계의 비교연구 동향에 비추어 한국의 연구들을 세계 학계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Ⅱ. 베르사유 체제의 역사적 의의

1. 유럽 시대의 종말

(1) 유럽 시대의 종말은 19세기적인 파우스트 정신(Faustian spirit)과 폭력(nasilstvennost, Gewaltsamkeit) 시대의 와해를 의미한다. 파우스트 정신의 핵심은 온 지표를 탐험하고 정복하며 더 많은 물질의 생산과 먼 거리에 신속히 도달하려는 속도 기계의 발명에 있다. 유럽 문명권의 본질이 파우스트 정신에 있다는 것은 슈펭글러가 창안한 명제였다.

19세기 유럽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폭력’의 기간이란 점이다. 폭력은 다닐레프

스키가 제창한 개념인데 자신의 사고방식과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고 타자를 자신에 종속시키려는 정신구조를 말한다. 19세기 유럽 열강은 다른 문명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19세기는 18세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역사적 기간이다.

베르사유 체제는 폭력을 위주로 하는 파우스트 정신의 유럽 열강이 세계를 분할하고 지배하는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2) 19세기 단기전 신화가 붕괴되어 유럽 문명에 대한 회의가 만연해 유럽의 몰락을 촉진시켰다. 1792~1814년의 프랑스 혁명·나폴레옹 전쟁은 20년 동안 지속된 전면전은 아니었다. 여러 차례 프랑스에 대한 공동 전선이 형성되면 국지전으로 이어진 전쟁이었다. 이탈리아 독립전쟁,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전쟁,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은 7주의 단기전으로 종결되었다.

독일의 슐리펜 계획도 6주 동안에 프랑스를 굴복시킨다는 것이 대전제였다. 사라예보(Sarajevo) 사건 이후에도 단기간의 신화는 계속되었다. "베오그라드에서 정지(Halt in Belgrade)" 구상이 그것이다.

1914년 8월 전쟁이 발발하자 기차역에서 자식을 전선에 보내는 부모들은 "크리스마스이브에 집에서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작별 인사였다.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수백만의 전투원을 서로 살육하는 '야만인'의 행동을 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15년부터 채널(Channel) 해협에서 스위스에 이르는 400마일의 전선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참호전의 양상으로 변모하였다. 참호를 파는 데 중국인 노동자가 10만 명이나 중국으로부터 동원되었다. 독가스, 탱크와 같은 군사기술이 개발되고 1916년부터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한 인명과 자연의 파괴는 역사상 처음 있는 현상이었다.

3) 베르사유 체제는 유럽 시대의 종료와 함께 미국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인명과 자연의 파괴를 초래한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이기도하다. 자연의 파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동북지역, 벨기에, 러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유럽 전체를 볼 때 농업생산 잠재력의 30%, 공업생산력의 40% 감소되었다. 상품 수출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은 해외 시장을 상실하였고 미국,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민소득이 두 배로 증가하였고 채무국에서 100억 달러의 채권국이 되었다.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00억 프랑 이상, 이탈리아는 200억 프랑 이상의 부채를 미국에 대해 부담하게 되었다.

유럽 열강은 공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게 되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어 달러에 대한 유럽 화폐의 가치절하를 초래해 미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4) 미국은 세계문제 해결에 필요 불가결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미국 역사 속에 잠재해 온 제국주의적 공화정(Imperial Republic), 또는 공화주의적 제국(Republican Empire)의 뿌리가 현실 세계에 나타나고 미국적인 예외주의(Exeptionalism)가 세계정치를 움직이는 시대의 시작을 뜻한다. 미국의 시대는 189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고(cf. G. Arrighi, *The Long Twentieth Century*, 1994) 1917년 소련 혁명을 중시하는 견해(cf. E. Hobsbawm, *The Age of the Extremes*, 1996, "The Short Twentieth Century")도 있다. 그러나 1919년 베르사유 체제로 미국 시대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상원이 베르사유 조약 비준을 거부해 미국적인 필수불가결성의 현실화가 지연되었을 뿐이다. 20세기는 1919년에 시작되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긴 역사적 기간'이다.

5) 베르사유 체제는 유럽 중심 지역의 안보를 미국과 연결시켰다. 독일이 도발을 받지 않았는데 공격을 하는 경우 영국과 미국은 즉시 프랑스를 원조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1919년 6월 28일 체결하였다. 이 두 개의 문건을 베르사유 조약의 부속문서로 첨부하였다. 물론 이들 원조 조약은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2. 제국(帝國)들의 붕괴

1) 제국들이 붕괴되었다. 19세기 유럽 정치를 지배하던 세력균형이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붕괴된 그 자리에는 여러 신생국가들이 등장하였다. 이들 신생국가들은 '근대국가'라는 외형을 지니고 있어서 베르사유 체제는 근대국가의 완성을 의미한다. 근대 질서가 완결되자 근대국가의 자기모순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수입된 국가 형태(imported state)'로서의 근대국가는 그 안에 인위적으로 통합된 중세질서의 잔존과 인종 집단의 분출로 모순에 봉착한다.

2) 합스부르크 제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신생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로 분할되면서 21세기 분쟁 지역으로 탈바꿈되었다.

3) 오토만 제국은 복잡한 양상을 노출하였다. 아랍세계는 아랍인들의 각축장이 된 아라비아 반도, 프랑스의 위임통치 지역이 된 시리아, 영국의 위임통치 지역이

된 이라크, 팔레스타인, 모술지역으로 분할되었다.

4)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과 소비에트 문제의 등장

제정 러시아 영역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의 신생국가가 탄생하였다. 러시아 중앙지역에 근대국가의 타파를 명분으로 하는 볼셰비키 정권의 등장은 실로 역사적 사건이었다.

1918년 11월 휴전 이후에도 독일 군부가 존재한 것은 볼셰비키 세력의 서유럽에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르사유 체제는 소련을 제외한 폴란드 서부지역의 강화조약에 입각하고 있어서 불완전한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다.

볼셰비키 정권은 혁명 직후 1917년 11월에 이른바 '평화선언'을 공표하였다. "병합이 없는 (즉 외국 영토의 점령, 외국 국민의 강제적인 합병) 그리고 배상이 없는 즉각적인 평화"를 제창하였다. 병합이란 유럽이나 세계 어디에서나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대한 국가에 통합된 것을 의미하며 '정의와 민주주의'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비록 '민족자결원칙'이란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강조하였다. '평화선언'은 이어서 비밀외교의 타파와 공개외교 원칙을 천명하였다. '레닌의 계기(Lenin's moment)'라고 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세계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1918년 1월 8일 윌슨이 '14개 항목'을 내용으로 한 연두교서를 발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소비에트 정권의 '평화선언'이었다. 연두교서의 긴 서두부분은 '평화선언'에 대한 격찬으로 분식되어 있다. '러시아 인민의 정당한 목소리,' '매우 정당하게,' '매우 현명하게,' '근대 민주주의의 진정한 정신,' '미국 국민들은 [이런 러시아의 선언에] 내가 회답하길 원한다,' '이 평화선언에 기초해서 유럽의 일반적인 평화 원칙을 천명한다.' 윌슨은 소비에트 정권의 선전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5) 베르사유 체제는 반공체제이며 볼셰비키 정권의 실체를 사상(捨象)한 체제였다. 베르사유 회의에서 유럽 열강은 볼셰비키 세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냉소적이고 접근을 회피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베르사유 회의에서 소비에트 정권에 대한 태도를 처음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1919년 1월 16일 로이드조지가 최고이사회에서였다. 이 날은 윌슨의 지시로 버클러(W. H. Buckler)가 스톡홀름에서 볼셰비키 정권의 대표인 리트비노프(M. Litvinov)와 마지막 회담을 하고 있었다.

로이드조지의 제안은 윌슨의 볼셰비키 찬양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그는 러시아 문제를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러시아 볼셰비즘을 파괴하던지, 외부세계를 러시아로부터 고립시키는 중세 용어인 방역선(防疫線, cordon sanitaire) 정책을 취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볼셰비키들을 포함 러시아의 여러 집단들의 대표들을 회의에 초청하던지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물론 최고이사회는 부결시켰다. 그러나 독일군이 우크라이나와 발트 지역에서 철수하자 연합국은 힘의 공백을 채워야할 급박한 사태에 직면하였다.

1919년 1월 21이 윌슨과 로이드조지는 러시아 대표를 파리가 아니라 흑해와 마르마라(Marmara) 해 사이에 있는 프린키포(Prinkipo) 섬으로 초청하는 희극을 연출하였다. 1919년 2월 4일 볼셰비키 정권은 자본주의자들은 물질적 양보만을 추구한다고 선언해 윌슨은 “모욕”을 받게 된다.

프린키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조사단을 러시아에 파견하는 방안을 구상하게 되었다. 1919년 2월 17일 불리트(W. Bullitt)에게 조사단원으로 러시아에 갈 것을 제안하였고 불리트와 스테펜스(L. Steffens)는 모스코바에서 화려한 일주일을 레닌과 치체린과 보내는 것으로 이 일화도 끝난다.

3. 국제사회의 조직화, 그리고 ‘중심’과 ‘주변’

1) 국제연맹

베르사유 체제는 1815년 9월의 신성동맹 조약과 1815년 11월 4국 동맹 조약 제6조를 발전시켜 역사상 최초로 국제사회를 조직화한 국제연맹을 탄생시켰다.

국제연맹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제분쟁의 해결을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주권 원칙에 입각한 앵글로-색슨의 국제기구라는 점이다. 그리고 국제연맹 규약이 독일과의 강화조약인 베르사유 조약의 일부라는 점이 본질적인 특징이다. 국제연맹은 출발부터 전승국인 연합국의 국제기구로 출발하였다. 독일은 로카르노 조약이 체결된 다음해인 1926년에 가서야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2) 중심과 주변

베르사유 체제로 성립된 국제사회의 조직화는 세계정치의 중심과 주변을 확연히 구별한 19세기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빈 회의에서는 주변 지역의 행위자

들은 단지 무도회의에만 초대되어 "회의는 춤추고(Le Congr s danse)"고 있었을 뿐이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붕괴된 중세질서 행위자들의 요구들 때문에 전체회의는 개최될 수 없었다. 이들 중세질서의 요구를 대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고급귀족들(Standesheren)의 주장을 관철시킨다는 개르트너(F. von G rtner)는 '42 군주들의 대표'라는 직명을 지니고 다녔다.

같은 현상이 베르사유 회의에서도 재현되었다. 빈 회의에서 중세질서 행위자들을 기피하듯이 윌슨도 "불완전한 국가가 강화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였다. 1918년 10월 콥(F. J. Cobb)과 리프만(W. Lippmann)은 하우스의 의뢰로 윌슨의 14개 항목을 해석한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각서는 윌슨의 14개 항목 중 제5항을 "독일의 식민지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 국제적으로 고려해야할 그 밖의 식민지." 라고 보았는데 10월 30일 윌슨은 이 각서를 보고받고 위와 같이 논평하였다.

베르사유 회의에서는 공개외교가 정치 명분이어서 5인 이사회나 4인 이사회에서 여론의 향방이나 약소국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없었다. 하나의 방안이 고안돼 채택됐는데 5대 강국 이외의 국가들은 자국의 입장과 주장을 밝히는 자료들을 이사회에 제출하며 그 대표들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이런 방식이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저해하는 역효과도 초래하였다. 약소국 대표들은 이미 제출된 자료를 반복해 설명하는 경우가 허다했을 뿐 아니라 이사회는 서로 상반되고 충돌되는 이해관계를 청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였다.

3) 강대국들은 1917년에 앞으로 개최될 강화 회의에 임하면서 조사기관(Inquiry)을 구성해 특히 주변 지역 문제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미국의 조사기관은 주변 문제에 관해 60여개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주의를 기울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1918년 12월 윌슨은 파리로 떠나는 조지 워싱턴호(The George Washington)에 25명의 조사기관의 연구자들과 동행하였으나 강화회의에서는 이들과 만날 시간이 없었다.

Ⅲ. 1919년의 국제정치 구조와 한반도

1. 3·1운동은 미완의 운동

한반도는 19, 20, 21세기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지역이다. 19세기는 근대국가 완성의 역사적 기간인데 우리에게는 통일의 문제가 있다. 20세기는 냉전의 시대인데 우리는 냉전을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한반도는 세계화의 흐름인 21세기의 과제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행위자 역할을 복원하려는 1919년의 3.1 운동은 오늘날의 문제이다.

2. 3·1운동은 세계화 운동

민족자결 운동은 1919년 당시 세계정치 주변지역의 일반적인 정치운동이며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세계화 운동이다. 이런 정치 운동에 한반도가 참여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19세기 중엽 한반도가 이질문명권과 조우한 이래 한반도를 유럽 공법의 객체에 불과한 야만과 오지(奧地)로 인식한 세계열강의 정신 구조의 변화를 가져 온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책을 예로 든다.

① 템펄리(H. Temperley), ed.(1920-1924). 템펄리의 저서는 파리 강화회의 연구자들에게는 필독의 연구이다.

이 저서 제1책(pp. 245-246)은 강대국 대표들을 설명한 다음 폴란드, 체코,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약소국들의 경우를 해설하면서 조선의 사정을 p. 246 주석 ①에서 특기하고 있다. 시베리아의 조선인들이 2명의 대표들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2월 5일 출발해 도보로 여행하면서 7월에 Archangel에, 강화회의가 끝난 12월에야 파리에 도착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들은 연맹 총회를 현재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② 본설(S. Bonsal, 1946). 본설은 1895년에 조선 주재 미국공사관에서, 1896-1898년에는 도쿄의 미국공사관에서 근무한 바 있고 파리 회의에는 하우스의 측근으로, 윌슨의 프랑스어 통역으로 참가하였다.

1918년 2월 5일 아침에 하우스 부인이 본설 사무실에 나타나 남편 산책에 동행해 달라고 말한다. 부인은 산책하면서 남편에게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부인은 이어서 조선 사람들은 난처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 분명히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인다. 본설은 하우스에게 조선 정치의 장점을 역설하고 본설의 이런 주장은 윌슨에게 며칠 후 전달된다.

3. 민족자결원칙은 1919년의 '개념'

랜싱(R. Lansing)은 민족자결원칙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1918년 12월 30일로 추정되는 일기에서 "다이너마이트, 도대체 무슨 재난을 가지고 올 것인가?"라고 적고 있다. '다이너마이트,' 이것이 바로 '개념'이다. 그리고 1919년을 '윌슨의 계기(Wilsonian moment)'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치 1815년 빈(Wien) 회의 이후 유럽 주변 지역(특히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에서 분출한 혁명들의 목표인 '헌법 개념'과 같은 현상이다.

개념은 특정한 사회현상을 인식하는 단어들 속에 함축된 여러 역사적 의미와 경험들이 하나의 단어로 응축되어 그 사회 구성원들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에 나타난다. 개념은 사회 전체를 변혁하는 폭발성을 지니게 되며 개념사 연구는 전체의 역사(l'histoire totale)를 시도하는 방법론이다.

1917년 민족자결원칙은 바로 이런 폭발성을 지닌 개념으로 정치/사회 운동의 명분이다. 개념으로서의 민족자결운동은 한민족이 1866년 이질문명권과 조우하면서 형성된 대외문제에 관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이 하나로 응축된 단어이다. 대외인식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표현이다. 과거로부터 축적된 믿음과 공포에서 나오는 강박관념의 발로이다. 민족자결 원칙은 조선의 역사적 현실과 1919년이라는 독특한 시점이 한데 뭉쳐진 개념이다.

독립, 자치, 자주는 19세기 중엽부터 조선 지식인들에게는 친숙한 개념이다. 독립은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근대국제법의 개념이고, 자치와 자주는 사대질서의 개념이었으나 1919년의 시점에서는 근대적인 공법질서의 개념으로 융합되어서 폭발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4. 동북아 개념 소통을 위한 ‘창조(inventio)’의 연구로

탈냉전 이후 세계정치의 혼란은 국제정치 행위자의 이질성에 잘 나타나 있다. 전통적인 근대국가, 미국과 같은 세계국가, 이라크와 같은 중세국가, 그리고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국가의 유형들이 혼재해 있다.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은 21세기의 국제정치 구조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같은 현대국가의 유형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유럽연합과 공존하기 위해서나, 러시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현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기본개념에 관한 소통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네(J. Monnet)의 지적 작업이나 1951년 리터(G. Ritter)와 르누뱅(P. Renouvin)의 공동 선언과 같은 전문가들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3.1.운동 연구는 이미 지적한바 같이 오늘의 문제이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재해석하는 ‘창조’의 정신으로 다시 되돌아보아야 한다. 물론 그런 재해석은 세계학계가 인정하는 담론에 입각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 연합의 구축을 위해서는 3.1운동에 관한 동북아 3국의 공동 연구가 불가결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1) 베르사유 회의에 관한 열강의 기본 사료에 관해서는 김용구(2006), pp. 653~661; 열강의 미간 문서의 소재는 MacMillan(2001), pp. 497-498; Manela(2007), pp. 285-287 참조

(2) 베르사유 회의와 체제 자체에 관한 주요 연구

Baumout, M.(1960), *La Faillite de la paix 1918~1939*, 2 vols., Paris.

Boemeke, M., G. D. Feldman, & E. Glaser, eds.(1998), *The Treaty of Versailles: A Reassessment After 75 Years*, Cambridge.

Bonsal, S.(1946), *Suitors and Suppliants. The Little Nations at Versailles*, Prentice Hall.

Curry, R. W.(1957), *Woodrow Wilson and Far Eastern Policy 1913-1921*, N.Y.

Goldstein E.(1991), *Winning the Peace: British Diplomatic Strategy, Peace Planning and the Paris Peace Conference, 1916-1920*, Oxford, 1991.

Knock, T.(1992), *To End All Wars: Woodrow Wilson and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N. Y.

Nicolson, H.(1933), *Peacemaking 1919*, London.

Mayer, A. J.(1968), *Politics and Diplomacy of Peacemaking. Containment and Counter-Revolution at Versailles 1918~1919*, N.Y..

MacMillan, M.(2001), *Paris 1919. Six Months That Changed The World*, N.Y.

Manela, E.(2007), *The Wilsonian Moment. Self-Determination and International Origins of Anticolonial Nationalism*, Oxford.

Renouvin, P.(1957), *Histoir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Tome Septi me, Les crises du XXe Si cle, de 1914 1929*, Paris.

Temperley, H. ed.(1920-1924), *A History of the Peace Conference of Paris, 6 vols*, London.

(3) 3.1.운동과 국제관계

* 3.1운동에 관해서는 한국 사학계에서 지적인 축적이 이루어져있다. 국제정치사

의 입장에서 3.1운동을 분석한 몇 가지 연구들을 열거한다.

구대열(1996),『한국국제관계사연구』, 제1책, 『일제시기 한반도의 국제관계』, 서울.

방선주(1989),「이승만과 위임통치」,『재미한인의 독립운동』, 춘천.

볼드윈, 프랑크Baldwin, Frank(1969),「윌슨, 민족자결주의, 3.1운동」, 동아일보사 편『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pp. 515-532.

(1969), The March First Movement: Korean Challenge and Japanese Response, Ph. D. diss., Columbia Univ.

손보기(1969),「3.1운동에 대한 미국의 반향」, 동아일보사 편『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pp. 541-550.

신용하(1984),『3.1독립운동의 사회사』, 서울.

(1989),「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와 세계사적 의의」, 동아일보사 편,『3.1운동과 민족통일』, 3. 1운동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pp. 73-92

「3.1독립운동의 역사적 동인과 내인, 외인론의 제문제」,『한국학보』, 제 58집, 서울.

유병용(1983),「3.1운동과 한국독립문제에 관한 미국 언론의 반향」,『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이보형(1969),「3.1운동에 있어서의 민족자결주의의 도입과 이해」, 동아일보사 편『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pp. 175-187.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1985), 『한국독립운동과 열강관계』, 서울.

長田彰文(2005),『日本の朝鮮統治と國際關係』, 東京, (번역, 2008, 서울).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Versailles System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Yongkoo (Hallym University)

〈Content〉

Ⅰ. The year 1919
Ⅱ.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Versailles System
1. The Demise of European Age
2. Collapse of Empires
3.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Center' and 'Periphery'
Ⅲ.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1919 and the Korean Peninsula
1. The March First Movement is still an unfinished one
2. The March First Movement is a globalization movement
3. Doctrin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was a 'Concept' of the Year 1919
4. Creative Study for Inter-Communication of Basic Concepts in Northeast Asia

Ⅰ. The year 1919

(1) The March First Move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doctrin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its spread to the world. As referred in the following pages, the doctrine of self-determination was a “concept“ of the year 1919 that has an “explosive power” and the cause of political, social movements in the world.

(2) The Versailles system is interconnected with the First World War which changed the world political structure. Entering 1910 people were filled with a foreboding of coming of war, an armed clash that will accompany a drastic change. President Woodrow Wilson of the United States dispatched “Colonel” Edward Mandell House, his long-time close aide and, according to his words, his alter ego to Europe in the spring of 1914. House's report struck home of European situations.

Antagonism between Britain and Germany were so great that without intervention of

the United States it was impossible to facilitate their rapprochement. Britain does not want downfall of Germany in order to block Russia's advance to Europe. The intimate relations between Britain and Germany, however, would not coincide with interests of US. House correctly read Europe's demise, arrival of US age and problems concerning Russia.

(3) In July, 1918, when German surrender seemed imminent, a book by an unknown author became best sellers in Germany and Austria. The book which captivated the minds of the public was “The Decline of the West” by Oswald Spengler. People find solace in the book after the German defeat in the war as well as reminding sinking of the Titanic six years ago. It was the same phenomenon as Russians sought solace in Nikolai Y. Danilevsky's “Russia and Europe”(first edition, 1871, fifth edition, 1991, sixth edition, 1995) in 1991 after Soviet Union was dismembered.

(4) Political movements on the periphery of world politics including March First Mo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exploded and reached their climax in 1919 which was a watershed in world history. The goal of those movements were to restore roles of actors as subjects of rights and obligations in international society during the 20th century by recovering the legal status lost during the 19th century. However, inequality between center and periphery of world politics was more intensified in the 20th century than in the 19th century. The “periphery” has to serve or sacrifice for stability of “center.”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review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year 1919.

(5) Questions in non-European regions (Korea, Egypt, India and China) at the time of the Versailles congress needed to be studied in a theoretical framework. Such kind of approaches began to appear recently. One example is Erez Manela (The Wilsonian Moment. Self-Determination and International Origins of Anticolonial Nationalism, 2007). It is an urgent task to inform world academia of studies by Korean scholars in line with comparative research trend.

Ⅱ.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Versailles System

1. The Demise of European Age

(1) The demise of European Age implies that the 19th century age of Faustian spirit and violence has collapsed. The keynote of Faustian spirit found its expression in such activities as exploration and conquest of the earth, production of more materials and invention of a machine that can reach long distance more speedily. The thesis that gist of European civilization lies in Faustian spirit was proposed by Spengler.

Other important feature of Europe in the 19th century is 'violence.' Violence, a concept created by Nikolai Y. Danilevsky(1822-1885), means spiritual structure in which one places supreme value on his own way of thinking and interests and tries to subordinate those of others to his. European major powers in the 19th century would not recognize other civilizations. Like this the 19th century was essentially different period in comparison with the 18th century.

The Versailles system terminated an age in which European powers endowed with Faustian spirit and depending upon violence divided and ruled the world.

(2) As the myth of blitzkrieg, or lightning war, broke down, skepticism about the European civilization deepened and hastened downfall of European age. The French Revolution and Napoleonic Wars between 1792 and 1814 was not all-out war that lasted over 20 years but local one that had been staged sporadically when allied front against France was formed. The Italian independence war, Austro-Prussian War and Franco-Prussian War all ended in seven weeks.

Germany's Schlieffen Plan aimed to overwhelm France in six weeks. The myth of blitzkrieg lasted until after the Sarajevo incident as the so-called “Halt in Belgrade“ plan.

When war broke out in August, 1914, parents who had to send their sons to the front bid farewells at railway stations saying “See you again at home on Christmas Eve.“ Nobody could imagine holy Christians get involved in savage barbarism slaughtering millions of soldiers.

The war, however, transformed unexpectedly to war of entrenchments starting in 1915, which ran in a continuous line of 400 miles from English Channel to Swiss frontier. One hundred thousand Chinese were mobilized from China to dig the entrenchments. New weapons such as poison gas and tanks had been developed and Germany's campaign of “unlimited“ submarine warfare demanded heavy casualties and destruction of nature

unprecedentedly in human history.

(3) The Versailles system implies the end of European age and start of American age. The war delivered serious blows to Europe. European countries suffered great human losses and natural devastation. Natural destruction was most serious in the Northeastern regions of France and of Italy, Belgium and Russia. Due to the war, agricultural production of Europe as a whole decreased by 30 percent and industrial production by 40 percent, respectively. Exporting countries such as Britain, France and Germany lost overseas market while US and Japan increased their market share. The US emerged from the war more powerful,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Its national product doubled and it transformed from debtor country before the war to creditor country with credit reaching one hundred dollars. In contrast, Britain and France were deeply in debt to the US with 30 billion francs respectively, and Italy with 20 billion francs of debts.

European powers had to issue bills to refund public debts, which caused inflation and depreciation of European bills against dollars opening the American age.

(4) The US emerged as an indispensable power to settle international issues. This implies that the Imperial Republic or Republican Empire tradition in the US history appeared in realities of the world and heralded the start of an era in which American Exceptionalism move the world politics. There is a view US age has already begun in the 1890s.(cf. G. Arrighi, The Long Twentieth Century, 1994) Another view gave importance to Russian Revolution in 1917 in relation with opening of American age.(cf. E. Hobsbawm, The Age of the Extremes, 1996, "The Short Twentieth Century")

It can be said, however, US age began with the 1919 Versailles system. The US Senate refused to ratify the Treaty of Versailles, making it invalid in the United States. This only delayed realization of US age. The 20th century is a long historic period that began in 1919 and still continues.

(5) The Versailles system linked the security of center of Europe with that of US. The Allies signed security treaties on June 28, 1919 that require both Britain and US render supports to France promptly in case Germany attack it without provocation. The two treaties were incorporated into Versailles Treaty as annexes. Both were not in fact materialized.

2. Collapse of Empires

(1) The First World War saw the collapse of several major empires. The principle of balance of powers that had governed the European politics during the 19th century could not perform its function any more. New states were formed from the ruins of old empires. Those new states took the ostensible form of modern states. So the Versailles system means completion of modern state building. When order of modern states were established phenomenon of self-contradiction began to appear. The “imported modern state“ revealed contradicting elements including legacy of medieval age order and eruption of racial demands that had been hidden in the process of artificial combination.

(2) The Austro-Hungarian Empire of the Habsburgs were divided into Austria, Hungary, Czechoslovakia and Yugoslavia which became disputed areas in the 21st century.

(3) The situation of the Ottoman Empire was more complicated than other regions. Ottoman possessions in the Arab Middle East were partitioned into Arabian Peninsula which became a competing ground for Arabs, Syria under the mandatory rule by France, Iraq, Palestine and Mosul region under British mandatory rule.

(4) The Collapse of the Russian Empire of the Romanovs and emergence of Soviet question.

New states such as Finland, Estonia, Lithuania, Latvia and Poland were born in the former territory of Russian empire. The establishment of Bolsheviks regime aspiring to abolish modern states in the central Russia was really an historic event.

The existence of German army after the armistice in November of 1918 was designed to block the advance of Russian Bolshevism into the western Europe. The Versailles system had a weak point as it was based on peace treaty with states in the Western Europe excluding the Soviet Union.

The Bolsheviks announced their own radical peace plan so-called “peace declaration“ shortly after the revolution in November 1917. It called for an immediate peace without territorial annexations and indemnities. The declaration demanded abolition of annexations, which mean incorporation into stronger nations contrary to residents' will, in

Europe and other part of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justice and democracy. The declaration, though it did not use the word “self-determination“, emphasized details implied in the doctrine. It also included the general principles of open diplomacy rather than secret treaties. Announcement of the peace plan, which can be regarded as “Lenin's moment“, shocked the world at the end of the First Word War.

President Wilson's Fourteen Points war-aims address on Jan. 8, 1918, was essentially a response to the challenge that Lenin has presented with the announcement of peace plan. At the start of his address, Wilson highly praised the plan saying such words as 'Legitimate voice of Russian people,' 'Very rightly,' 'Very wisely,' 'True spirit of modern democracy,' 'American people want me to respond to the declaration,' and 'We declare general principles for peace in Europe.“

Wilson overestimated the propaganda of the Soviet regime.

(5) The Versailles system was an anti-communism system excluding substance of Bolsheviks regime. European powers kept basically cynical and evasive attitudes toward the Russian Bolsheviks. Lloyd George revealed his view toward the Soviet regime at Supreme Council on Jan. 16, 1919. It was the first time leaders of the Allies expressed their view toward the Soviet regime publicly and concretely. On the day, W. H. Buckler was meeting on Wilson's orders with M. Litvinov, delegate of the Bolsheviks government, in a last round of talks in Stockholm.

Lloyd George's proposal on Russian question was just the opposite of Wilson's praise of Bolsheviks. In his proposal, Lloyd demanded to choose one among three choices. The first plan was military intervention. Second, the cordon sanitaire, a word used in medieval age, to separate Russia from the outside world. The third plan was to summon the leaders of all the Russian fractions and factions to Paris conference. Of course the Supreme Council rejected the plan. As German troops withdrew from Ukraina and Baltic region, the Allies had to fill the vacuum of power swiftly.

Wilson and Lloyd George sent out invitations to Russian regime to send delegates to Prinkipo, a resort island between Black Sea and Sea of Marmara on Jan. 21, 1919. The Bolsheviks on Feb. 4, 1919, blamed that capitalists only sought material consensus and rejected project presented by the Allies, giving a blow to Wilson.

The Allies prepared a plan to dispatch a survey team to Russia after the Prinkipo plan ended in failure. The Allies proposed W. Bullitt to go to Russia as a member on the survey team on Feb. 17, 1919. Afterward Bullitt and L. Steffens spent one week luxuriously with Lenin and Georgiy V. Chicherin in Moscow. The Prinkipo happening ended with it.

3.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Center' and 'Periphery'

(1) League of Nations

The Versailles System saw the birth of League of Nations, the fir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history. It was developed from the Holy Alliance treaty and the Quadruple Alliance treaty signed in September and in November, 1815, respectively.

The League of Nations had some distinctive features. It is an international body led by Anglo-Saxon states that tries to solve international disputes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based on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League covenant was a part of the Treaty of Versailles, a peace treaty with Germany. The League of Nations was from the start an international body for the benefit of the victorious Allied countries. Germany could get the membership in 1926 one year after it signed Locarno Agreements.

(2) Center and Periphery

The Versailles system further deepened the dual structure of center and periphery in world politics established in the 19th century. During the Vienna congress, actors from the periphery states were just invited to vast and frivolous social gatherings such as balls and galas and “The congress dances.“ The plenary session of the congress could not be held because of many demands made by delegates from states collapsed during the Napoleonic Wars. Some worked for recovery of medieval order. For example, F. von Gärtner tried to realize demands of the high class nobility carrying an official title “Representative of 42 Kings.“

The same phenomenon revived in the Paris Peace Conference. As the congress of Vienna avoided the medieval order actors, Wilson evaded some of the delegations to the

peace conference saying “It is not desirable that incomplete states participate in the peace conference.”

In October, 1918, F. J. Cobb and W. Lippmann, under the request of Colonel House, wrote out a memorandum that explained Wilson's Fourteen Points.

The memo interpreted article 5 of the fourteen points as “German colony and other coloni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ternationally as a result of the war.“ Wilson responded to the memo and made a comment like above.

During the Paris conference the Council of Five, or Council of Four, could not settle the big questions among themselves one-sidedly without taking account of public view and opinions of the smaller nations. One method accepted by the conference was to permit states except Big Five countries to present written materials that clarify their positions to the council and delegates of those states to participate in the council meeting and present their positions. Such democratic way, however, caused the slowness of progress of the conference. Representatives of small nations from all over the world reiterated explanations about their presented materials. The council had to spend a lot of time hearing contracting and competing opinions of each country.

(3) The Allies in 1917 organized a survey team “Inquiry“ and started to study regional issues, specially those of periphery states, that are likely to arise in the anticipated peace conference.

The American inquiry team submitted over 60 reports on issues of periphery regions. However, Wilson and his aides had no time to review any of the reports. Wilson went to Paris in December, 1918, along with the 25 researchers on the Inquiry team aboard the George Washington. He failed to meet with them during the Paris peace conference.

Ⅲ.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1919 and the Korean Peninsula

1. The March First Movement is still an unfinished one

The Korean peninsula is a region where historical tasks of the 19th, 20th and 21th centuries have not been resolved yet.

The 19th century was a period when modern state building was completed in western countries. But Korea has a problem of unification now. The 20th century was a period of Cold War. Korea has not yet get rid of legacy of Cold War. In the post-Cold War period, the Korean peninsula is exposed to the task of the 21st century globalization. Accordingly the March First Movement which aimed to restore the role of actor in international community in 1919 remains as a question of the contemporary period.

2. The March First Movement is a globalization movement

National self-determination movement was a popular political campaign in the periphery region of world politics in 1919. It was a kind of present-day globalization movement if we express with contemporary terms. It is important the Korean peninsula took part in such political movement. The movement has a historical meaning as it changed the attitude of major powers toward Korea who saw Korea as a barbarian hinterland. Korea had only been regarded as an object for European public laws since it first came across the foreign civilization in the middle of 19th century. There are two books that deal with topics relating to this.

① H. Temperley(1920-1924)

His book *A History of the Peace Conference of Paris* is a book that people who study Paris peace conference must read.

Volume 1(pp.245-246) explains representatives of powers and treats of situations in smaller nations such as Poland, Czechoslovakia, and Yugoslavia. It refers to Chosŏn situation at note ① on p. 246. The Chosŏn people in Siberia dispatched two delegations to the conference. They embarked on their journey on foot on Feb. 5, arrived Archangel in

July and then Paris in December after the end of the conference. The author wrote they were waiting for opening of the plenary session of the League of Nations.

② S. Bonsal(1946), *Suitors and Suppliants. The Little Nations at Versailles*.

Bonsal worked as a secretary of American legation in Chosŏn in 1895 and Tokyo during the period between 1896 and 1898, respectively. During the Paris Peace Conference, Bonsal, an aide of Colonel House, worked as a French interpreter for Wilson.

According to his diary on February 5, 1919, Mrs. House came into his office in the morning and asked him to accompany Colonel House in the latter's walks. Mrs. House requested him to tell one of his stories about life in Korea, which amuse Colonel House so much. She added that Koreans must be nice people at least they are not raising perplexing issues in Paris. Bonsal emphasized the advantages of the Chosŏn politics in a meeting with House, who told the story to President Wilson several days later.

3. Doctrin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was a 'Concept' of the Year 1919

Robert Lansing, Wilson's own secretary of state, was convinced of the danger of putting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to the minds of colonial peoples. In his diary presumed to be written on Dec. 30, 1918, he said “Dynamite, what kind of disaster it will cause?“ The “dynamite“, the notion of self-determination, is just the “concept.“ It also is the reason that the year 1919 is regarded as “Wilsonian moment.“ It was like the constitutionalism after the year of 1815 when revolutions broke out in the peripheral states of Europe(specially Iberian Peninsula and Italy). The constitutionalism or the “constitution concept“ was the goal of those revolutions. The “concept“ is born when various historical meanings and experiences expressed in words for specific social phenomenon are condensed into one word and accepted by constituents of a society. The concept has an explosive power to transform the whole society and studies on the history of concept is a methodology for a “total history(l'histoire totale).“

The doctrine of self-determination in 1917 was such a concept with explosive power and it was a cause for political/social movements. The self-determination movement as a concept condensed all the historical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he Korean people

about foreign relations formed since Korea encountered foreign civilization in 1866. Understanding of foreign relations are not formed by logics but it is the expression of collective unconsciousness. It is the revelations of obsessions with beliefs and fears in past experiences. The doctrine of self-determination was a concept formed by both the historical realities of Chosŏn and the year of 1919, the time factor.

Chosŏn intellectuals had been familiar with such concepts as independence, autonomy and self-reliance since mid-19th century. Independence was a concept in modern international law that is aimed at supporting modern states while autonomy and self-reliance were related to foreign relations with bigger nations. Such concepts were incorporated into concept of modern public law system and got to have explosive power in the year of 1919.

4. Creative Study for Inter-Communication of Basic Concepts in Northeast Asia

The chaos situations in world politics in post-Cold War period is well reflected in heterogeneity of actors. Various actors such as traditional modern states, world states like the United States, medieval states like Iraq and regional unions such as European Union(EU) are mingled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Northeast Asian countries cannot but to aspire to transform to the regional state form like EU in order to pursuit high quality of life in the 21th century. It is necessary for them to co-exist with US and EU and respond to Russian question.

Inter-communication of basic concepts of Northeastern Asia is a prerequisite for building a regional cooperation. Activities of specialists like the intellectual works of J. Monnet or joint communique of G. Ritter and P. Renouvin are inevitably needed.

The study of March First Movement is as pointed out in the preceding paragraphs closely related to issues in the contemporary period. We should review it with a “creative“ spirit(in a Latin word, inventio) reinterpreting historical experiences based on today's realities. Of course such reinterpretation should coincide with discourses authorized by the world academia. A joint study on March First Movement by the three countries of Northeastern Asia is necessary to establish Northeastern Asian regional union.

참가자 소개

金喜坤 KIM Heegon

所　　屬 : 安東大學校 敎授/安東獨立運動紀念館 館長
專攻分野 : 韓國近代史/獨立運動史, 世界 植民地 解放運動史, 國內 地域別 獨立運動 事例 硏究
e m a i l : heegkim2@dreamwiz.com
主要業績 : 『中國關內 韓國獨立運動團體 硏究』; 『大韓民國臨時政府 硏究』; 『安東사람들의 抗日鬪爭』 等.

朴贊勝 PARK Chanseung

所　　屬 : 漢陽大學校 敎授
專攻分野 : 韓國近代思想史
e m a i l : pcshistory@hanyang.ac.kr
主要業績 : 『韓國近代政治思想史 硏究』; 『民族主義의 時代』; 『近代移行期 民衆運動의 社會史>』 等.

耿云志 GENG Yunzhi

所　　屬 :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硏究所 硏究員
專攻分野 : 中國近現代史
e m a i l : gengyz@cass.org.cn

中國遼宁海城人，生于1938年12月。1964年于遼宁大學哲學系畢業后，卽到中國科學院哲學社會科學部（中國社會科學院前身）近代史硏究所工作至今。現爲中國社會科學院學部委員，近代史硏究所硏究員，兼任中國現代文化學會會長，中國近代思想硏究中心理事長。多年來一直從事中國近代思想史、文化史和政治史的硏究工作，主要著作有《胡适硏究論稿》、《梁啓超》、《西方民主在近代中國》、《耿云志文集》、《近代中國文化轉型硏究導論》等二十余种，發表論文和文章二百余篇。曾先后到日本、加拿大、美國，以及香港、台湾訪問和講學。目前開始准備編撰多卷本的《中國近代思想通史》。

白永瑞 BAIK Youngseo

所　　屬 : 延世大學校 史學科 敎授
專攻分野 : 中國現代史, 東아시아史
e m a i l : baik2385@hanmail.net
主要業績 : 「相互 疏遠과 疏通의 東아시아」(2007) ; 「平和에 對한 想像力의 條件과 限界 - 東아시아共同體論의 省察」(2007) 等.

松尾尊兊　MATSUO Takayoshi

所　　屬：京都大 名譽敎授
專攻分野：日本近代史

1929年鳥取市生まれる。１９５３年京都大学文学部史学科卒業.　1981年同教授.
1993年同名誉教授、京都橘大学教授. 2003年同名誉教授.
主著：『大正デモクラシー』（岩波書店, 1974年), 『普通選挙制度成立史の研究』（岩波書店, 1989年）, 『民本主義と帝国主義』（みすず書房, 1998年）,『戦後日本への出発』（岩波書店, 2002年）.

崔德壽　CHOI Deoksoo

所　　屬：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敎授
專攻分野：19世紀 國際關係史, 韓日關係史, 東아시아 歷史分爭
e m a i l：dschoi@korea.ac.kr
主要業績：『大韓帝國과 國際環境(2006, 선인)』; 『開港과 朝日關係(2004, 高大出版部)』; 「第2次 헤이그 平和會義(1907)와 大韓帝國 言論의 世界認識」(2008,『韓國史學報』30) 等.

Thomas John KNOCK

所　　屬：Clements Department of History,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專攻分野：美國現代史
e m a i l：tknock@smu.edu

Thomas Knock earned his Ph. D. in History at Princeton University and teaches at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in Dallas, Texas. Professor Knock is the author of *TO END ALL WARS: Woodrow Wilson and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Oxford, 1992) and is the co-author of *The Crisis of American Foreign Policy: Wilsonian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In 2003, his seventy-page chapter on historical works about the First World War and the Paris Peace Conference was published in SHAFR's two-volume *American Foreign Relations Since 1600, A Guide to the Literature*. Knock is currently writing a biography of Senator George McGovern, the 1972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and critic of the American war in Vietnam.

權容立　GWEON Yonglib

所　　屬：慶星大學校 敎授
專攻分野：美國外交政策, 國際政治
e m a i l：ylgweon@ks.ac.kr
主要業績：『美國對外政策史』(1997, 민음사) ; 『美國의 政治文明』(2003, 삼인) ; 「美國 民族主義의 本質-反射와 透映」(『歷史批評』 64, 2003)

金容九 KIM Yongkoo

所　　屬 : 翰林大學校 翰林科學院 院長兼 特任敎授
專攻分野 : 世界外交史, 韓國外交史
e m a i l : yongkookim@hotmail.com
主要業績 : 『世界外交史』(신판, 2006) ; 『壬午軍亂과 甲申政變』(2004) ; 『世界觀 衝突과 韓國外交史』(2002) ; 『世界觀 衝突의 國際政治學』(1997) 等.

李根旭 LEE Geunwook

所　　屬 : 西江大學校 政治外交學科 副敎授
專攻分野 : 國際政治理論, 外交史, 軍事安保
e m a i l : glee@sogang.ac.kr
主要業績 : 「國際體制의 安定性과 새로운 核保有 國家의 登場 : 21世紀의 核擴散 論爭」, 『社會科學硏究』 15-2, 2007. ; 「現實主義 理論의 새로운 變化」, 『戰略硏究』 13-3, 2006. ; "I See Dead People: Air-Raid Phobia and Britain's Behavior in the Munich Crisis." *Security Studies Vol. 13, No. 2* (Winter 2003/2004).

李萬烈 YI Mahnyol

所　　屬 : 淑明女子大學校 名譽敎授
專攻分野 : 韓國近現代史, 韓國基督敎史, 韓國史學史
e m a i l : mahnyol@hanmail.net
主要業績 : 『丹齋 申采浩의 歷史學 硏究』(1990, 문학과지성사) ; 『韓國 基督敎와 民族意識』(1991, 지식산업사) ; 『韓國 基督敎 受容史 硏究』(1998, 두레시대) ; 『韓國 基督敎 醫療史 硏究』(2003, 아카넷) ; 『韓國 近現代 歷史學의 흐름』(2007, 푸른역사) 等.

李　薰 LEE Hoon

所　　屬 : 東北亞歷史財團 제1연구실장
專攻分野 : 근세한일관계사
主要業績 :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등
e m a i l : hoon@historyfoundation.or.kr

車雄煥 CHA Woonghwan

所　　屬 : 東北亞歷史財團 제2연구실장
專攻分野 : 중국현대사, 한중관계사
主要業績 : 『戰前平津地區知識分子對日本侵華反應之硏究』
e m a i l : chawh@historyfoundation.or.kr

3·1운동 90주년 기념

‘1919년의 세계사적 의의’ 국제학술강연회 자료집

발 행 인 :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발 행 일 : 2009년 3월

발 행 처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77(임광빌딩)

☎ 02-2012-6076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인 쇄 처 : 연화디앤피(02-2269-8620)

비매품